

碩士學位論文

일본의 海洋戰略과 해상자위대 能力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ese Maritime Strategy and Capability of the MSDF-

國 防 大 學 校

安全保障大學院 軍事戰略專攻

李 載 春

일본의 海洋戰略과 해상자위대 能力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Japanese Maritime Strategy and Capability of the MSDF-

指導教授 張文錫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國 防 大 學 校

安全保障大學院 軍事戰略專攻

李 載 春

李 載 春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教授 _____(印)

審査委員 _____(印)

審査委員 _____(印)

2002年 12月 日

國 防 大 學 校

要 約

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 미국의 안보우산아래서 국가발전에 주력하여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재군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그러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탈냉전후 변화한 안보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이제는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통한 세계적·지역적 강대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을 통해 꾸준히 그 전력을 증강하여 오늘날 현대화된 일본의 방위력은 질적 수준 면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상대할 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1954년 7월 발족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소요 방위력을 정비해 오다가 국제정세가 냉전적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대소전략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의 이행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전략적 역할로서 Sea Lane 방위를 추구하게 되면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전력의 두드러진 질적 증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함께 그 역할이 매우 증대되었다.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종래의 ‘일본 급변사태’ 및 ‘극동급변사태’에서 ‘일본 주변 급변사태’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의 1000해리 Sea Lane 방위범위보다 훨씬 확대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역할증대에 따라 일본은 해양전략을 수정하였고, 해상자위대 또한 독자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무기체계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지스함, 다목적 상륙강습함의 건조와 각종 주력함정의 현대화 등을 통해 전략수행능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지역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명분에 따른 것이며, 일본은 여전히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적극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후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에 있다.

연구를 위해 해양력과 해양전략, 해군력 분류 및 분석평가 등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일본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일본 해양전략을 연구하기에 앞서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의 변화, 그리고 해양안보환경을 고찰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 50여년간 미국에 안보를 의존했다. 그러나 50년 전 패전시와는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에서 판이하게 달라진 일본에게 탈냉전 이후의 국제상황은 일본에게 안보측면에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했다. 즉, 탈냉전 후에도 민족, 영토, 종교, 경제문제 등으로 안보정세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일본으로 하여금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주변 지역의 잠재적 위협에 관심을 전환토록 하였다.

일본은 일본을 둘러싼 안보상황을 세계적 수준의 무력분쟁 가능성은 적어졌으나, 영토·종교·민족문제 등의 분쟁요인과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주변지역에서는 극동 러시아군의 양적 삭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각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긴장 등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일본이 인식하는 위협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대한 최대 잠재위협으로 ‘중국위협론’이 대두되었다.

둘째,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의혹과 북한의 붕괴 및 도발 가능성 증대 등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직접적인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극동러시아 군사력을 여전히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넷째,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따른 남사군도를 둘러싼 긴장고조 및 동남

아 국가들의 군비증강 움직임 등을 해상교통로 보호와 동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경제 및 안보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신방위계획대강」, 「미·일 신안보공동선언」,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등에서 새로운 일본의 방위정책들을 공표하였는데, 그 주된 변화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정책목표의 확대이다. 일본은 냉전기 자국의 독립과 평화, 국가방위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공헌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방위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적 역할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자위대 성격과 지위의 변화이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오직 자위를 위한 자위대만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위대는 '집단지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개별적 자위권만을 갖으며, 자위권행사범위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는다. 자위력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의 전력만을 보유할 수 있고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는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집단지위권 금지' 및 '자위권행사범위제한' 등은 1991년 걸프전에서의 소해정 파견과 PKO참가에 의한 자위대 해외파병, 그리고 1996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수정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까지 확대되어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셋째, 군사력 정비방향의 변화이다. 일본은 본토에 대한 침략을 해상에서 사전에 격퇴하고, 해상교통로 방위라는 전략적 역할수행을 위해 제공권, 제해권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이지스구축함, 대형상륙함 및 지원함의 확보 등은 일본의 신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법적·제도적 정비이다.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를 명분으로 확대된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법령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화는 해양전략에 그대로 반영되어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일본이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해양안보위협은 첫째, 도서영유권·해양경계분쟁의 미해결, 둘째,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

증대, 셋째, EEZ 보호·관리를 위한 해군력 증대, 넷째,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문제, 다섯째, 해양환경 보호에 따른 문제 등이다.

일본은 본토방위를 위한 주변해역방위와 해상교통로 방위 등 전수방위에 입각한 해상방위전략을 해양전략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탈냉전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듯,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 구축에의 기여와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의 대처를 명분으로 해양전략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일본의 변화된 해양전략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방위목표의 확대이다. 본토방위를 위한 주변해역방위와 해상교통로의 보호에 머물렀으나, 방위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상방위범위와 해상교통로의 방위범위를 더욱 확대시킴과 동시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해군력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영향력 발휘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국제·지역적으로 정치·군사역할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수단으로써 PKO활동이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미·일동맹의 틀 내에서 이를 명분으로 해군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나아가 항공모함 등 해양공세전력의 확보를 추진하여, 독자적으로 주변 지역해역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양통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넷째, 무기체계 획득차원에서 이러한 해양전략의 변화를 뒷받침하듯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그 전력증강 내용도 적극적인 해양공세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해상투사전력의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으로 변화된 해양전략의 수단으로써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략의도에 따라 전력증강 방향이 결정된다는 차원에서 해상자위대의 능력분석을 통해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다시 한번 검증할 수 있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병력면에서는 44,000여명의 소수병력이나, 전력구성면에서는 최신의 수상·수중·항공전력을 고루 갖춘 정예화된 입체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함정들은 최신의 대공·대잠·대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센서와 공

격무기가 컴퓨터에 의한 전자처리로 통합운동되는 전술정보처리장치를 탑재하여 모든 해상성분작전능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16척의 보유 잠수함들은 비록 핵잠수함은 아니나, 선령이 매우 낮은 최신의 잠수함들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형화되어 있으며, 센서 및 공격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해상초계기(P-3C) 80여대로 대표되는 해상항공전력은 초계능력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며, 현 P-3C의 현대화 개수작업 및 차기 초계기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그 전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최신의 입체화된 전력을 갖추으로써 그 작전능력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잠전 수행에 있어서는 호위함의 전함정이 대잠로켓인 ASROC 장착, 대잠헬기 탑재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잠전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 능력에서 미해군에 이어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수상함전 능력 또한 현대전의 총아라는 전자정보 및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어 모든 유형의 해상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였다.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능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천해소해 능력에 더해 심해 소해능력 및 기뢰부설능력을 보완중에 있다. 상륙전 전력에 있어서는 오스미함의 전력화로 해상전력투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이익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해상자위대는 2차대전 이후 「전수방위」와 「미해군의 역할보조」라는 기본 틀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구조나 해상작전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잠전 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수상전 능력은 부족하다. 그것은 해상자위대가 구 소련의 핵잠수함에 대처하기 위한 대잠전 전력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 대공전 전력에 있어서도 이지스함이 각 호위대군에 모두 전력화됨에 따라 함대방공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상기동부대의 부재로 육상 발진 우군항공기의 엄호를 받을 수 없는 원거리 해양에서는 오직 함대방공체계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셋째,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은 공격적 기뢰부설보다는 기뢰대응책에 적합한 전력구조로써 기뢰부설분야는 기뢰대응

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넷째, 군수지원분야의 결함이다. 이는 곧 함대의 해상전투지속능력과 연계되어 장기화되는 분쟁에서 해상자위대의 전투지속능력에 심각한 한계성을 초래한다.

주변국과의 전력비교시는 전투함의 단순척수에서 한·중과 비교시 1:0.45:2.35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절반, 한국해군의 2배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수분석시는 1:0.27:0.55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2배, 한국해군의 4배수치를 나타낸다.

단순척수에서 중국해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전력이 질적비교시 2배의 전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중국해군 전력이 노후화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얼마나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전력인가를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이처럼 해상자위대는 일본의 전략적 의지와 경제력에 뒷받침되어 세계 첨단의 전력을 확보해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일본이 의도하는 전략을 완전하게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해양전략의 수행차원에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본토방위를 위한 주변해역 방위능력면에서 독자적인 방위능력을 넘어 방위범위가 더 확대된 지역방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소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이 소멸된 이후 주변국과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주변국을 상대로 일본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의 수행능력면에서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군대가 아닌 평화헌법에 따라 자위만을 위해 존재이나, 자위를 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발전하였다. 전력증강도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보다는 적극적이고 대외지향적인 해상투사전력에 집중하여 비록 항공모함 미보유 등 다소 부족한 면도 있으나, 해상통제형 해군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셋째, 해상교통로 방위와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한 힘의 투사수단으로써 해사자위대의 능력은 해상교통로 방위측면에서는 항모기동부대의

부재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 발휘수단으로서는 항공모함의 부재로 인한 기동타격능력의 결함과 핵능력의 부재에 따른 전략적 억지능력의 결여 등 능력의 한계는 있으나,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1000해리 이상의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해상통제능력을 갖춘 해상시위형 대양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탈냉전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여 일본의 해양전략은 「전수방위」 개념에 의한 수동적 방위개념을 탈피하고, 방위범위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아가 역할증대를 통해 영향력확대를 위한 해양통제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해상자위대의 능력 또한 그러한 해양전략을 뒷받침하듯 자위를 위한 전력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발전하였다.

즉,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능력이 상호 부합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전략적 의도를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었다.

차 례

| | |
|------------------------------|----|
| 제 1 장 서 론 | 1 |
|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
|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 |
| 제 2 장 이론적 고찰 | 5 |
| 제 1 절 군사력의 개념 | 5 |
| 제 2 절 해양력과 해양전략 개념 | 7 |
| 제 3 절 해군의 임무와 역할 | 13 |
| 제 4 절 능력분석 및 평가 | 16 |
| 제 5 절 분석의 틀 | 27 |
| 제 3 장 일본 해양전략 분석 | 30 |
| 제 1 절 일본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변화 | 30 |
| 1. 일본 안보환경 변화 | 30 |
| 2. 일본 방위정책 변화 | 34 |
| 제 2 절 일본 해양전략 분석 | 43 |
| 1. 일본 해양환경 | 43 |
| 2. 일본 해양전략 분석 | 47 |
| 3. 해양전략 분석결과 | 54 |
| 제 4 장 해상자위대 능력 분석 | 58 |
| 제 1 절 해상자위대 전력 | 58 |
| 1. 해상자위대 현황 | 58 |
| 2. 유형별 전력 | 62 |
| 3. 핵심전력요소 | 71 |
| 4. 성분작전능력 | 73 |
| 5. 소결론 | 77 |

| | |
|-------------------------------|-----|
| 제 2 절 주변국과의 능력 비교분석 | 79 |
| 1. 단순수량비교 | 80 |
| 2. 지수분석비교 | 82 |
| 3. 소결론 | 84 |
| 제 3 절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 85 |
| 1.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 | 86 |
| 2. 장기 전력증강계획(2015년) | 89 |
| 3. 소결론 | 92 |
| 제 4 절 해상자위대 능력 분석결과 | 93 |
| | |
| 제 5 장 결 론 | 105 |
| | |
| 부록 1. 함정지수 산출 | 112 |
| 참 고 문 헌 | 115 |

표차례

| | |
|--|-----|
| <표 2-1>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 | 16 |
| <표 2-2> 해군의 유형적 분류 | 18 |
| <표 2-3> 해군력의 일반적인 분류 | 19 |
| <표 2-4> 해군분류 개념 종합 | 20 |
| <표 3-1> 방위정책 변화 | 39 |
| <표 3-2> 해상자위대 임무 | 54 |
| <표 3-3> 해양전략 변화 주요특징 | 56 |
| <표 4-1> 일본의 함정증가 현황 | 58 |
| <표 4-2> 해상자위대 함정현황 | 61 |
| <표 4-3> 호위함대의 주요 호위함 전력 | 62 |
| <표 4-4> 주력 호위함 전력 | 63 |
| <표 4-5> 주요 잠수함 전력 | 65 |
| <표 4-6> 항공전력 현황 | 66 |
| <표 4-7> 주요 상륙함 전력 | 68 |
| <표 4-8> 해군력 비교(단순수량) | 81 |
| <표 4-9> 해군력 비교(지수비교) | 83 |
| <표 4-10>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내용(2001-2005) | 87 |
| <표 4-11> 2015년 해상자위대 전력운용계획 | 91 |
| <표 4-12> 통제형/거부형 함정의 비율 | 97 |
| <표 4-13> 전력구조에 따른 유형적 평가 | 98 |
| <표 4-14> 대양해군 분류기준에 의한 평가 | 100 |
| <표 4-15> 해상자위대 능력 종합평가 | 103 |

그림차례

| | |
|-------------------------|----|
| <그림 2-1> 해양력의 구성 | 10 |
| <그림 2-2> 해군력 평가 | 26 |
| <그림 2-3> 분석을 위한 틀 | 29 |
| <그림 4-1> 해상자위대 조직 | 60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른바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정치적 전환기가 도래하였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화해와 불확실성의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대규모 전쟁발발의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나, 양극체제 붕괴로 이해가 엇갈리면서 민족, 영토, 종교, 경제문제 등으로 지역적 차원의 국지분쟁 가능성은 오히려 증가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정세의 변화는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 개편을 둘러싸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인 군축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비증강의 경향을 보이는 데서 그 징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병력의 점진적 감축추세와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의 지역 영향력 감소로 인해 동북아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상태가 예고됨에 따라 지역강대국들간의 새로운 패권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아·태 지역의 군사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입지를 지속하려는 미국, 고도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에 상응한 정치, 군사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일본, 경제력 신장과 군 현대화로 점진적 영향력확대를 추구하는 중국, 그리고 불안한 국내정세 속에서도 기존의 지역적 위상을 유지하려는 러시아 등 주변 4강의 지역정책은 안보정세에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일본은 대외적으로 국제평화 및 안정유지를 위한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거대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정치·군사적 지위구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안보정책 및 전략에 있어 능동적인 방향으로의 전환과 자위대의 전력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일본

이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힘의 투사능력을 특성적으로 갖는 해상자위대가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운용을 위한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이 두드러진 실정이다.

탈냉전후 일본의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미·일 동맹 성격의 재정의 및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확대조정은 일본의 방위정책 및 군사전략의 범위와 내용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일본이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추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러한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는 해양전략과 관련한 해군력의 활동영역과 전력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한 해양전략에 있어서도 1970년대이래 지속해온 「전수방위」 개념에 의한 수동적 방위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여 「해상교통로방위」라는 전략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이 본토에 이르기 전에 해상에서 이를 격퇴한다는 전략적 개념 하에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상방위전략은 일본이 주장하는 근해방위를 목표로 하는 「전수방위 해양전략」이 아닌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남지나해 넘어 까지 확대하여 1000해리 해상교통로 주변 해역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하는 「지역방위전략」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일본근해는 물론 북서태평양으로부터 남쪽의 대만 및 동남쪽의 유탄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으로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은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일본은 한국 및 주변국에 대해 여러 형태의 침략을 자행했으며, 그때마다 일본의 해군력은 그 선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때문에 군사력의 공세적 사용에 대한 헌법상의 금지 등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증대 및 전력증강 추구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미·일 안보동맹차원의 역할확대를 명분으로 주변국들의 우려를 무마하는 한편, 일본이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에 적합한 국제적 의무를 감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하며,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타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국력의 요소가 군사력보다는 경제 력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으며, 미·소의 군사대결을 중심으로 한 대결국면인 냉전체제가 붕괴된 후에는 경제력이 세계정치의 장에서 차지하는 몫이 가일층 커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본은 경제력을 통한 강대국으로서의 지 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은 해군력이 갖는 힘의 투사라는 본질을 고려할 때, 일본이 추구하는 국제·지역적 영향력 확대라는 국가정책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최근 해상자위대 의 전력증강 내용이 과거의 기간방위력 정비가 아닌 해외투사전력의 증강에 집중 하고 있는데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군사적 역할확대 의도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 대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해양전 략에 대해서는 아직도 단순히 미·일 동맹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수방위’개 념하의 해양전략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반 제한 사항으로 인해 아직 일본이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 등의 본격적인 해양투사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들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히 일본의 경제 력과 이지스함을 포함한 현대화되고 대형화된 함정의 다수보유라는 이유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니 3위니 하는 막연한 평가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해양전략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해 분석하고자한다. 즉,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의

변화에 따라 일본이 어떠한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전략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어떠한가를 분석 평가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냉전 종식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그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은 무엇인가?

셋째, 해상자위대의 전력평가 및 주변국과의 비교, 그리고 해군력 분류평가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가?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최근 국제질서의 기류가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군비감소 추세와 평화, 화해, 협력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비경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특히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 이후 변화하는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을 분석하고, 전략수단으로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범위를 탈냉전기 이후 일본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제 2장에서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 3장에서 변화된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에 따른 일본의 해양전략, 그리고 제 4장에서는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해양전략 분석을 위해 가능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는 문헌조사방법을 중심으로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력평가 와 비교분석 방법으로 단순수량비교와 함정지수비교, 그리고 해군력 분류평가 방법을 사용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군사력의 개념

1. 군사력의 개념 정의

군사력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물리적 수단으로서 적을 가장 실효성 있게 강제작용을 하는 힘이며, 적을 설복시키거나 침략을 억제하여 적을 무력화 또는 격멸 및 포획하는 힘이다.¹⁾ 이 힘은 국력의 일부로서 국가이익의 국제적인 충돌을 해결하는 수단이며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물리적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할 수 있다. 「클라우스 노어」(Klaus Knorr)는 “군사력이란 국가적 이익의 국제적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고,²⁾ 또한 「오스군」(Robert E. Osgood)은 “군사력은 한 국가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³⁾이라고 하였으며, 「줄리안 라이더」(Julian Lider)는 “군사력이란 가상적국과의 관계에서 한 나라가 갖는 실질적인 군사적 힘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비상시 동원될 수 있는 잠재적 혹은 잠재군사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다른 국가에 의해서 추정된 군사력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⁴⁾

한편 일본의 「국방용어사전」에서는 “군사력이란 국제관계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를 방지하는 체제적·효과적인 제도상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귀결로서 국가가 그것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혹은 대외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保持하는 특별한 힘”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p. 43.

2) Klaus Knorr, *Military Power and Potential*, 국방대학원 譯,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안보총서 제8권 (서울 : 국방대학원, 1976), p. 19.

3) Robert E. Osgood, *Limited Wa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 326.

4)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국방대학원 譯, 『軍事理論』 (서울 : 국방대학원, 1985), p. 56.

결국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군사력의 개념은 현존군사력과 동원 가능한 잠재군사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국력의 일부이자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 국가의 현존군사력과 동원 가능한 잠재군사력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된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로서는 현존군사력, 즉 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전투에 직접적으로 발휘되는 최종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성요소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는 다양하고 복잡해서 일률적으로 보편화하여 말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실제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군사력의 평가를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클라우드 노어」는 군사력을 육·해·공군의 동원된 군사력과 정치, 경제, 사상력의 잠재적 군사력으로 구분하였으며⁶⁾, 국방대학원에서도 군사력을 「클라우드 노어」와 마찬가지로 동원된 군사력과 잠재적 군사력으로 양분하고, 동원된 군사력은 인적요소와 물적요소, 기타요소로 구분하였으며, 잠재적 군사력은 정치력, 경제력, 사상력으로 구분하였다. 이어서 인적요소는 육·해·공군의 병력을 중심으로, 물적요소는 군수지원, 무기체계, 군수산업, 군사비 등으로, 그리고 기타요소는 군사전략과 군사동맹으로 구분하였다. 경제력은 인적 및 물적 동원능력과 지정학적 위치, 과학기술로, 정치력은 전쟁지도력으로, 그리고 사상력은 전쟁의욕으로 구분하였다.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군사력은 군사능력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군사능력은 현존능력과 잠재능력을 말하며, 국가의 의지는 군사정책 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의미한다.⁸⁾

5) 日本防衛學會 編, 『國防用語辭典』 (東京: 朝雲新聞社, 1980), “軍事力” 項目.

6) Klaus Knorr, *Military Power and Potential*, 국방대학원 譯,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pp. 19-20.

7)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pp. 44-45.

8) 정병호, “남북한 군사력: 그 실상과 허상,” 『국제정치논총』 제 29집 1호, 1989, p. 113.

제 2 절 해양력과 해양전략 개념

1. 해양력의 개념

미국의 해양전략가 마한(A. T. Mahan)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해양력이란 국민을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위대하게 만드는 경향을 갖는 전부이며, 해양을 활용하여 획득하는 국력과 해양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국력을 총칭한 것”⁹⁾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해양력의 구성요소를 지리적 위치, 해안선, 항만, 기후 등의 물리적 형태, 영토의 크기, 인구, 국민성, 정부의 성격 등으로 구분하였다.¹⁰⁾ 소콜(S. E. Sokol)박사는 그의 저서 「원자력 시대의 해양력」에서 “오늘날 해양력은 힘이나 압력이기보다는 포용력 내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유 국가에게 경제적, 평화적 이익을 주는 적극적인 능력과 국가목표의 추구를 위한 전쟁승리의 도구가 된다”¹¹⁾고 하였으며, 로스킬(S. W. Roskill)은 그의 저서 「해양력의 전략」에서 “해양력의 기능은 국가가 자국의 사용은 허용하고 타국의 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해양을 통제하는 힘”¹²⁾이라 하였다. 또한 소련의 해군원수였던 골시코프도 그의 저서 「국가의 해양력」에서 “해양력은 전 해양을 지배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¹³⁾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한 국가가 가능한 한 해양의 모든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자원을 자국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레이(Colin Gray)교수는 역사를 통한 해양력의 사용을 연구하여 두 가지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였다. 첫째, 만일 대륙세력이 군사적 해양지배(Military command

9)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32), 해군본부 譯,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서울 : 해군본부, 1986), p. 1.

10) 상계서, pp. 28-29.

11) Anthony E. Sokol, *Sea Power in the Nuclear Age* (Washington D.C : Public Affairs Press, 1962), p. 62.

12) S. W. Roskill, *The Strategy of Sea Power* (London : Collins, 1962), p. 15.

13) Sergei G. Gorshkov, *The Sea Power of the State* (Oxford : Pergamon, 1979), 국방대학원 譯, 『국가의 해양력』 (서울 : 국방대학원, 1987), pp. 14-15.

at sea)를 보증하던가, 해양거부를 성취하거나 또는 매우 과감하게 해양지배에 대한 분쟁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 둘째, 해양세력 또는 해양 의존형 다국적 연합에 대하여 해양지배(Command at sea)는 전쟁에서 성공의 불가피한 전략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명제들은 영국과 NATO가 둘 다 전략적으로 해양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¹⁴⁾ 또한 해양국과 해양동맹국이 주공격을 당할 경우에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해양력은 보다 작은 분쟁상황에서도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해양력은 분쟁예방(conflict prevention)과 분쟁통제(conflict control)를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전과 안정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해군주의자들은 국가생존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력이 주는 세 가지 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해양력은 식민지 획득, 무역장악, 그리고 국가가 부유해지는 효과적 수단 등 세 가지 선물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즉 해군력은 잠재적인 적을 억제하고 패퇴시키는 효과적 수단이다. 셋째, 해양력은 군사적, 비군사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력 자체가 분쟁을 극복하는데 결정적 수단이 된다.¹⁵⁾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해양력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해양력은 바다를 사용하기 위한 능력을 통하여 발휘되는 군사적, 정치적 및 경제적 힘이며 전통적으로 해양력에 의존하는 국가들의 생존을 위하여 해양교통을 통제하는데 사용되어 온 힘¹⁶⁾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지닌 힘의 한 형태로서 전시나 평시를 불문하고 자국의 해운무역에 종사하는 선박이 자국에 필요한 해역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힘이며,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이 그 해역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힘이기도 하다.¹⁷⁾

14) 강영오, 『해양전략론』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 49.

15)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 8.

16) 강영오, 『해양전략론』, p. 48.

17) 김현기, 『국가경제와 해양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p. 7.

2. 해양력의 구성요소

마한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서 국가의 해양력에 영향을 주는 6가지 기본요소(지리적 위치, 천연산물 및 기후를 포함하는 물리적 형태, 영토의 크기, 인구, 국민성, 국가의 체도를 포함하는 정부의 성격)를 제시하였다.¹⁸⁾ 소콜 교수는 그의 저서 「핵시대의 해양력(Seapower in the Nuclear Age)」에서 해양력의 창출과 유지 그리고 해양력이 특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지리 또는 자연적 환경, 해상수송능력, 전투력, 기지, 공업능력, 국민의 자질 등을 제시하였으며,¹⁹⁾ 영국의 틸 교수는 그의 저서 「해양전략과 핵시대(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에서 해양력의 구성체를 원천(sources : 해양공동체, 자원, 정부의 형태, 지리)과 요소(elements : 상선해운, 기지, 전투도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²⁰⁾ 한편 커스레이(H. J. Kearsley)는 그의 저서 「해양력과 21세기」에서 해양력을 투입요소, 개입요소, 그리고 산출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림 2-1> 참조. 해양력은 제반 투입요소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산출요소가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²¹⁾

18) Alfred T.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김주식 譯,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pp. 76-112.

19) Anthony E. Sokol, *Sea Power in the Nuclear Age*, pp. 100-143.

20)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p. 90.

21) Harold J. Kearsley, *Maritime Power and Twenty First Century*, 이원우·강영진·김창국 共譯, 『해양력과 21세기』 (대전 : 해군대학, 1999), p. 231.

<그림 2-1> 해양력의 구성

| 투 입 요 소 | 의사결정 과정 | | 산 출 요 소 | |
|---|------------------|--|--|-----------------------------|
| 물리적 요소 | 개 입 요 소 | | 해양외교 해양유지 해양력 현시 해양통제 및 거부 해상전쟁역지 해상도화선 해양력 투사 | 함정 항공기 인력 보급 기지 |
| · 지리적 위치 · 해양영역의 범위 · 영토/영해의 비율 · 해양자원 | | | | |
| 경제적 요소 | | | | |
| · 국내총생산/영해대비 · 일인당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산업자본대비 · 국내보유상선 · 조선산업 · 항만 이용도 · 인구 | | | | |
| 정치적 요소 | | | | |
| · 해운관례 · 정치체제 · 세력권 할당 · 정치/군사 할당 | | | | |

※ 출처 : 이원우·강영진·김창국 共譯, 『해양력과 21세기』 (대전 : 해군대학, 1999), p. 231.

3. 해군력의 개념

소련의 해군영웅이자 참모총장이었던 골시코프 제독은 그의 논문 「전시 및 평시에 있어서의 해군의 역할」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영토가 해양에 접해 있는 국가의 독립의 강화와 그 경제적, 문화적 발전에 해군은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다해왔다. 해군이 중요한 정치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해군의 위력은 각개국가를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는 요인의 하나였다. 그리고 역사는 해군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장기간 강대국의 지위를 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²²⁾ 해군(Navy) 또는 해군력(Naval Power)은 한 국가가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로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해양사용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종합컨대, 해군력은 국가목표의 지원, 국가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해양통제권을 확보, 유지 및 행사하는 역량이다. 해군력은 군사력의 한 구성요소인 동시에 해양력의 필수적인 전투력 요소로서 전투함정, 잠수함 및 항공기를 포함한 무기체계,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기지 및 이들의 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된다.²³⁾

즉, 해양전략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수단이 되는 해군력의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해상무기체계, 병력, 기지 및 제반지원시설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하지만, 각각의 모든 사항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해군력을 해군력의 구성요소 중 무기체계에 한정하여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4. 해양전략과 해군전략

가. 해양전략

미해군의 왓킨스(James D. Watkins) 제독은 해양전략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

22) Sergei G. Gorshkov, *Navies in War and Peace*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74), 해군본부 譯, 『전시 및 평시에 있어서의 해군의 역할』 (서울 : 해군본부, 1976), p. 5.

23)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서울 : 해군본부, 1991), p. 2-2.

과 같이 말하였다. “국가군사전략의 해양 구성요소인 미국의 해양전략은 평화시로부터 세계전쟁과 그 종전에 이르기까지 해군부대의 세계적 사용을 위하여 현명한 사고와 계획을 조장한다.”²⁴⁾ 한편 영국의 킬 교수는 “해양전략이란 국가가 자국의 해양력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고, 전쟁시를 막론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다.”²⁵⁾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양전략에 대한 견해들이 있지만 종합해 본다면, 「해양전략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²⁶⁾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떠한 전략사상이 기타의 전략사상에 비해 비교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당시의 국가정책과 위협환경에 의해 결정되듯이 해양전략 또한 국가의 지리적 위치, 안보환경, 국가목표, 국가정책 및 전략, 전략목표, 위협요소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로 인해 대륙학파의 대륙전략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해양거부에 중점을 두고 해양전략이 지상전략에 종속된 대륙국가의 대륙적 해양전략과 해양학파의 해양력 우위사상에 영향을 받아 적함대를 격멸하고 해양지배 및 해양통제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군이 지상전략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종속되지 않고 운용되는 해양적 해양전략으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해양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탈냉전후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안보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방위정책의 변화, 그리고 변화된 해양환경을 요인으로 하여 일본의 해양전략을 분석하였다.

나. 해군전략

해양전략이 해양력의 운용에 관한 것이라면, 해군전략은 해군력의 운용에 관한 것일 것이다. 해군전략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면,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의 한 구성요

24) James D.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6), p. 4.

25)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p. 14.

26)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p. 2-3.

소인 해양전략의 목표를 조장하기 위한 해군부대의 운용에 관한 것²⁷⁾이라고 미해군기본교리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해군전략이란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라고 해군기본교리에서 정의하고 있다.²⁸⁾ 종합하면, 「해군전략이란 해양전략의 하위개념으로 군사전략의 범주에 속하며,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수단인 해군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략」²⁹⁾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제 3 절 해군의 임무와 역할³⁰⁾

해군력은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위를 과시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평시에 있어서 해군력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국가전략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해군력을 대표하는 군함은 역사를 통해 항상 전투기능 이외에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즉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상국가의 대외정책이나 형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목표달성에 이바지 한 것이다. 군함이 갖는 특성과 장점을 살펴봄으로써 왜 해군력이 타군에 비해 국제정치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해군군함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언급한 부스(Ken Booth)는 군함이 갖는 대외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장점을 첫째, 다재다능성, 둘째, 통제성, 셋째, 기동성, 넷째, 투사능력, 다섯째, 접근가능성, 여섯째, 상징성, 일곱째, 내구성 등을 들고 있다.³¹⁾ 또한 평시 대외정책의 지원수단으로서 해군력이 이용되는 이유를 김

27)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Warfare*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the Navy, 1961), p. 4-4.

28) 해군본부, 『해군기본교리』, p. 2-3.

29)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대학, 1995), p. 40.

30) 역할과 임무는 흔히 혼용되고 있는데,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역할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며, 임무란 ‘맡은 일’을 뜻한다. 동아출판사, 『동아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1993). 따라서 여기서는 개념적으로 다소 구별하여 「당위적인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역할’」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부여된 ‘임무’」로 사용한다.

31) Ken Booth, *Navies and Foreign Policy* (London : Cromhelm, 1977), pp. 33-36.

종헌 교수는 해군력이 갖는 융통성, 가시성, 침투성으로 보고 있다.³²⁾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는 시대가 변하고 해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역할과 임무도 또한 변화하여 왔다. 최근의 해양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의 통항측면에서 국제협약들이 전쟁계획을 수립하거나 해전수행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되었고, 평시에도 해양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제한하게 되었다. 이는 1856년 해적행위의 철폐와 전시 중립국 선박의 해양 통상의 자유를 보장한 파리선언, 그 이후 1909년 런던선언, 1922년 워싱턴 회의, 1958년 제네바 협약을 거쳐 1982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의 해양사용에 관한 규제 때문이다.

둘째,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양환경의 변화는 해군력을 포함외교라는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대외정책의 수단으로부터 해군력 현시라는 공약적 대외정책의 수단으로 변모시켰다.

셋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진보는 해양을 핵억제력의 수단 중에서 가장 취약성이 적은 핵보복력의 활동무대로 만들었으며, 동시에 정밀유도무기체계의 등장은 해양을 중소국가의 소해군일지라도 강대국의 위협적인 해군활동에 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켰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해양의 경제적 가치에 전통적인 어업이나 통상의 경제적 가치 외에 해저자원이라는 또 다른 경제적 가치를 추가시켜 해양의 이용뿐만 아니라 해저자원의 획득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켰다.³³⁾

국가의 국가목표달성을 위해 그 국가의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가 정확히 정의되어 있느냐의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이 그들의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1970년대 이후 전통적인 해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미국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이것이 새로운 해군의 역할과 임무정립의 시발점이 되었다.

32) 김종헌, 『해양과 국제정치』 (서울 : 세종출판사, 1997), p. 17.

33)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2), pp. 145-151.

1. 미해군의 역할

가. 냉전시대 미해군의 역할

1970년대 들어 미국은 심각한 구소련의 해군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때까지 유일하게 해양지배의 배타적 행사를 누려 왔던 미국으로서는 구소련의 심각한 해군위협으로 인해 해양지배보다는 크게 제한된 해양통제에 중점을 둔 현실적인 해군전략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미해군의 터너 제독은 미해군의 역할을 전략적 억제, 해양통제, 해양전력투사 및 해양현시로 집약하였다.³⁴⁾

나. 탈냉전시대 미해군의 역할

1994년 개정된 미해군의 「해군기본교리」에서는 걸프전 이후와 탈냉전시대를 맞이하여 미해군의 새로운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새로운 미해군의 역할을 보면 억제와 시위는 냉전시대의 역할과 비슷하나, 전쟁이외의 해군작전, 해상수송 및 합동작전을 추가하였으며, 냉전시대 해양통제와 해양전력투사 역할을 「전쟁에서 해군작전」에 포함하여 ‘바다에서의 전쟁’과 ‘바다로부터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⁵⁾

2. 구소련해군의 역할

소련해군의 콜시코프 제독은 해군의 임무에 대해 전시와 평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전시임무

콜시코프 제독은 해군이 전시에 수행해야하는 임무로서, 전략적 타격능력의 안전확보, 전략적 방어, 해상교통로 차단, 서방측의 전력투입능력의 타파, 육상부대의 지원, 잠수함 보호, 외국에의 무력투사 등으로 설정하였다.

나. 평시임무

해군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전략 수행차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

34) Stanfield Turner, *Mission of the U.S.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March-April 1974), p. 10.

35) 강영오, 『해양전략론』, p. 332.

하는데, 해군의 평시임무로는 전투준비 강화, 국가이익의 보호, 정치도구로서의 해군³⁶⁾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는 <표 2-1>과 같다.

<표 2-1>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

| 성격구분 | 역 할 | 임 무 | 세부임무(요구활동) |
|--------------|----------------------------|---|--|
| 대내안보 | 관할수역 방위·치안 (전쟁억지와 주권행사) | · 침투억제 및 저지 · 광역초계 및 현시 · 전진기지 방어 · 불법행위 감시 및 제재 | · 정규/비정규전 세력 침투 거부 · 통항관리 및 항만보호 · 해상테러 및 해적활동 방지 · 밀수 및 밀입국 색출 |
| 대내외 비군사 | 국가해양정책 지원 (권익보호와 해양개발) | · 자원보호 · 환경보전 · 해난구조 · 과학조사 | · 어로활동보호 · 오염방제 지원 · 해양협력기구(비군사) 참여 · 해양개발 협력 및 지원 |
| 대외전략 협조 및 억제 | 해양안보협력 (국위선양과 협상력 강화) | · 국가외교 지원 · 해군간 협력 · 국제평화유지 · 연합훈련/연습 | · 친선방문, 인사/정보 교류 · 해군방산협력 · PKO 참여 · 연합훈련 참여 |
| | 해양위협 억제 (해양통제와 군사력 투사) | · 특정해역 통제 · SLOC 보호 | · 전천후 초계 및 전략기지 운용 · 주요항로 보호 |

※ 출처 : 이근수, “신 해양법질서와 한국의 해양안보,”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1), p. 44.

제 4 절 능력분석 및 평가

1. 해군력의 분류

세계의 해군력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

36)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pp. 302-305.

해서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아직 없으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되고 있다.

먼저, 해군력을 전력구조에 따른 유형적으로 분류하려면 그 국가가 지정학적 환경에서 어떠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형의 해군함정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해군에게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해군력의 건설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가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군력의 역할과 임무를 이해하고 자국의 전략적 요구에 맞는 해군력 유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군력의 유형적 분류는 해상통제형 해군, 해상거부형 해군, 해상통제와 해상거부의 복합형 해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해군에 있어서는 함정유형에서 해상통제와 해상거부의 복합형이라 할 수 있는 수상전투함, 잠수함, 상륙함정, 고속정 등 다양한 함정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역할과 임무를 고려한 해군력의 능력에 따라 구분되어진다.³⁷⁾ <표 2-2> 참조.

그 밖의 해군력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들로는 첫째, 주력함정의 지리적인 작전거리를 기준으로한 작전능력이나 전투에서 발휘 가능한 종합 전력지수, 또는 총함정의 척수나 톤수별로 구분된 함정의 척수 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원·근해의 바다색깔의 상징성을 사용하며, 세 번째로는 해군 보유국의 국력수준이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³⁸⁾

이러한 기준들을 사용하여 해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는 대략 4-5 단계로 크게 분류하는 방법과 6-9 단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

위의 세 가지 분류기준에 의한 일반적인 해군력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리적 작전거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는 대략 연안해군(Coastal Navy), 지역적 해군(Regional Navy), 대양해군(Ocean-Going Navy), 세계적 해군(Global Navy)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37)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pp. 36-42.

38) 임인수, “대양해군의 개념 연구,”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1), p. 59.

<표 2-2> 해군의 유형적 분류

| 구 분 | 해상통제형 해군 | 해상거부형 해군 | 복합형 해군 |
|------|--|-------------------------------|--------------------------------|
| 함정유형 | 항모,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의 대형전투함-해상투사형 함정 | 잠수함, 유도탄정 고속정 중심-육상기지중심의 요새함대 | 수상전투함, 잠수함, 상륙함정, 고속정 등 복합적 구성 |
| 목 표 | 자국의 보호보다는 타국에 대한 해상통제-출항통제, 협수로통제, 광역통제 | 해안방어와 해상교통로 파괴, 단거리 기습공격 | 역할과 임무부여에 따라 구분 |
| 능 력 | 해상통제능력, 해상투사능력, 해상시위능력 | 해상거부능력 | 상동 |
| 수행방법 | 함대결전, 현존함대, 함대봉쇄 | 방어와 기습에 중점을 둔 지구전과 게릴라전 방식 | 상동 |
| 환경조건 | 해군강국으로서의 자연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 구비- 2차대전 당시 미국, 영국, 일본 | 불리한 자연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 구소련 해군 | 현대해군의 특징 |

※ 출처 :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pp. 35-42.

둘째, 원·근해 바다색깔의 상징성을 이용한 분류에는 갈해해군(Yellow or Brown Water Navy), 녹해해군(Green water Navy), 청해해군(Blue Water Navy) 등의 3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바다색깔을 육지와 인접한 수역과 근해, 원해로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화한 것이다.

셋째, 국가의 위상과 능력에 의한 분류에는 약소해군, 중급해군, 강대국해군, 초강대국해군 등 4단계로 구분된다.³⁹⁾ <표 2-3> 참조.

한편, 이와는 달리 해군력의 수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으며, 이들은 해군력의 크기를 작전능력에 의거하여 6단계에서 10단계까지 세부 분류하였다.

39) 상계서, pp. 59-61.

<표 2-3> 해군력의 일반적인 분류

| 기 준 | 해군의 분류 | 내 용 |
|--------------------|------------------------------|---|
| 지리적 작전거리 기준 | 연안해군 (Coastal Navy) | 자국 해안에 인접한 연안수역을 주 작전해역으로 하는 고속정 위주의 소규모 해군 |
| | 지역적 해군 (Regional Navy) | 자국의 연안수역은 물론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근해까지를 포함하는 지역해를 주요 활동해역으로 하는 해군 |
| | 대양해군 (Ocean-Going Navy) | 지역해를 벗어난 원해, 즉 대양에서 단독 해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함대를 구비한 해군 |
| | 세계적 해군 (Global Navy) | 전세계의 대양에 걸쳐 국익을 보호하고, 국력을 현시하며, 필요한 해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해군 |
| 바다색깔의 상징성 기준 | 갈해 해군 (Yellow Water Navy) | 육지에 인접한 바다색깔을 상징한 것으로 연안해군을 의미 |
| | 녹해 해군 (Green Water Navy) | 연안수역 외곽이면서도 육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접속수역의 바다색깔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역해군을 의미 |
| | 청해 해군 (Blue Water Navy) | 대양의 바다색깔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양해군을 의미 |
| 국가의 위상과 능력기준 | 약소 해군 | 저개발국 또는 약소국가의 해군으로 소규모의 연안해군을 의미 |
| | 중급 해군 | 상당수준의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중급국가의 해군으로 상당수준의 연안해군이나 중·소규모의 지역적 해군이 포함됨 |
| | 강대국 해군 | 국제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해군으로 상급수준의 지역적 해군 또는 대양해군을 포함 |
| | 초강대국 해군 | 전세계에 걸쳐서 국력현시 및 해양작전이 가능한 세계적 해군을 의미 |

※ 출처 : 임인수, “대양해군의 개념 연구,”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1), p. 60.

예를 들면, 커스레이는 해군력을 10단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는데, 연안경비

해군(coastal patrol), 연안전개 해군(coastal reach), 연안방어 해군(coastal defense), 전방전개(forward reach), 전방방어(forward defense), 지역초계(region patrol), 지역전개(region reach), 지역방어(region defense), 전세계적 초계(global patrol), 전세계적 전개(global reach) 등의 순으로 세분하였다.⁴⁰⁾

위와 같이 세계의 해군들은 분류목적 및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것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며 모든 방법이 장·단점을 공히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분석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세부적인 분류방법보다는 일반적인 해군력 분류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세 가지 기준에 의한 분류방법에서 대양해군과 지역적 해군을 나타내는데 있어 사용하는 용어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게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며,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들인 Ken booth 교수와 Geoffrey till 교수 등이 분류한 연안해군, 지역해군, 대양해군, 세계적해군 등의 가장 널리 상용되고 있는 4단계 분류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4단계 분류방법에서 사용되는 해군분류 용어들의 개념과 작전영역, 구비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해군분류 개념 종합

| 구 분 | 개 념 | 작 전 영 역 | 세 력 |
|------------------|--|---|--|
| 연 안 해 군 |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적용되는 경제수역을 주기적으로 초계하며, 동일해역내에서 요구되는 해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해군 | ·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이 미치는 경제수역을 포함한 약 200해리이내 해역 · 지상기지 항공기의 적극적인 공중지원 가능해역 | · 코르벳 이하의 소형함 중심 · 약 10척 이하의 호위함 보유 · 다수의 소형함 및 고속정 · 약 5척 수준의 잠수함 · 약 10척 이하의 소해함정 · 약 10척 이하의 상륙함정 · 약 5척 이하의 소형 지원함 · 약 3만명 이하의 병력수준 |

40) Harold J. Kearsley, *Maritime Power and Twenty First Century*, 이원우·강영진·김창국 共譯, 『해양력과 21세기』, p. 231.

| | | | |
|--------|--|--|--|
| 지역적 해군 | 연안해역을 포함한 지역해에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기적 초계 및 해양작전을 수행하며, 제한된 해양 통제 및 전력투사 능력을 구비하여 대주변국 도발억제 능력을 갖춘 해군 | · 연안해역을 포함한 그 외곽의 일정해역으로 연안에서 약 1,000해리 이내의 해역 | · 호위함과 구축함 중심 · 약 5척 이하의 대형함 보유 · 약 10-20척 수준의 호위함 및 구축함 · 약 10-20척 수준의 초계함 · 각 10척 수준의 중형잠수함, 소해함 및 상륙함 · 약 5척 수준의 중형지원함 · 약 5만명 미만의 병력수준 |
| 대양해군 | 대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 및 국가정책 지원 가능한 입체전력과 적정수준의 해양통제, 전력투사능력을 구비하여 상당기간 동안 대양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 | · 연안 및 지역해를 포함하여 그 외곽의 약 1,000해리 이상 떨어진 원해 · 사실상 세계의 대양 어느 곳에서나 일정 기간 동안 작전가능 | · 중형 및 대형함 중심 · 중·소형 항공모함 보유 (약 3-4만톤급 이하) · 약 10-15척 수준의 대형함 · 약 30척 수준의 호위·구축함 · 약 15-20척 수준의 중·대형 잠수함(또는 핵잠수함) · 각 10척 수준의 중·대형상륙함, 소해함 및 군수지원함 · 약 5만명 이상 수준의 병력 |
| 세계적 해군 | 범세계적인 대양사용에 관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주기적으로 전력을 현시하며, 전세계 어느 해양에서나 해양통제 및 대규모 전력투사 능력을 구비하여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지원 가능한 해군 | · 전세계의 어느 대양에서나 활동가능하며, 필요시 2곳 이상의 대양에서 동시에 대규모 작전 가능 | · 항공모함 중심작전 수행 · 약 5척 이상의 대형, 초대형 항공모함 · 약 30척 이상의 대형함 · 약 50척 이상의 호위·구축함 · 30척 이상의 전략핵잠수함 · 20척 이상의 상륙돌격함 · 20척 이상의 대형 군수지원함 · 약 20만명 이상 수준의 병력 |

※ 출처 : 임인수, “대양해군의 개념 연구,”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1), pp.76-77.

한 국가의 군사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크게 국가의지와 군사능력으로 구성된다. 진정한 군사력은 국가이익추구를 위한 최선의 전략수립과 그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구비했을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해양전략의 수단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전력구조에 따른 유형적 분류와 작전수행능력에 따른 일반적 해군력 분류를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적 해군분류에서는 세계적 해군이나 초강대국 해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미해군뿐이므로 이는 분석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양해군의 기준을 중심으로 해상자위대가 대양해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해군력 비교분석

가. 정태적 분석

(1) 단순수량 비교법(Been Counts)

이 방법은 비교당사국의 군사력을 그 구성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보유수량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다른 모든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의 적용에 앞서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기본적인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수량 방법은 군사력 비교평가에 있어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수행하는 데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첫째, 단순수량비교법은 병력 및 무기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며, 둘째, 모든 양적 요소를 포함하지도 못한다. 셋째,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조직적 역량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단순수량비교는 다양한 범주의 무기체계가 실제 전투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되는 실질적인 과정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군사력 비교평가가 불가능하다.⁴¹⁾

41)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 pp. 32-33.

특히, 이 방법은 해군력의 비교에 있어서 여러 유형의 함정 중에서 어느 범주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 또한 각 국마다 다른 함정유형의 분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정의 선령과 탑재 무기체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함정의 전투력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결국 이 방법은 해군력 비교 평가시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밖에는 전달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수 비교법(Weighted Static Counts)

지수비교법은 군사력의 정태적 비교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무기의 질적요소를 반영한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무기의 화력지수를 미육군 표준 기갑사단이나 표준 보병사단 화력과 비교하는 방법으로서, 한 범주내에서의 무기의 위력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지수인 무기효과지수(WEI : Weapon Effectiveness Index)와 무기범주가 부대단위 전력발휘에 있어서 갖게되는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무기의 부대가중치(WUV : Weighted Unit Value)에 따라 부대편제상의 모든 무기들의 화력지수를 미육군 표준 기갑사단의 화력지수와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⁴²⁾

지상군과는 달리 해군력의 비교시 사용되는 기준은 미해군 구축함의 표준전력이다. 해군력의 비교방법은 성분작전의 범주에 따라 함정들을 분류하고 분류된 함정들의 함정지수를 합산하여 비교하는 방법이다.

각 함정이 갖는 전력은 함정의 속력과 순항거리, 크기와 톤수 및 악천후 순항능력, 탑재된 무기체계, 탐지 및 통신전자장비, 피해통제능력 등을 비교하며, 이 중에서 무장의 비교는 표적탐지 및 파괴능력, 유효사정거리, 사격을 및 정확도, 대응수단의 저항도 등을 고려하여 비교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해군의 구형 구축함을 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상대적인 지수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무기체계의 질과 양을 고려하여 계량화한 것으로 단수수량비교보다는 객관적인 비교평가방법이 되겠으나, 무기에 대한 가중치 부여시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많고 시간별 전투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

42) 이영우, “군사력 비교평가 방법의 고찰,” 『국방논집』, 제 26호 (1994 여름), pp. 15-16.

다.⁴³⁾

나. 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은 위게임이나 전투모의 기법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전투를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평가하는 방법이다.

(1) 동원을 비교법(Build-Up Curve) : 다양한 시점에서 단순비교나 지수비교를 하는 것으로서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여 전력비율의 변화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다.

(2) 수학적방정식 모델(란체스터 방정식) : 수학적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방정식은 투입요소와 분쟁결과간의 수학적 관계를 표현한다.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 매우 복잡한 전투모델로서 다양한 수준의 전투현상을 묘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요소들이 고려된다.

(4) 위게임 (War Game Model) : 소규모 전투로부터 지역적인 분쟁에 이르기까지 수일간에 걸쳐서 게임을 실시하여 전투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전에 여러 가지 가정들을 정확하게 설정 입력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자위대의 능력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복잡한 동태적 방법보다는 정태적 방법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3. 해군력 평가

해군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측정하는데 있어 추상적인 측면이 내재한다. 따라서 해군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한 조작적 정의가 요구된다.

해군력의 평가는 단순히 전투함정의 수만을 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측정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모델스키」(George Modelski)는 가용한 측정변수는 전투함대내의 전투함정수, 해군예산, 해군력 건설예산, 병력수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⁴⁴⁾

43) 상계서, p. 19

44) George Modelski, *Sea Power in Global Politics, 1494-1993*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 28. 김주영 『동북아 국가간 해군력 비교분석과 군사적 안

하지만 위에서 말한 측정변수들을 비교측정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상군과는 달리 해군력에 있어서는 병력수 보다는 전투함정수가 중요시되어 전투함정의 수가 보다 유용한 평가요소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단순한 총량적인 함정의 수만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함정의 경우 유형별로 전투력에 있어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정의 유형별로 탑재하고 있는 무장의 성능을 고려하여 각 함정의 질적능력을 반영한 비교평가 방법이 중요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특정 전투함정의 숫자나 이들의 전투력(함포의 숫자나 이 함포가 쏘아 부을 수 있는 화력)같은 것을 통해 능력을 비교할 수 없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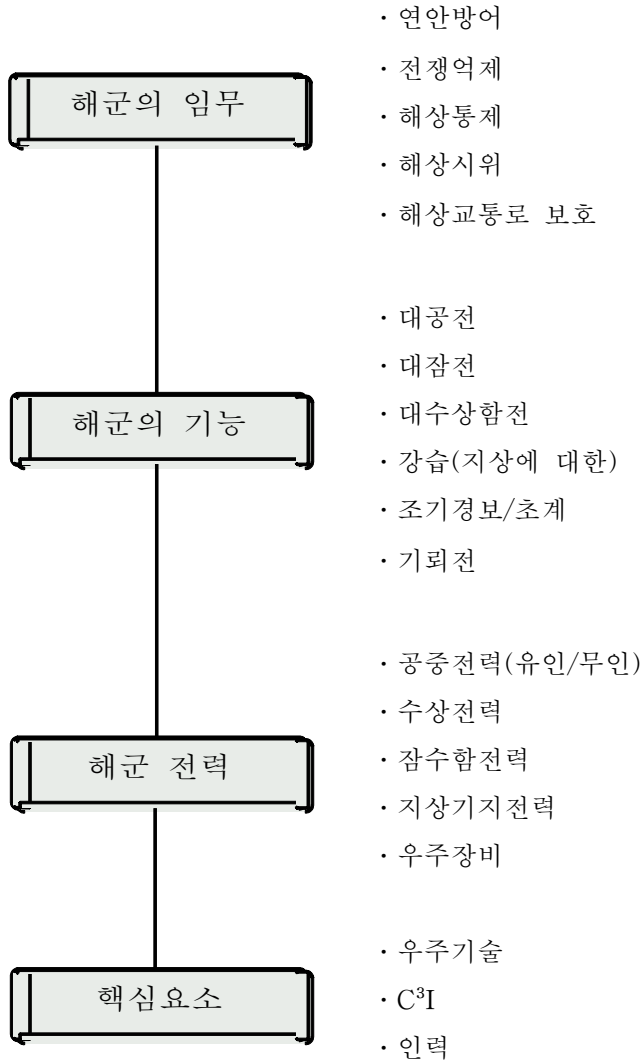
해군력 평가에 있어서 산업혁명이 증기기관과 철제전투함을, 그리고 핵미사일 혁명이 냉전시대 해군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해군의 효율성을 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단순한 전투함정의 전력평가뿐만 아니라 해군의 임무, 해군의 기능, 해군전력,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핵심요소 등을 연계한 해군력 평가방식이 요구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그림 2-2> 참조.⁴⁵⁾

정성 향상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원, 1998), p. 14에서 재인용.

45) Mike Lawrence Smith. et al., *The Changing Face of Maritime Power*, 이원우·김호찬·정현석 共譯, 『해양력의 변화국면』 (대전 : 해군대학, 2000), pp. 284-295.

<그림 2-2> 해군력 평가



※ 출처 : 이원우·김호찬·정현석 共譯, 『해양력의 변화국면』 (대전 : 해군대학, 2000), pp. 284-295.

제 5 절 분석의 틀

일본은 1945년 패망 이후, 미국의 안보우산아래서 국가발전에 주력하였으며, 한국전쟁의 기회를 토대로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냉전시대에는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서 고도의 경제적 성장과 재군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체계적인 방위력 증강계획을 통해 꾸준히 그 전력을 증강하여 오늘날 현대화된 일본의 방위력은 질적 수준 면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상대할 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1954년 7월에 발족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소요 방위력을 정비해 오다가 국제정세가 냉전적 상황으로 전환되면서 대소전략에 따른 미·일 역할분담의 이행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에 입각한 전략적 역할로서 Sea Lane 방위를 추구하게 되면서 군사적 역할의 증대와 더불어 전력의 두드러진 질적 증강을 하게 되었다.⁴⁶⁾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해상자위대는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와 함께 그 역할이 매우 증대되었는데, 특히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종래의 ‘일본 급변사태’ 및 ‘극동급변사태’에서 ‘일본 주변 급변사태’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의 1000해리 Sea Lane 방위범위보다 훨씬 확대된 영역에서 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안보환경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역할증대에 따라 일본은 해양전략을 수정하였고, 해상자위대 또한 독자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무기체계도 미국의 지원 없이 독자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지스함, 다목적 상륙강습함의 건조와 각종 주력함정의 현대화 등을 통해 전략수행능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은 미·일 안전보장체제의 틀 속

46) 배정호, “일본의 해군력 현황과 분석,” 이춘균 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1998), p. 135.

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른 지역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명분에 따른 것이며, 여전히 ‘전수방위’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을 경험한 바 있는 아시아 주변 국가들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적극 반대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냉전후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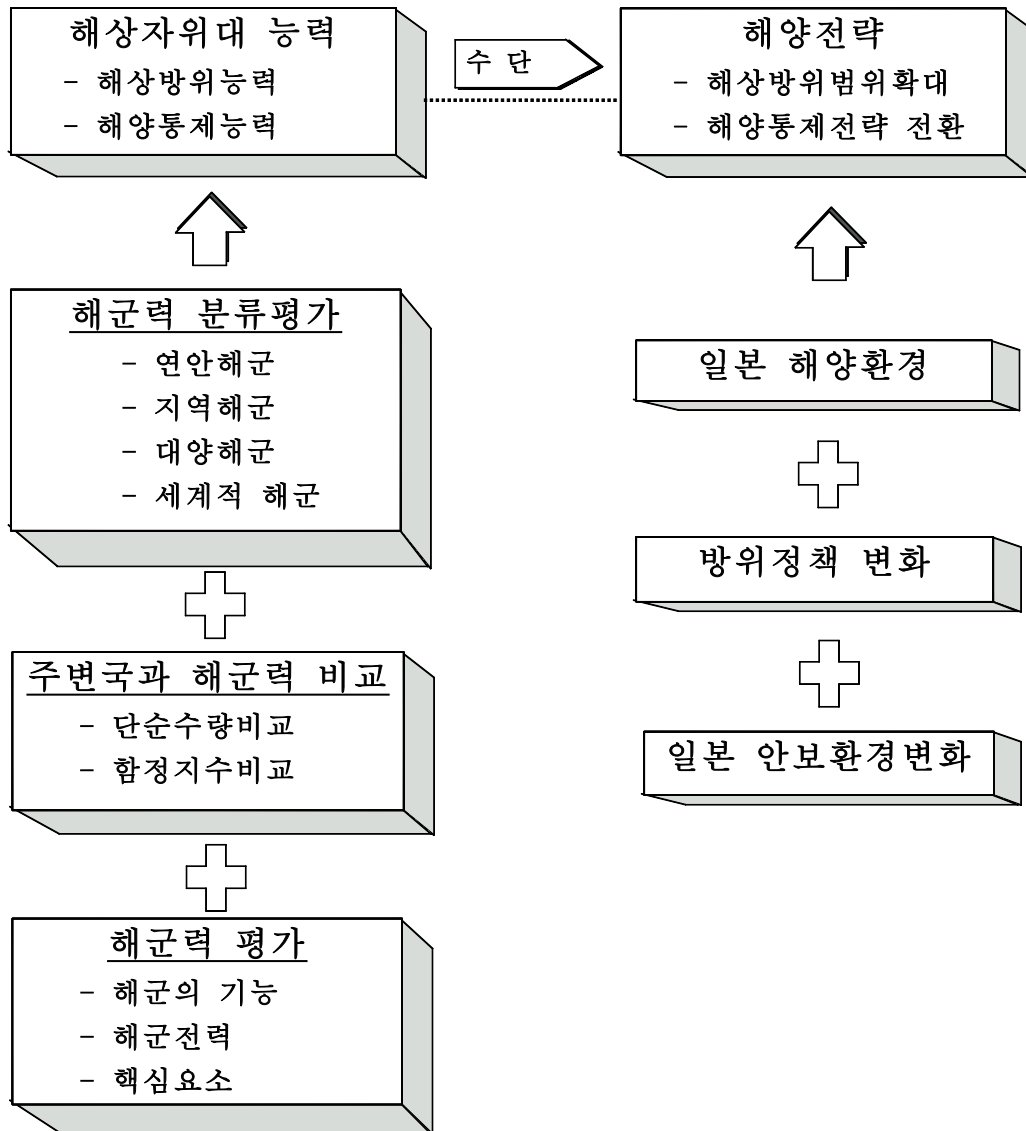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영향으로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왔으나,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해상자위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탈냉전후 변화된 안보환경과 방위정책에 따른 일본 해양전략의 변화와 전략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탈냉전후 변화된 일본의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그리고 해양환경으로부터 일본의 해양전략을 도출하고, 해군력 평가와 해군력 비교분석, 그리고 해군력 분류평가를 통하여 전략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분석의 틀은 <그림 2-3>와 같다.

<그림 2-3> 분석을 위한 틀



제 3 장 일본 해양전략 분석

제 1 절 일본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변화

1. 일본 안보환경 변화

1990년 초반 이후 일본의 정치권 내에서는 일본의 미래 국가안보 기조 및 정책에 관하여 점점 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논의된 상호 연관된 네 가지 사항은 첫째, 소련 붕괴후 미·일 안보관계의 정치 전략적 논리, 둘째, 미·일 안보구조 틀 속에서 잠재적인 적응과 관련된 운용적인 정책지침, 셋째, 일본의 방위역할 및 책임에 관한 장기간 존재해 왔던 제약 조건들에 관한 수정 가능성(특히, 주요 국제위기시 집단자위기능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일본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넷째, 일본의 미래 안보소요에 적합한 기획, 계획 및 획득 전략 등이다.⁴⁷⁾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으로써 지난 50여 년 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했다. 그러나 50년 전 패전시와는 국력이나 국제적인 위상면에서 판이하게 달라진 일본의 입장에서 1990년대 이후의 국제적 상황은 일본에게 안보측면에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안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제안보적 상황이 동북아 지역에서 조성되고, 어떠한 상황들이 일본의 안보위협요소로서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일본이 어떠한 안보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일 것이다.

일본은 냉전시대 이후 소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군사위협이 거의 소멸되자 주변국 또는 지역적으로 잠재적인 위협에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했다.⁴⁸⁾

이러한 내용은 일본이 안보관련 주요 정책문서의 전략환경 평가에서 평가한 안

47) 해군본부, 『중국·일본 해군력과 한국안보』 (대전 : 해군본부, 1999), p. 20.

48) 장문석, 『현대일본군사론』 (서울 : 국방대학원, 1997), p. 276.

보위협을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난다. 첫째로, 일본의 평시 방위력 정비수준을 측정
한 1995년의 「신방위계획의 대강」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대규모 무력분쟁의 가
능성은 적어졌으나, 영토·종교·민족문제 등의 분쟁요인과 대량파괴무기의 위협
이 증대되고 있으며, 일본 주변지역에서는 극동 러시아군의 양적 삭감이 이루어지
고 있는 등, 전반적인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의 긴장 등 불확
실한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⁹⁾

둘째로, 1996년의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서는 지역정세를 냉전종식 이후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으며, 이 지역국가간에도 정치와
안전보장에 관한 대화가 확대되고 민주주의의 제 원칙의 존중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활력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동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으로 한반도의 긴장, 동지역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의 집중, 미해결된
영토문제, 잠재적인 지역분쟁,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의 확산 등을 지적하고 있
다.⁵⁰⁾

셋째로, 일본의 2000년 「방위백서」에서는 동아시아에는 극동 러시아군의 감축,
한·소수교, 한·중수교,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및 중·러간 관계개선 등 화해협
력의 변화도 있으나, 여전히 두드러진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군사력 확충과 현대화
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 한반도의 긴장 계속, 일본의 북방영토, 독도, 남사군도 등
미해결 영토분쟁문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⁵¹⁾

이와 같이 일본은 안보관련 정책 및 선언 등에서 안보정세를 세계적으로는 긍정
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동아시아의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
한 요인들이 잔존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안보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안보대응과 관련한 동아시아지
역에서의 안보위협을 기본적으로 군사동맹국가인 미국을 제외하고 주변국가인 남

49) 권오현, 『일본 신방위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pp. 34-35.

50) 국방정보본부, 『일본의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0), pp. 318-319.

51) 상계서, p. 42.

한과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러시아 및 중국, 나아가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까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⁵²⁾

일본이 주변국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안보위협은 북한체제의 위기, 중국·대만의 갈등, 러시아의 민족주의화,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확산, 미국의 동지역에서의 후퇴 등으로 볼 수 있다.⁵³⁾

또한 일각에서는 향후 동아시아의 안정에 불신감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써 경제성장과 군사력의 근대화로 자신을 가진 중국, 통일된 강력한 한반도, 국가주의적인 일본의 부활, 러시아의 혼란 또는 구소련제국의 재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의 쇠퇴 등을 들고 있다.⁵⁴⁾

일본이 동아시아로부터 인식하고 있는 위협에 대해 분야별로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일본에 대한 정치분야 안보위협은 첫째, 천황중심의 입헌군주제인 국가체제에 대한 위협여부, 둘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인 일본의 국가이념에 대한 위협여부, 셋째, 역내국가들간 갈등을 폭력적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우호협력관계에 대한 위협여부, 넷째,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지역패권경쟁 등으로 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한 군사위협은 첫째,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 둘째, 핵무기에 의한 위협, 셋째, 원인제공 차원에서 영토분쟁에 의해 야기될 위협, 넷째, 해상교통로 위협 등으로 볼 수 있다.

52) 일본의 입장에서 안보위협과 관련하여 미국도 대상국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일본은 1945년 패망하고 미군이 진주한 이후 미국과 동맹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국제적으로 패권적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려고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대 초까지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충분히 포용할 수 있다고 보며, 따라서 미국과 일본은 상호간 적국으로 변환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협요인에서 제외하였다.

53) 세종연구소 주최, “한·일 지도자 FORUM - 세계화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일 협력” (2000. 10. 13).

54)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전보장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핵무기 역할의 재검토(上),” 『국제문제』, (1999. 12), p. 95.

재래식 무기에 의한 위협은 현재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도 현재 중국의 군사력은 양적으로는 막강하나 실제능력 면에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일본의 군사력이 경제력 및 과학기술력을 배경으로 질적으로는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냉전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정세 속에서 핵무기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및 중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일본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북한으로부터의 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핵무기 개발의혹이 또 다른 핵위협을 주고 있다.⁵⁵⁾

영토분쟁 차원에서의 군사위협은 일본과 직접 관련되는 북방 4개도, 센카쿠제도 및 독도 문제가 있으며, 간접적으로 중국·대만 문제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이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일본 해상교통로 위협은 일본이 국가번영의 기초를 대외적 통상활동에 두는 데서 오는 위협으로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과 관련한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간의 군사분쟁, 중국과 대만과의 군사분쟁 및 센카쿠제도 영유권과 관련한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본의 동남아시아 교통로는 위협을 받게 된다.

군사분야 위협을 종합적으로 볼 때, 냉전 후에 세계적 평화분위기에 상관없이 아·태지역 국가들이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군사력 증강, 특히 해·공군력 증강 및 군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며, 핵무기 분야는 강대국들간 균형과 억제에 의하여 잘 통제되고 있으나, 다만 일·중 관계의 상호 불신감과 역내의 패권국 경쟁 및 지나친 국가주의가 결합하여 불필요한 군비경

55)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사전 통고 없이 일본열도를 횡단하는 다단계 탄도미사일(인공위성)을 발사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9월 1일 진행 중이던 북한과의 국교 교섭 재개를 동결, 식량지원 및 KEDO 사업에 대한 협력을 보류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 향상을 위한 정찰위성 보유를 검토하였으며, 9월 2일에는 나고야-평양간 전세비행편을 취소하고 미사일 발사문제를 유엔안보리 비공식 협의체에 제출하였다. 이어서 미국과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백학순, “북미·북일 관계개선 문제,” 『국가전략』, 1999년 가을·겨울호 (성남 : 세종연구소, 1999), p. 131.

쟁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2. 일본 방위정책 변화

가. 방위정책의 기본 및 원칙

일본의 방위정책은 1957년 5월의 국방회의(1986년 7월 안전보장회의로 개칭)와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방의 기본방침’의 내용을 보면 첫째, 국제연합의 활동을 지지하고, 국제간의 협조를 중시하며, 세계평화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민생을 안정시키고, 애국심을 고양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을 확립한다. 셋째, 국력과 국제정세에 맞는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도의 효율적인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 넷째,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해서는 장래 국제연합이 유효하게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때까지는 미국과의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여 이에 대처한다.⁵⁶⁾ 즉 국제협조 등 평화노력의 추진과 민생안정 등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 효율적인 방위력의 점진적인 정비와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조로 하는 일본의 방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은 방위에 대한 기본정책으로 전수방위, 비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문민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여왔다.⁵⁷⁾

일본은 이러한 기조 하에서 냉전 기간동안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라는 사실상의 군사력과 미·일 군사동맹을 지주로 한 방위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점에서 구 소련의 해체로 특징지어지는 냉전의 종결은 일본의 안보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구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구 소련을 겨냥한 공동방위에 초점을 두어 왔던 미·일 안보체제의 틀이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와 미·일 관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더욱이 구 소련의 소멸 이후 일본의 군사력은 사실상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

56)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p. 317.

57) 상계서, p. 89.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냉전직후 지난 50년 동안 지켜온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있다.

장래 일본의 방위정책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과거 일본 군국주의로의 회귀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들어 장래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신방위계획 대강」, 「미·일신안보공동선언」, 「미·일신방위협력지침」 등이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은 일본의 의도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로부터 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방향을 다음의 몇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냉전 이후의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방위계획의 대강을 수정한다. 둘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그 틀 하에서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모색한다. 셋째, 냉전 이후의 전략환경에 부응하여 군사력의 합리화·효율화를 꾀하고 장거리 투사능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 군사력의 요소를 향상시킨다. 넷째, 유사법제의 도입, 집단자위권의 인정 등 보통국가에 걸맞는 군사체제를 정비한다. 다섯째, PKO 등 국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최근 일본의 방위정책을 논의함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익에 의거하여 제약 없이 국외에서 자위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외군사활동 영역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헌법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일 동맹의 영역확대,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집단자위권의 인정 논의 등으로 자위대의 일본영역 밖에서의 활동을 기정 사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이 유엔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 평화유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엔헌장이 각국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과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⁸⁾

나. 신 방위계획 대강

5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 108.

일본은 현재 패전과 국민들의 전쟁 알레르기로 인한 방위태세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신의 안보역할을 일본방위에 국한하는 체제로부터 벗어나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력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을 계기로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법제 추진, 집단자위권을 둘러싼 헌법 개정논의 등 법·제도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은 1995년 「신방위계획대강」이 책정될 당시와 비교하여 안보환경이 변화하였다는 판단 하에 2005년까지 방위계획대강의 수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방위정책의 지침이 되어온 「방위계획대강」(1976년 채택)은 냉전 붕괴와 구 소련의 해체로 인해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방위계획대강은 구 소련의 ‘한정적 소규모 침공’을 상정하여 이에 독자적 힘으로 대처할 수준의 방위력을 구축하고 그 이상의 위협에는 미국과 협력하여 대처한다는 것으로, 결국 구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미·일이 공동 대응한다는 방위구상이다. 그러나 구 소련 위협의 소멸과 일본의 자위능력 향상은 이러한 방위지침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1995년 11월 무라야마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안전보장회의는 신 방위계획대강을 확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정세 판단

일본은 냉전 종결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종교, 영토문제, 민족주의 등으로 복잡·다양한 지역분쟁의 발생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위협 등 새로운 위협요소가 증대하고 있어 국제정세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일본 주변지역 정세도 여전히 핵 전력을 포함한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지역 각국이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군사력의 증대 및 근대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도 계속되는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어 세계 및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미국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미·일 안보체제

일본의 안전 확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며, 미·일 안보체제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해서 공동연구·공동훈련·공동연습·후방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강화를 통해 운영면에 있어서의 효과적 협력태세 구축, 장비기술면에서의 상호교류 충실, 주일미군의 주둔을 지원하는 각종시책 실시에 노력한다.

(3) 방위력 구축 방향

방위력의 기능 및 규모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현 방위계획대강의 기본인 ‘기본적 방위력’ 구상을 유지하는 한편, 냉전종결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사태, 대규모재해, 무차별 테러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국제평화 협력업무, 안보대화, 방위교류, 군비통제, 등 보다 안정된 안전보장 관계 구축에 공헌할 수 있는 방위력을 정비한다. 이와 관련해 자위대의 정원 및 장비축소와 함께 자위대의 편성 및 부대배치를 전환하며 질적인 향상을 꾀한다. 특히 자위대의 배치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균형을 취한 형태로 부대배치를 전환하며, 자위대의 기동력 강화, 특히 육상자위대의 1개 전술단위부대 및 해상자위대의 1개 호위함대를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부대화하고 예비 자위관 확보 등으로 방위력의 탄력성을 강화한다.

(4) 한반도 유사시 등 지역에서 일본의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유엔의 행동을 적절히 지원하면서 미일 안보체제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여 사태의 확대 방지 및 조기 수습에 기여한다.⁵⁹⁾

신방위계획대강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자위대의 배치를 북해도 등 북방집중배치로부터 지역 균등배치로 전환할 것임을 밝힌 것인데, 이는 일본의 방위태세가 북방중시로부터 중국, 한반도 등의 사태에 대비하는 서방경계강화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자위대의 기동화 및 정보능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 방위청은 2001년 8월 극동 러시아군의 전력이 대폭 감소한 반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59)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pp. 324-331.

되는 등 주변 안보상황이 변화했다는 판단 하에 이에 대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2005년까지 중장기적인 방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방위계획대강도 수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되는 방위계획대강은 첫째, 북해도 등 북방 중시의 부대배치를 변경하여 주력부대를 큐슈 등에 배치하여 남방방어를 중시하는 부대배치로 전환할 것이며, 부대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수송능력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수송선과 수송기 등의 증강이 예상된다. 둘째,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전력증강과 관련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특히, 2002년부터 건조하게 되는 이지스함 2척은 전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셋째, 테러 및 재해를 포함한 유사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위대 조직 및 장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맞추어 군의 효율적이고 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C⁴ I 체계를 강화할 것이다.⁶⁰⁾

탈냉전후 발표된 일본의 정책들을 통해 볼 때,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수방위의 수동적 방위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대외지향적인 방위정책으로 변화하였으며, PKO 활동 등을 통한 대외 군사활동범위 및 역할확대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 참조. 방위정책의 주요변화특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정책목표의 확대이다. 일본은 냉전기 자국의 독립과 평화, 국가방위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공헌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자국의 방위에만 그치지 않고 군사적 역할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유사법제 도입, 집단자위권 인정 등의 군사체제정비, PKO 등 국제협력에 참가할 수 있는 체제구축, 변화된 전략환경에 부합하는 방위력의 구축 등 탈냉전후 변화된 일본 방위정책의 특징들이 모두 방위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자위대 성격과 지위의 변화이다.

일본의 안보에 주축이 되어 온 미·일 안보조약 상에는 제5조에서 일본의 영토 내에 국한시켜 “어느 일방이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경우 자국의 헌법상 규정

6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p. 113.

과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방위한다고 규정”지어 개별적 자위권은 인정하나, 헌법 제9조의 해석에 의해 집단자위권의 행사는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9조에 대한 일본정부의 해석은 국방상 필요 최소한의 개별적 자위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유할 수 있는 자위력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만 하고, 상대국 국토의 파괴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공격무기 즉, ICBM, 장거리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등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 방위정책 변화

| 구 분 | 신방위계획대강 | 미·일신안보공동선언 | 미·일신방위협력지침 |
|---|--|--|--|
| 미·일동맹 재정의 및 확대 | · 미·일동맹 중요성 재인식 · 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전략적 역할 증대 | · 동맹관계 중요성 재인식 · 방위협력 범위확대 -필리핀이북 극동에서 아·태 전역으로 확대 | · 협력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 -ACSA, 자위대법 개정 · 일본본토 방위중점에 서 주변지역사태 대응으로 전환 |
| 자위대 활동영역 및 역할 확대 | · 방위력 역할확대 -각종사태에 대한 대응 -안정된 환경구축기여 | · 지구적 규모의 일본역할확대 | · 방위력 역할확대 - 일본주변사태대응 |
| PKO 관련 | · 자위대의 적극적인 PKO 참여의지 반영 | · PKO 활동시 ACSA 적용 | · PKO 활동 및 국제구호활동시 미·일상호협력 강화 |
| * 전수방위의 수동적 방위정책에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방위정책으로 변화 * PKO 활동 등을 통한 대외 군사활동범위 및 역할확대 추진 | | | |

※ 출처 :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0), pp. 91-168. 요약 정리한 것임.

그러나 헌법 제9조에 명시된 자위권의 해석에 대한 일본정부의 견해 중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범위’와 ‘집단적 자위권 금지’ 조항은 1991년 걸프전에서의 소해정 파견과 PKO 참가에 의한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으로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 금지 문제는 1980년대 ‘SEA LANE 방위’

와 ‘SDI(전략방위구상)계획’ 참가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있던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걸프전에서의 다국적군에 대한 협력과 자위대의 PKO 참가로 사실상 집단자위권 금지조항 및 전수방위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은 일본 주변지역에서 사태발생시 미국과의 공동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1996년 6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수정이 협의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공동군사작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이 명시된 방위원칙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거나 변경을 통해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과거와 같은 일방적 미국의존형 방위체제의 탈피를 모색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해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경제력에 걸맞는 방위력의 분담요구’도 작용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은 자위대가 지니고 있는 ‘군대적’ 성격과 의미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자위대가 ‘군대’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하고 나섰다. 1990년까지의 「방위백서」는 일본이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교분야의 노력과 함께 만일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실력을 보유해야 하고 방위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자위대를 수비적인 ‘실력’ 또는 ‘방위력’이라고 표현하여 ‘군사력’이 아니라는 의미를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1991년부터의 방위백서는 자위대가 군사력임을 명확히 시사하고, 외교력과 함께 군사력을 확보하고 이를 평소에 강화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위백서에 의하면 ‘군사력’은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침략이 나타났을 때 이를 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군사력의 기능은 그 어떠한 종류의 수단이나 힘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군사력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것”으로서 국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력을 보지하여 자국의 안전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자위대가 ‘군대’인 것을 물론이고, ‘전력 없는 군대’가 아닌 세계 수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의 해외파병까

지도 가능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셋째, 방위력 정비의 특징이다.

1970년대 말 국제환경이 냉전시 상황으로 전환되자 1980년대 일본의 방위력 정비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응하여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해·공군력의 질적 증강에 역점을 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먼저 해상교통로 방위라는 일본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섬나라라고 하는 전략 지정학적 견지에서 일본 본토에 대한 침략이 바다와 하늘을 경유하여 감행된다는 판단에 따라 적 본토에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해상에서 격퇴한다는 전략적 목적에서 제공권·제해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상방공체계를 지향하여 해·공군력의 증강에 역점을 두는 일본의 방위력 정비는 정보·지휘·통신능력의 충실에 중점을 둔 후방지원체제의 강화와 함께 1990년대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력 정비의 방향성은 21세기를 향하여 장래 전개될 일본 군사전략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무기의 하이테크와 더불어 첨단기술에 의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C⁴I를 위한 대형프로젝트의 추진, 최신 이지스 구축함의 건조, 공중조기경보관제기(AWACS)의 구입, FSX의 미·일 공동개발 등은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꾀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방위력 정비의 추진결과 조기경보기, 이지스 구축함 등의 확보로 상당한 질적 증강을 이룬 후에도 계속된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조기경보관제기 및 공중급유기 확보, 이지스 구축함의 등의 추가확보와 대형상륙함 및 지원함 등을 확보하게 되어 일본의 신방위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같은 군사력의 증강은 21세기를 향한 일본의 군사전략이 조기경계 및 전방대처를 위하여 전략지정학적 차원에서 해상방공체제의 강화와 더불어 미사일 방공체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울러 미·일안전보장체제의 확대·발전에 따른 일본의 역할증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었

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법적·제도적 정비이다.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체제가 광역화됨에 따라 확대된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도적 정비의 일환으로 먼저 1997년 1월 20일 종합정보기관인 「정보본부」를 발족시켰다.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통합막료회의 내에 설치된 「정보본부(직원수 약 1천 6백명)」는 방위청의 내국과 통합막료회의, 육·해·공 자위대의 정보부문 등 기존의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시킨 기관이다. 「정보본부」의 설치에 이어 일본정부는 포괄적인 안전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차원에서 방위청의 방위성격상과 ‘일본판 국가안보회의(NSC)’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보정책에 관련된 ‘총리 보좌제’를 강화하면서 총리에 의한 문민통제를 충실화하는 동시에 안보정책에 종합적인 조정기능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위대의 ‘정치·군사적’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법안정비로서 지금까지 연구자체를 금기시해 왔던 유사입법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사법제의 정비는 한반도나 극동유사시에 일본정부 및 자위대가 미군의 작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토지, 물자소송, 인력동원 등의 법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데, 1996년 총선에서 자민당과 신진당은 유사법제의 조속한 정비를 주장하였고, 민주당 등도 유사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특히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 2차 중간보고안이 발표된 직후, 1997년 7월에 발간된 「97년도 방위백서」에서는 일본 방위백서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주변국가에 대한 자위대의 작전지침과 관련되는 긴급대응책을 언급하였고, 아울러 일본 주변유사에 대비한 유사법제의 정비를 서둘 것을 주장하였다. 미·일간의 「신방위협력지침」이 실제상황에서 시행되려면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 해상보안청법, 항만법, 항공법 등 최소한 20여개 이상의 법령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만 하는데, 유사입법제가 정비되면, 뒤이어 집단자위권의 허용 및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일본 해양전략 분석

1. 일본 해양환경

한국과 일본이 속해있는 아·태지역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지역은 해양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나 지정학·전략적으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 안보논의에서 해양과 해양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최근 아·태지역의 해양문제는 역내의 점진적인 에너지 부족에 따른 해양자원 중요성의 증대와 해양자원 보호 및 영유권 분쟁 등에 대비한 해군력 증강현상과 함께 각 요인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지역안보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 3각 관계」(a deadly triangle relationship)를 형성하고 있다.⁶¹⁾ 특히 범세계적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높은 해양문제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아·태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 첨예한 갈등의 장이 될 수 있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에게 물자의 수송과 직접 관련된 해협통과의 위협요인 제거와 통항 및 해상교통로 안전의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한 국가의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경제·자원안보, 그리고 환경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해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해양은 최근 해적행위의 증가, 마약이동 및 불법난민의 수송로 등으로 이용됨으로써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근원지가 되고 있다.⁶²⁾ 특히 해협통과에 관한 규제부과는 관련 연안국들이 해상사고 및 오염방지를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해적행위는 아시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사정 약화와 일부 국가의 정세불안정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도서 영유권 분쟁 및 해양경계 마찰 등도 특별한 조치와 노력이 취해지지 않는 한 계속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61) 이서항, 『아·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9), p. 1.

62) 상계서, p. 6.

한마디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전략적 환경에서 해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되어 이 지역의 정치·경제·전략적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갖는 해양에 대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이익(national maritime interests)은 상당부분 일치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상충되기도 하며, 각국의 해양관련 이익이 적절히 조정·관리되지 않을 경우 상호 마찰과 갈등을 유발하여 지역안보의 위협 내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해양이익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역내 해양문제의 주요 동향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⁶³⁾

첫째, 도서영유권·해양경계분쟁의 미해결이다.

동북아시아는 역내 대부분의 국가가 해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분쟁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첨예하며 1994년 10월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이후에도 이 같은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⁶⁴⁾ 동아시아지역은 국가 해양관할권의 기능별 단위인 영해·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EEZ) 등과 관련하여 약 70여 개의 해양경계획정이 필요하나, 현재 이들 중 10여 개만이 해결되었으며, 나머지는 미해결 상태로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⁶⁵⁾ 대표적 도서 영유권분쟁지역인 북방 4개 도서⁶⁶⁾, 남중국해의 남사군도⁶⁷⁾ 및

63) 이서항, “동북아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 『군사논단』, 제29호 (2001 겨울) : pp. 45-46.

64) 유엔해양법 협약은 2000년 말 현재 123개국에 비준하였으며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비준국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등 모두 22개국에 이르나 해양의 이용·보존 등에 관해 협약의 규정자체가 모호한 점이 많으며 역사적 만(bay) 및 직선기선 등의 분야에 있어 각국의 해석과 실제적 적용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5) Sam Bateman, *Economic Growth, Marine Resources and Naval Arms in East-A Deadly Triangle?*, 『Marine Policy』 22(No. 4-5, 1998), p. 299.

66) 일본의 북방 4개 도서는 하보마이群島, 시코탄, 에토로후, 쿠나시리를 말하는 것으로 동도서들은 1855 ‘러·일화친조약’ 이후 일본영토였다가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연합국의 일원인 구소련이 점령하였다. 러시아의 입장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의거 쿠릴열도는 러시아령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쿠릴열도와는 별개인 하보마이群島와 시코탄 섬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본측은 4개 섬 모두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배진수, “동북아시아에서 해양영토분쟁의 배경과 현황,” 이춘근 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

서사군도 등을 일컫는 스프래틀리(spratly) 제도와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⁶⁸⁾ 등을 포함한 이들 영유권분쟁은 해양경계획정 및 해양자원 분쟁과 맞물려 그 성격상 지역안정을 해치는 폭발성을 지닌 위협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은 해양경계획정이 아니며, 실제적인 경계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EEZ제도 도입에 따른 어업질서만 재편한 과도적 조치일 뿐이다.

둘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해양자원에의 관심 증대이다.

역내의 도서영유권·해양경계 분쟁은 대부분 해저석유 및 천연가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주목적이 있으며, 현재 중국·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국가 대부분이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있어 앞으로 해양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기존자원의 고갈에 따른 해양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증대는 역으로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분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및 중국의 해저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감축은 한국·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의 중동지역 석유의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수송할 해운의 중요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셋째, EEZ보호·관리를 위한 해군력의 증강이다.

최근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내 각 국가들은 이 수역내의 해양자원을 보호·관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해군력을

력 증강현황』(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 39-45.

67) 동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1973년도에 베트남과 필리핀이 시작한 대륙붕에서의 석유탐사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사군도는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부르나이 등이 전체도서 또는 일부도서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김영구, “중국 주변 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의 배경 및 현황,” 이춘근 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pp. 73-77.

68) 조선일보, 1996. 9. 11, p. 7: 일본측에서는 조어도 방어를 위하여 조어도에 1개 증강중대 배치 및 기타 섬에 SAM 배치, 宮古列島(조어도 남방 150km)에 1개 증강대대, 수송헬기 및 공격헬기 배치, 오키나와 기지에 F-15 및 F-2 배치, 동해역에 호위함대 배치 등을 주장하였다.

증강시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지역 해군력 증강추세의 특징은 미국·러시아 등 과거 초강대국 해양세력은 해군력을 대폭 축소한 반면, 중국·일본 등 역내 주요세력뿐만 아니라 한국·대만·아세안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해군력 구축을 위해 점차 예산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⁶⁹⁾ 특히 중국은 대양해군을 모색하고 있으며, 태국은 1997년 8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경항공모함을 진수시킴으로써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에 의한 해군력 증강의 상징이 되고있다.

남중국해·동중국해 등 비교적 제한된 해역에 역내 국가들의 증강된 해군력이 배치될 경우, 국가간 오해와 오판에서 기인한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며, 영유권 분쟁도서의 경비 및 EEZ 순찰 등 해군의 활동반경 확대는 상호 충돌의 개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국가간 전쟁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첫 충성은 해양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넷째, 해상교통로(SLOC) 안전확보 문제이다.⁷⁰⁾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수출지향정책을 추구함으로써 197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과 개방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국가 등에게 있어서 경제성장 여부는 해상운송에 의존하거나 대외무역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부족에 따른 중동지역 석유의존도 증대는 석유 수송시 이용할 해로안전의 중요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는 해운 및 해상교통에 핵심적인 길목역할을 하는 국제해협이 여러 군데 존재하며 이러한 국제해협에서의 통항 문제는 해양 이용국들에게는 사활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섯째,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협력 필요성의 대두이다.

69) IISS, *Southeast Asia's Naval Build-up*, 『Strategy Comments』 3(July 1997), pp. 1-2.

70) 김달중, “동남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 : 쟁점 및 전망,” 해군본부 편, 『21세기와 한국의 해양안보』 (서울 : 해군본부, 1994), pp. 33-34.

동아시아지역의 주요해역은 주로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민감한 해양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들 해역은 주요 해상운송로가 집중되어 있으며, 연안지역의 인구밀도와 산업집중도가 높아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반폐쇄해의 해양환경은 연안국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효율적인 보전·보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아시아지역에서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협력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전략적 불확실성과 역내 대부분 국가들의 높은 해양문제 관심도와 이해관계가 맞물릴 경우 동북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 해양은 역내 국가들간 첨예한 갈등의 장(場)이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일본 해양전략 분석

다른 어느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보다도 뚜렷하게 일본은 섬으로 구성된 해양국가로서 일본의 번영은 해상을 통한 수출입 물자·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방위청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생존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시 대응능력을 유지하고 동맹국으로부터 병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특성은 일본의 해양전략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자위대로 하여금 그들의 주된 임무를 “해상을 통한 침략으로부터 일본 영토를 방위하고 일본을 둘러싼 해양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시키고 있다.⁷¹⁾ 일본의 해상방위를 위한 해양전략은 1978년 11월 28일 미·일간에 공식 체결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해양전략 구상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및 미해군은 일본 주변해역 방위를 위한 해상작전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주변지역방위를 위한 주요 항만 및 해협방위, 상선보호

71) JDA, *Defense of Japan* (Tokyo : Japanese Defense Agency, 1997), pp. 106-108. 이 서항, “일본의 해양전략과 미·일 동맹,” 해양전략연구소 編,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pp. 91-92에서 재인용.

를 위한 작전 등을 실시하며, 미해군은 해상자위대 작전을 지원하고 침공전력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되어있다.⁷²⁾

또한 1981년 일본 스즈끼 수상이 발표한 「일본의 1000해리 방위구상」에 따라 1986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주변해역의 방위협력 및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능력 향상을 추진하였다.⁷³⁾

그리고 탈냉전후에는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하듯, 보다 안정된 안보환경 구축에의 기여와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의 대처를 공식적으로 추가하였다.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는 일본 해양전략의 기조는 첫째, 해상교통로 방위를 중심으로 하면서, 둘째, 러시아 및 중국 등 적대국의 군사력 확장 견제와 봉쇄, 셋째, 평화시 외교정책 수단으로의 활용 등과 같은 해군력의 또 다른 주요 임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늘날 일본의 해상교통로 안전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특정국의 군사력 동원 또는 국가간의 무력충돌에 따른 해상교통로 위협과 둘째, 해상교통로의 전략적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관련 연안국의 해양관할권 등에 의한 통항제한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적행위, 마약운반, 불법난민의 해상수송 등 새로운 해상범죄 활동에 의한 해상교통로 안전위협이다. 이러한 해상교통로 위협에 대처해서 2000년 4월 일본은 해상보안청 소속의 대형 순시선 수척을 말라카 해협 및 인도네시아 수역에 상시적으로 파견할 의도가 있음을 표명한 바 있다.

해상교통로의 방위가 해상자위대의 임무에 포함되자 그 방위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본내에서 일어났는데, 1983년 『일본 방위백서』는 그 지리적 범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은 종래부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주변 수백해리 항로대를 설정하여 대략 1,000해리 정도 해역에서 해상교통로 보호를 목적으로 해상방위력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헌법상 일본이 자위를 위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72) 국방정보본부, 『일본의 방위백서』, p. 216.

73) 배정호, “일본의 해군력 현황과 분석,” p. 137.

지리적 범위는 반드시 일본의 영토나 영해, 영공에 한하지 않고 공해내지 그 상공에도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서술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상방위력의 정비를 앞서 말한 목표 하에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는 능력상 자연히 한도가 있다고 생각되며, 1,000해리 이원의 해상교통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미군에 의존한다.”⁷⁴⁾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도 「전수방위」의 범위를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능력을 갖춘다면 방위범위를 더 확장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는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일본은 선단에 의한 직접호위방식과 항로대방위방식을 구상했다. 직접호위방식은 50-60척의 선단을 편성하여 6-8척의 호위함으로 보호하며 기지항공기도 행동반경 내에서 협력하는 방식이다. 항로대방위방식은 동경만에서 마리아나 제도의 북방까지 길이 1,000해리, 폭 240해리의 남동 항로대와 동경만에서 바시해협 부근에 이르는 길이 1,000해리, 폭 150해리의 남서 항로대를 설정해 그 속에 든 적함정과 잠수함을 호위함과 대잠기로 격침한다는 구상이다.⁷⁵⁾

해상교통로 방위와 함께 러시아 및 중국의 해군활동에 대한 견제와 대응도 일본 해양전략의 주요 관심사이다. 사실 냉전기 동안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 임무중의 하나는 블라디보스톡, 블라드 울가 등에 기지를 둔 소련 해군함정이 일본 주변의 3개 주요해협(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의 소야해협, 북해도와 본주사이의 쓰가루해협, 한국과 일본사이의 대한해협)에 접근하고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의 극동해군력이 쇠퇴함에 따라 최근 이러한 임무는 중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해양전략의 중요 관심사이자 해군력의 주요임무가 되는 것은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PKO)이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일본의 국가이익을 지원하는 일이다. 이 같은 임무는 일본의

74) 육군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육군본부, 1983), p. 96.

75) 김종두, “일본의 해상교통로(Sea Lane) 방위에 대한 연구,” 『Strategy 21』 (2000 봄 · 여름), p. 164.

국제적 역할의 확대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일본은 PKO 명목하에서 자국의 해군력을 포함한 군사력의 해외파견을 원활히 하기 위해 1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에서의 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⁷⁶⁾

그리고 탈냉전 후 일본의 해양전략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대규모 재해 등 각종 사태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일 안보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확대와 함께 해상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었고,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일본급변사태’에서 ‘일본주변 급변사태’로 확대되어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범위보다 훨씬 확대된 아·태 전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략의 확대를 초래하였다.

해양전략의 변화는 해상자위대의 활동영역과 구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탈냉전후 변화된 일본 해양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국가방위를 위한 해상방위에 있어서 1970년대 이래 지속해온 ‘전수방위’ 개념에 의한 수동적 방위개념을 탈피하고, 해상방위력을 증강하여 ‘해상교통로 방위’라는 전략적 목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견지에서 적이 본토에 이르기 전에 해상에서 격퇴한다는 전략적 개념 하에 제해권을 확보하려는 해양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작전으로서 첫째, 주변해역에서는 항공기에 의한 광역초계나 호위함에 의해 선박 항해지역을 초계하고, 원해에 전개해서는 일본선박을 공격하는 적합정을 제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 부대에 의해 선박을 호위한다. 초계와 호위에 있어서 해상자위대는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을 수행한다. 둘째, 연안해역에서는 주요해협을 통과하는 적 함정에 대해서 대잠전, 대함전, 기뢰전 등을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 육상, 항공자위대와 협동하여 해협통과 저지에 노력한다는 것이다.⁷⁷⁾

결국 일본은 근해방위를 목표로 하는 ‘전수방위해양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위대의 해상활동을 남지나해에 이르는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76) 이서항, “일본의 해양전략과 미·일 동맹,” pp. 93-95.

77) 이흥균, “중·일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동북아 정세전망,” 『국방연구』 제 118호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5), p. 127.

자국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주변지역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하는 ‘지역방위전략’으로 이미 전환하였다. 특히 일본은 일본열도 근해의 제해권을 유지하고 북서태평양으로부터 남쪽의 대만 및 동남쪽의 유탄도에 이르기까지의 해역통제 및 2000년대 초기까지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해상교통로의 보호 및 서태평양 전역에 대한 통제 전략을 구상하고,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자 해군력 현대화 및 증강을 도모하고 있다.⁷⁸⁾

이와 같은 해양전략 수행을 위한 해상자위대의 임무를 살펴보면, 평시에 경계감시, 현시에 의한 영향력의 행사 및 정세 긴박시의 각종 사태에의 대응, 나아가 전시에 있어서는 주변해역 방위, 해상교통로의 확보 등의 방위작전으로부터 전략적 공세작전에 이르기까지 극히 광범위하고 다양하다.⁷⁹⁾

해자대 간부학교에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주변 유사시에 대처, 국제전략환경 구축, 해양이용의 확보 등으로 해상자위대의 임무를 기술하고 있다.⁸⁰⁾ 이는 최근의 일본 안보정책을 반영하는 각종 정책선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의 임무란 국토를 방위하는 것으로 일본 본토침략에 대처하고 주변해역 및 도서를 방위하며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를 구축하는 작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변 유사시에 대처하는 임무는 미군작전에 대한 후방지원과 분쟁지역에서의 구원활동 및 피난민의 보호 그리고 수색·구조작전과 비전투원의 후송 등 미군과의 공동작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전략적 환경을 구축한다는 임무에는 PKO 및 PKF 활동, 국제긴급구조활동, 해외 재해파견 그리고 우방국과의 군사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걸프전시 PKF 활동으로 해상자위대 함정(소해함 4척, 보급함 1척, 부속선 1척)과

78) 김주영, “동북아 국가간 해군력 비교분석과 군사적 안정성향상 방안연구,” p. 54.

79) 日本 防衛廳, 『海上幕僚監部』, p. 2.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2호, (대전 : 해군본부, 1999), p. 64에서 재인용.

80) 山田 誠 外, 『綜合研究成果』 (東京 : 海上自衛隊 幹部學校, 1998), p. 2.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p. 64에서 재인용.

인원 511명을 걸프해역에 파견하여 34개의 기뢰를 소해 한바 있다.⁸¹⁾

넷째, 해양이용의 확보 임무에는 해양자원의 확보, 해양의 관할권 확보, 해양에서의 경제활동 보호와 국제수역에서의 치안유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해양자원과 해양의 관할권 확보측면에서 국제법상으로 12마일 영해,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및 군도원칙 등이 합의를 이루고 있으나, 수심과 대륙붕의 연결해역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는 상존 하고있다. 더욱이 일본은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전략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분야의 충돌은 배제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해양에서의 충돌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쉽게 군사적인 무력충돌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관할권 분쟁 발생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표 3-1> 참조.

이와 같이 해상자위대는 종래의 일본방위라는 임무에 추가하여,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적인 임무 또는 외교관이나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도 부여되었고, 새로운 분야에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공헌하는 길이 열려, 해상자위대의 역할은 평시부터 유사시에 걸쳐 여러 가지 단계에서 월등하게 확대되었다.

이것은 최근 일본의 안보전략 및 방위정책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중요한 움직임(신방위계획대강, 미·일신안보공동선언,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등)에서 일본이 의도하는 국제적, 지역적 안보역할의 확대정책에 따른 것이다.⁸²⁾

그리고 일련의 안보상황변화에 따라 「보통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일본의 해양 전략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일본은 구소련 극동해군의 쇠퇴와 중국해군의 부상을 계기로 지리적 범위를 기준으로 해군활동 영역의 변화와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은 유엔 PKO 활동 등에의 참여확대를 명분으로 대형 상륙함의 보유 등 장거리 전력투사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즉, 일본해상자위대는 함정의 대형

81) 한계옥,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서울 : 돌베개, 1994), p. 21.

82) 장문석, “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40권 제2호 (서울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97. 12), p. 12.

화·첨단화를 특징으로 작전범위의 광역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점차 대양해군으로서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확보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은 해양에서 적극적인 해양통제를 위한 전략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 이는 공세전력의 핵심인 대형상륙함 확보 및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데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국해군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항공모함 확보 등을 통해 해양에서 공세전략을 추진하려 할 경우 일본내에서의 항공모함 도입논의는 보다 적극성을 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단기적으로 일본은 미·일 동맹의 명분아래 해군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사태시 해상자위대는 미·일 동맹 체제하에서 미국의 기동함대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것이나 일본의 해군력은 독자적 운용능력이 보다 더 강화되어,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라고는 하나 결국은 해상자위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를 불러 올 것이다. 특히 미·일 동맹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의 군사적 역할은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공동연구에의 참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2000년 말 미국의 부시행정부 출범 직전 리처드 아미티지(현 국무부차관) 정책보고서가 미·영의 특수관계를 모델로 삼아 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금지가 미·일 협력의 제약이 됨에 따라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미·일 동맹과 관련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⁸³⁾

이러한 모든 사항은 일본이 적극적인 해양통제와 활동영역의 확대 및 역할증대를 위한 능동적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83) 이서항, “일본의 해양전략과 미·일 동맹,” p. 101.

<표 3-2> 해상자위대 임무

| 기본방침 / 목 적 | 임 무 | |
|------------|-----------------------|---|
| 일본 안전의 확보 | 국토의 방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토 침공 대처 · 주변해역 방위 · 도서의 방위 · 방공 · 적 근거지 등의 파괴 · TMD방어 |
| | 해상교통로 보호 | |
| | 저강도 분쟁(LIC) 대처 | |
| | 치안유지 | |
| | 대규모 재해 대처 | |
| 주변 유사 대처 | 미군작전 후방지원 | |
| | 직접적인 전투행동에 참가하지 않는 작전 | |
| | 미군과의 공동작전 | |
| 국제전략환경 구축 | 유엔 평화유지군(PKF) | |
| |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 |
| | 유엔 금수(禁輸) 집행 | |
| | 국제 긴급원조활동 | |
| | 해외 재해파견 | |
| 해양이용의 확보 | 해양경제활동의 보호 | |
| | 국제 수역에서의 치안유지 | |

※ 출처 : 山田 誠 外, 『綜合研究成果』 (東京 : 海上自衛隊 幹部學校, 1998), p. 56.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2호, (대전 : 해군본부, 1999), p. 73에서 재인용.

3. 해양전략 분석결과

일본의 해양전략은 안보환경 변화에 의한 다음의 이유 등으로 커다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강대국 세력감퇴에 따른 자국안보 증대와 영향력 확대, 둘째, 대외무역 증

대에 따른 해상교통로 방어 필요성의 증대, 셋째, 해양에 대한 군사활동영역의 확대, 넷째, 해양영토분쟁에 대한 대비 등이다.

안보환경과 방위정책 변화에 따라 변화된 일본 해양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시기에는 해양전략목표가 본토방위를 위한 주변해역방위와 해상교통로의 보호에 머물렀으나, 방위정책의 변화에 따라 해상방위범위와 해상교통로의 방위범위를 더욱 확대시킴과 동시에 크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해군력에 대한 견제와 대응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영향력 발휘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국제·지역적으로 정치·군사역할확대를 지향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수단으로써 PKO활동이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등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셋째,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이를 명분으로 해군활동의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고 나아가 항공모함 등 해양공세전력의 확보를 추진하여, 독자적으로 주변 지역해역을 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해양통제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기체계 획득차원에서 이러한 해양전략의 변화를 뒷받침하듯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힘을 쏟고 있으며, 그 전력증강 내용도 적극적인 해양공세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해상투사전력의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표 3-2> 참조.

그러나 해양전략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이 있어 아직 그들의 의도대로 적극적인 해양전략의 구상을 정립하고,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통제전략의 수행을 위한 능력의 부족이다.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구소련 극동해군 전력의 현격한 감소와 미해군의 규모축소로 서태평양의 해군력 균형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어를 넘어 2000해리까지를 활동영역으로 할 수 있는 대양해군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 해양전략 변화 주요 특징

| (해양)안보환경 변화 | 방위정책 변화 | 해양전략 변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안보증대와 영향력 확대추구 • 해상교통로 방위필요성 증대 • 해양영토분쟁 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정책목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방위 - 영향력 확대 • 자위대 성격과 지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권행사범위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전략목표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방위범위 확대 - 해상교통로 방위범위 확대 - 역할증대 도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국제적 공헌요구 • 영향력 확대 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위대법 - PKO법 • 자위대 성격과 지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자위권 인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공헌 활동 참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KO 활동 -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군사활동영역 확대 요구 • 영향력 확대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제도적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본부 창설 - 주변사태법 제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동맹을 명분으로 해상자위대 활동범위와 역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적 주변해양통제 전략추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안보증대와 영향력 확대추구 • 해양 군사활동영역 확대 요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력 정비방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방위력+각종사태 대비 및 세계평화 기여 능력 확보를 통한 역할 증대수행능력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체계 획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투사전력 증대 - PKO활동 참여 능력 확보 |

하지만 여전히 미7함대에 비하여 해군력 투사능력이 부족하고,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전략적 핵전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전력획득에 어려움이 안고 있다.

둘째, 적극적인 해양전략 수립 및 실행에 따른 문제점의 대두이다. 일본은 일본 내의 반전성향, 동북아 및 동남아 주변국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 전략적 억지/거부능력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갈등 회피, 해상자위대의 독립적 해양투

사형, 공세적 해양통제형 및 전략적 거부형 해군력 건설에 대한 미국의 억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주변 해역에의 독립적 해군전력투사를 위한 전략구상 정립 및 무기체계의 급격한 강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당분간은 주일 미해군의 혹은 나아가 태평양 미해군의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전력으로서 그 위상의 점진적 강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내에서 혹은 주변국들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확대에 대한 옹고그름, 헌법상의 관련 규정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일본은 국가위상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일본 자위대 특히, 해상자위대는 중대한 지역세력이 될 수 있는 능력들을 조용히 획득해 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본이 의도하는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조만간 동아시아 전역을 활동무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강력한 해상자위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오스미함을 비롯한 이지스함 추가확보 및 항공모함 보유 추진 등이 이러한 추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4 장 해상자위대 능력 분석

제 1 절 해상자위대 전력

1. 해상자위대 현황

미국의 대일 군사력 증강요구는 일본이 전수방위 개념을 넘어서도록 만들었고, 이것은 결국 본토 주변과 해상교통로 방위 그리고 3개 해협을 봉쇄를 위한 해상자위대 전력의 증강을 초래하여 P-3C 대잠초계기 도입과 이지스함의 건조 등을 통하여 그 전력이 꾸준히 증가하게 된 계기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표 4-1> 참조.

<표 4-1> 일본의 함정증가 현황

| 함정구분 | 1959년 | 1970년 | 1985년 | 1997년 | 2000년 |
|-------|-------|-------|-------|-------|-------|
| 잠수함 | 4 | 10 | 14 | 16 | 16 |
| 주요수상함 | 42 | 40 | 48 | 63 | 55 |
| 고속초계정 | 10 | 20 | 21 | 14 | 13 |
| 소해정 | 51 | 35 | 42 | 35 | 31 |
| 상륙함 | 1 | 4 | 6 | 7 | 9 |
| 총 계 | 108 | 109 | 131 | 145 | 124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1959-1960/1970-1971.

ISS, The Military Balance 1975-1976/1985-1986/1996-1997/2000-2001.

44,227명의 병력과 145척의 함정을 보유한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조직상 해상막료감부와 해상 막료장이 감독하는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세부편성은 <그림 4-1>과 같다. 해상막료감부는 예하에 행정, 작전, 정보, 재정 및 조달, 공병, 의무 등 6개 본부로 편성되었다. 해상막료장 직할부대들로는 항공집단, 자위함대, 지방대 그리고 교육기관 등이 있다. 자위함대는 4개 호위대군으로 구성된 호위함대, 항공집단 그리고 2개의 잠수대군으로 이루어진 잠수함대, 2개 소해대군, 1개 상륙함

대군, 연습함대, 수척의 독립 보조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위함대는 ‘원해’ 기동 전력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반면, 5개의 지방대는 연안해역에서 작전하며 해안방어 및 기동전력부대들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작전상으로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 소속부대와 5개 지방대 소속부대 등 2개 제대로 구분한다.⁸⁴⁾ 자위함대는 지방대와는 달리 특정한 경비구역이 주어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16,200마일의 일본 연안해역에 출동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예하의 주요부대는 호위함대(4개 호위대군과 보급함), 항공집단(7개 항공군), 잠수함대(2개 잠수대군) 및 소해대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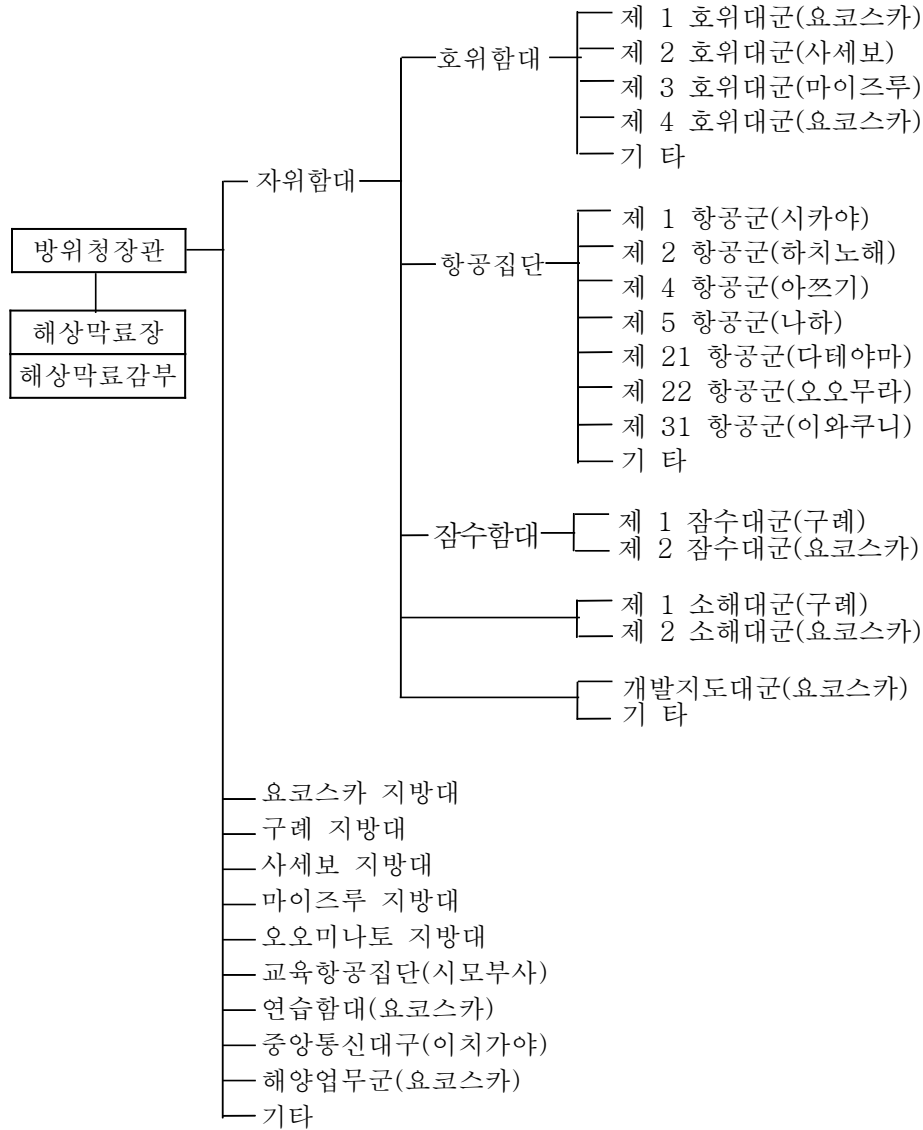
지방대는 일본 주변해역을 다섯 개의 경비구역(오오미나토, 요코스카, 구레, 사세보, 마이즈루)으로 분할하여 설치되어 있다. 전력은 호위대, 미사일부대(오오미나토 지방대만), 소해대, 항공대(요코스카, 마이즈루 지방대 제외)의 각 부대가 있다. 호위대는 연안해역의 경비, 방어를 담당하는 수상함 부대로서, 초계함(DE)를 주력으로 하는 3척 편성이지만 최근에 들어 “하츠유키”형 DD의 숫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호위대는 사세보, 마이즈루, 오오미나토의 3개 지방대만 2개 호위대가 배비되고, 나머지 요코스카와 구레 지방대에는 1개 호위대만 배비되어 있다. 호위함대가 주로 Sea Lane 방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대의 호위대는 소오야, 쓰가루, 대한해협 등의 중요해협에서 감시·초계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주요함정으로는 호위함 55척(DD급과 DE) 19만 2천톤, 잠수함(SS) 16척 3만 8천톤, 기뢰함정 32척 2만 7천톤, 수송함정 1만 7천톤, 보조함정 31척 9만 5천톤 등 총 143척 배수톤수 37만 3천톤이며,⁸⁵⁾ 항공전력으로는 고정익 초계기(P-3C) 80대, 대잠 초계헬기 80대(HSS-2B 20대, SH-60J 60대), 소해·수송기(MH-53E) 10대 등 모두 170여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⁸⁶⁾

84) 이전의 구조는 연안의 감시와 방어 목적을 위해 일본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일본 해역을 5개의 방어구역으로 나누고 각 방어구역에 적어도 1개 이상의 구축함 전단이 항시 전투준비태세 하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시·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2개의 구축함 전단이 배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상자위대는 총 10개의 구축함 전단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본부, 『중국·일본 해군력과 한국안보』, p. 61.

85) 해상자위대의 함정 기준배수톤수는 만재배수톤수가 아닌 경하배수톤수로 표시한다.

<그림 4-1> 해상자위대 조직



※ 출처 : 防衛年監刊行會, 『防衛年監 2001』 (東京 : 防衛年監刊行會, 2001), p. 33

86)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94-195.

이와 같이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발사 미사일과 방공능력이 대폭 향상된 이지스함 및 대형 상륙함, 80여대의 대잠초계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상전, 대잠전, 상륙전, 기뢰전 등 각 성분작전별로 고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체작전이 가능한 해상자위대라 할 수 있다. <표 4-2> 참조.

<표 4-2> 해상자위대 함정현황

| 구분 | 종류 | 보유수 | 구분 | 종류 | 보유수 | | | |
|--------------|--------------|-------|---------------------|--------------|--------|--------------|------|-------|
| 호위함 (55척) | 구축함 (42척) | 콩고급 | 4척 | 상륙함 (21척) | LST | 오스미급 | 1척 | |
| | | 하타카제급 | 2척 | | | 미우라급 | 2척 | |
| | | 타치카제급 | 3척 | | | | 아즈미급 | 1척 |
| | | 타카츠키급 | 2척 | | LSM | | | 유라급 |
| | | 아사기리급 | 8척 | | | 이치고급 | | 2척 |
| | | 하즈유키급 | 11척 | | | | LCAC | 공기부양정 |
| | | 무라사메급 | 7척 | | LCM | 상륙정 | | 11척 |
| | | 시라네급 | 2척 | | | 기뢰함 (32척) | 우라가급 | 2척 |
| | | 하루나급 | 2척 | | 니이지마급 | | 2척 | |
| | 야마구모급 | 1척 | 하츠시마급 | 13척 | | | | |
| | 초계함 (13척) | 아부쿠마급 | 6척 | 야에야마급 | 3척 | | | |
| | | 유바리급 | 2척 | 우와지마급 | 9척 | | | |
| | | 이시가리급 | 1척 | 슈가시마급 | 3척 | | | |
| | | 치쿠고급 | 4척 | 잠수함구조함 | 2척 | | | |
| 잠수함 (16척) | 하루시오급 | 6척 | 지원 및 기타 (19척) | 훈련함 | 2척 | | | |
| | 유우시오급 | 6척 | | 훈련지원함 | 2척 | | | |
| | 오야시오급 | 4척 | | 해상보급함 | 4척 | | | |
| 미사일정 | 이치고급 | 3척 | | 총계 | 측량/연구선 | 8척 | | |
| | | | | | 쇄빙선 | 1척 | | |
| | | | | | 145척 | | | |

※ 출처 : 정보사령부, 『세계의 군사력 2000-2001』 (서울 : 정보사령부, 2000), pp. 217-220.

2. 유형별 전력⁸⁷⁾

가. 수상함(호위함)전력

호위함대 예하의 각 호위대군은 DDH(SH-60J를 3기 탑재) 1척, DDG(이지스 함 및 이지스 함 각 1척) 2척과 DD(SH-60J를 1기 탑재) 5척 등 합계 8척과 함재 헬기 8기로 편성되며(8함 8기, 88함대라고도 함), 필요에 따라 AOE(보급함) 1척이 동반된다. 이들 함은 최신의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예함이며, 승조원의 숙련도와 더불어 대잠전 능력은 세계에서 톱 클래스로 분류되며, 대공전, 대수상전, 전자전에 있어서도 상당한 능력을 구비하는 균형을 취한 전술단위이다. <표 4-3> 참조.

<표 4-3> 호위함대의 주요 호위함 전력

| 급 명 | 함 종 | 배 수 톤 수 | 취 역 년 도 | 척 수 | 속 력 (Knots) | 무 장 | |
|------|-----|------------|------------|-----|----------------|------------------|-----------------|
| | | | | | | 포 | 미사일 |
| 콩고 | DDG | 7,250 | 1993 | 4 | 30 | 127mm×1, CIWS | 대공·대함, ASROC |
| 타치카제 | DDG | 3,850 | 1976 | 3 | 32 | 상동 | 대공 ASROC |
| 하타카제 | DDG | 4,600 | 1986 | 2 | 30 | 상동 | 대공·대함 ASROC |
| 하루나 | DDH | 4,950 | 1973 | 2 | 31 | 상동 | 대공 ASROC |
| 시라네 | DDH | 5,200 | 1980 | 2 | 32 | 상동 | 상동 |
| 하츠유키 | DD | 2,950 | 1982 | 11 | 30 | 76mm×1, CIWS | 대공·대함 ASROC |
| 아사기리 | DD | 3,500 | 1988 | 8 | 30 | 상동 | 상동 |
| 무라사메 | DD | 4,550 | 1996 | 4 | 30 | 상동 | 상동 |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2000-2001, pp. 370-376.

87) 해군작전능력은 유형별로 구분된다. 여기서 유형이란 작전수행형태에 따라 수중전력(잠수함), 수상함전력(호위함), 항공전력, 상륙전 전력, 및 기뢰전 전력 등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수상함 부대의 주력인 호위함대는 언급한 바와 같이 3기의 초계헬기를 탑재하는 대잠중추함 DDH, 함대 방공용 대공미사일 탑재의 대공중추함 DDG 및 다용도함 DD의 3종의 호위함으로 구성된다. <표 4-4> 참조.

<표 4-4> 주력 호위함 전력

| 함 명 | 주 요 제 원 | | | 주 요 무 장 |
|--------------|------------|-----------------|------|---|
| | 길 이 | 기 관 | 승조원 | |
| 시라네 (DDH) | 159×17.5 M | 충동식 터빈 2기 | 350명 | 대공미사일 Sea Sparrow 대잠로켓 ASROC 단거리 3연장 어뢰발사관 2문 5인치, 20mm(CIWS)×2 대잠헬기(SH-60J) 3대 |
| 콩고(DDG) | 161×21 M | COGAG G/T 4기 | 300명 | 이지스체계, 전파탐지 방해장치 대잠정보 처리장치 대공미사일 Standard(VLS) 대잠로켓 ASROC(전후부 VLS) 대함미사일 Harpoon 단거리 3연장 어뢰발사관 2문 127mm, 20mm(CIWS)×2 |
| 무라사메 (DD) | 151×17.4 M | COGAG G/T 4기 | 170명 | 대공미사일 Sea Sparrow (VLS) 대잠로켓 ASROC(VLS), 대함미사일 SSM-1B 단거리 3연장 어뢰발사관 2문 76mm, 20mm(CIWS) ×2 초계헬기(SH-60J) 1대 |

※출처 :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 252호 (대전 : 해군본부, 2001), pp, 68-86.

먼저 ‘시라네’형 DDH는 ‘하루나’형에 이어 헬기탑재 대형 호위함인 동시에 해자대 최초의 시스템함이다. 해자대 호위함으로 최초로 개별함 방공용의 단거리 함대

공 미사일(단거리 SAM) Sea Sparrow 발사기를 탑재하였으며, 국산 신형소나 OQS-101, 3차원 레이더 OPS-12, 예인식 소나(TASS)를 장착하였다.

다음으로 함대의 방공을 담당하는 ‘콩고’형 DDG는 미국에 이어 일본만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이다. 장착한 Phased array radar는 SPY-1D이다. 선체는 전파, 음파, 적외선에 대한 스텔스성을 고려하여 해면에 대하여 역V자형으로 설계되었으며, 함수부 갑판의 포는 해자대 자위함으로서 최초 채택한 OTO 127mm 단장포이고, 후갑판은 신대잠시스템을 갖춘 SH-60J 대잠헬기용 이·착함 갑판으로 된 해상자위대 최대의 호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다용도의 ‘무라사메’ DD는 호위함대의 중추가 될 범용 호위함이다. 탑재장비의 시스템이 발전되어 거주성의 향상도모에도 불구하고 ‘하츠유키’형에 비해 1,000톤이 증가하였으나, 승조원은 약 50여명이 감소하였다. 선형은 스텔스성을 고려하여 선체의 평갑판형으로 후부갑판은 헬기 이착갑판으로 된다. 대공·대수중 미사일 로켓이 수직발사형(VSL)이며, 미니 이지스함이라 할 수 있다. 장착한 SAM은 최초로 국산 SSM-1B를 장착하였으며 기관자동화 시스템, 신형 소나, 신 전술정보처리장치(OYQ-7)등 컴퓨터에 의한 시스템화가 도입되었다.

나. 잠수함 전력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전력은 2개의 잠수대군으로 구성된 잠수함대 전력이라 할 수 있다. 잠수함은 1976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평시 운용척수를 16척으로 제한한 이래 현재까지 16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하루시오’ 및 ‘유우시오’형 잠수함이 각각 6척 그리고 ‘오야시오’형 4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현대식 디젤 추진기관을 사용하고 있다.⁸⁸⁾ <표 4-5> 참조.

잠수함의 건조형태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先型에 기초하여 성능개량의 형식으로 발전되어 왔다. ‘유우시오’형은 1970년대의 ‘우즈시오’형에 기초하고 있지만 선행모델보다 더 깊이 잠수하며, 현대식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고 더욱 낮은 RPM의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으며, 견인식 VLF 통신안테나를 외장하고 있다.

88) Jane's Fighting Ships 2000-2001, pp. 368-369.

<표 4-5> 주요 잠수함 전력

| 구 분 | 취역 년도 | 톤수 (수중) | 승조원 | 속 력 (Knots) | 무 장 | | | 장 비 |
|------|----------|-------------------|-----|----------------|--------------------------|-----------------|----|--|
| | | | | | 어뢰 | 유도탄 | 기뢰 | |
| 오야시오 | 1998 | 2,700톤 (3,000) | 69명 | 수상 12 수중 20 | 발사관 6문/ TYPE 89 | Sub- Harpoon | 가능 | FAS 소나 TASS 소나 ESM, TFCS 스텔스 강화 |
| 하루시오 | 1900 | 2,750톤 (2,850) | 74명 | 수상 12 수중 20 | 발사관 6문/ TYPE 89 | Sub- Harpoon | 가능 | TASS 소나 ESM, |
| 유우시오 | 1982 | 2,300톤 (2,450) | 75명 | 수상 12 수중 20 | 발사관 6문/ TYPE 89 | Sub- Harpoon | 가능 | TASS 소나 ESM |

※ 출처 : Jane's Fighting Ships 2000-2001, pp. 368-369.

‘하루시오’형은 ‘유우시오’형을 개량한 것으로서 Harpoon 대함미사일 장착이 가능하며, 견인식 수동소나 어레이 및 수동형 측면 어레이, 신형전자전 장비와 추가적인 소음 감소기능을 갖추고 있다. 최신형 잠수함인 ‘오야시오’형은 1998년 3월 도입되었는데 2000년까지 도입될 5척 중 1번함이다. 앞으로 2005년까지 4척이 추가 도입될 전망이며, 향후 계획에 의하면 ‘오야시오’형에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⁸⁹⁾

해상자위대의 잠수함전력은 최신의 ‘오야시오’형 잠수함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대형이고 함량이 매우 낮으며, 장비나 무장면에서 최신의 성능을 보유하여 핵잠수함을 제외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89) 해군본부, 『중국·일본 해군력과 한국안보』, p. 69.

다. 항공전력

해상자위대의 항공전력은 대잠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익 항공기 P-3C 및 회전익 항공기 SH-60J로 대표되는 침단화, 고가화 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4-6> 항공전력 현황

| 구분 | 기종 | 용도 | 보유수 | 작전시간 | 최대속력(knots) | 항속거리(NM) | 비고 |
|-----|--------|-------|-----|---------|-------------|----------|----------|
| 고정익 | P-3C | 해상초계 | 80 | 10-12 | 395 | 3,540 | 10개 비행대대 |
| | EP-3C | 전자전 | 4 | 10-12 | 370 | 2,300 | 1개 비행대대 |
| | YS-11M | 수송 | 4 | 5.2 | 260 | 1,590 | 1개 비행대대 |
| | US-1A | 탐색/구조 | 10 | 6 | 265 | 2,300 | 1개 비행대대 |
| | YS-11T | 훈련 | 7 | 5 | 249 | 1,230 | 4개 비행대대 |
| | T-5 | | 36 | 4 | 193 | 510 | |
| | TC-90 | | 28 | 5 | 220 | 1,040 | |
| 회전익 | HSS-2B | 대잠전 | 20 | 3.1-5.2 | 129 | 430 | 6개 비행대대 |
| | SH-60J | 대잠전 | 60 | 3.5-4 | 149 | 500 | 4개 호위대군 |
| | MH-53E | 기뢰전 | 10 | 5.3 | 150 | 700 | 1개 비행대대 |
| | S-61 | 탐색/구조 | 10 | 5.9 | 138 | 532 | 2개 비행대대 |
| | UH-60J | | 18 | 5.1 | 149 | 700 | |
| | OH-6D | 훈련 | 10 | 2.5 | 129 | 278 | 1개 비행대대 |
| | OH-6DA | | 2 | 2.5 | 129 | 278 | |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95.

이러한 전력은 대잠초계기에 의한 주변해역의 광역초계 및 중요 해역초계와 필요시 선단호송 및 성분작전 등을 수행한다. 특히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그 임무도 다양화되고 있는데, 「신방위계획대강」에 의거 밀항선 감시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초계임무를 담당하고 있다.⁹⁰⁾ <표 4-6> 참조.

해상자위대는 장래전력의 핵심이 될 몇 가지 해군 항공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P-3C 대잠초계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대잠전 항공기에 대한 사전 연구와 신형 SAR 항공기의 개발에 착수했다. 또한 기존 항공기의 성능개량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P-3C를 개조한 화상정보수집기 도입, UP-3D, U-36A에 의한 훈련지원능력으로 수상임무군의 전력향상을 도모했다. 이중 UP-3D는 1994년부터 3기를 조달한 것으로 동항공기 1기는 1개 호위대군을 담당할 수 있는 방해전과 발사능력을 가지고 있어 함대의 ECM 능력향상에 기여한다.⁹¹⁾

라. 상륙전 전력

해상자위대 전력구조 중 1998년 3월에 취역한 8,900톤급 ‘오스미’함보다 주의와 논쟁을 불러일으킨 함정은 없다. 일본의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오스미함은 일본의 노후화된 ‘아즈미’ 및 ‘미우라’급 LST를 대체하기 위해 계획된 3척의 함정 중 1번함이다. 사실 신형 함정 오스미는 이전의 LST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관통갑판, 비행갑판, 함 우현의 Island형 함교, 함미 LCAC 격납고를 갖추고 있어 다용도의 강습상륙함(LHA : Amphibious Assault Ship), 심지어 소형 항공모함으로 볼 여지가 많다.⁹²⁾ <표 4-7> 참조.

일본 방위청은 다른 LST들과 마찬가지로 오스미의 공적인 임무는 전시에 영토 내에서 일본 자위대 부대를 수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고 있지만, 예상되고 있듯이 자위대법이 앞으로 해자대 함정이 일본국민을 구조하기 위하여 해외

90) 예를 들어 1998년 2월 2일 제31항공군(이와쿠니)의 P-3C가 가고시마현 동방해상에서 불심 검문할 중국어선을 해상보안청에 통보하였고, 해상순시선이 조사한 결과 밀항자 35명을 싣은 밀항선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건은 1997년 3월 이후 27번째였다고 한다.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31호 (대전 : 해군본부, 1998), p. 19.

91)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 252호, p. 161.

92) 일본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 후반 5,600톤급 LST를 요청했었다. 공개된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San Giorgio급 LPD(Dock를 갖춘 상륙소송함)와 닮은꼴인데 승인 받지 못했다. 그때 미 해군의 소형 헬기 강습함(LPH)을 닮은 좀더 대형 함정이 공표 되었는데, 1993 회계연도 방위계획에 포함되었다. 1930년대 일본의 항모가 아·태지역에서 일본 팽창주의 정책의 선봉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함정의 군수수송능력을 강조하는데 노력해 왔다.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29호, p. 83.

로 파견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중량 화물수송 및 헬기탑재능력을 갖춘 오스미가 장래의 국내·국제적 재난구조작전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⁹³⁾

<표 4-7> 주요 상륙함 전력

| 함형 | 전장/ 전폭 | 속력 (knots) | 승조원 | 기 준 배수량 | 무 장 | 수 송 력 | 탑 재 양륙정 | 헬기 운용 능력 |
|-------------|---------------|---------------|------|---------------|-----------------|-------------------------------|-----------------|----------------|
| 오수미 (1척) | 178× 25.8m | 22 | 135명 | 8,900 톤 | CIWS×2 | 병력 330명 전차 10대 대형차량 40대 | LCAC×2 | 착·발 / 급유 |
| 아즈미 (1척) | 89× 13m | 14 | 100명 | 1,480 | 40mm×2 | 병력 130명 화물 400톤 | LCVP×2 | 불가능 |
| 미우라 (2척) | 98× 7.6m | 14 | 110명 | 2,000 | 3인치×1 40mm×1 | 병력 200명 화물 500톤 | LCVP×2 LCM×2 | 불가능 |

※ 출처 :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 252호 (대전 : 해군본부, 2001), pp. 109-113.

오스미의 수송능력은 전차(90식 전차 10대), 트럭 등 군용차량, 약 390명 정도의 병력, 1,400톤 정도의 기타 화물 및 상륙작전을 위해 2척의 LCAC를 운반할 수 있다. 또한 헬기를 관제할 수 있고 상부갑판 후방에 착륙지점이 있어 해상자위대 소속 헬기(CH-47J Chinook로 추정)가 작전중 이·착륙할 수 있고 헬기 재급유시설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래 수송함과 오수미의 수송능력을 비교해보면, 오수미 취역 이전에 병력수송용으로 사용되던 해상자위대의 수송함인 ‘아즈미’형은 기준배수량 1,480-1,550톤, 병력 130명, 화물 400톤을 탑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LCVP(차량, 병력양륙정) 2척을 탑재하며 LCVP는 병력 38명 또는 화물 40톤을 탑재할 수 있다. 한편, ‘미우라’형은 기준배수량 2,000톤으로 병력 200명, 화물 500톤

93) 여기에는 한반도와 심지어 대만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1994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된 현행법은 단지 항공기에 의한 철수만을 허용하고 있다. 오스미의 군수능력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수정된 지침하에서 정확한 신형 LST의 역할에 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오스미가 해자대에 어떻게 편성될지는 비밀로 남아 있다. 상계서, p. 85.

을 탑재할 수 있으며, LCVP 2척 외에 LCM(기동양륙정) 2척도 탑재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 오수미는 완전 무장한 육상자위대 보병 3개 중대(660명)를 수송할 수 있다. 가설시설을 이용하면 1,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 속력도 기존의 함정이 13-14kts인데 반해 22kts로 대폭 빨라졌다.⁹⁴⁾

하지만 무엇보다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수미함의 진정한 성격인데, 오수미함이 「강습상륙함」인가 또는 「경항공모함」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7년 5월의 「제인 군함연감」은 “비행갑판의 앞 끝은 미완성이며, V/STOL 항공기용의 Ski Jump를 설치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하였으며, 프랑스의 군함연감 「Flottes de Combat 1998」은 “오수미는 일본 해군 함정 중에서 최대이며, 본질적 강습헬기모함이다”라고 언급했다. 반면에 미국의 「Proceeding」은 오수미함을 강습상륙함으로 보지 않고 LSD(독형 상륙함)으로 보고 있으나, 평탄한 갑판 및 우현으로 치우친 항모와 유사한 아일랜드 구조는 장차 항모로도 전용 가능한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⁹⁵⁾

일본은 중량 수송헬기 이외에는 탑재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며, 강습상륙함 또는 경항공모로서 부적합함을 다음의 이유로 들고 있다.

먼저, 강습상륙함이라함은 강력한 항공능력을 갖추어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함정인데, 오수미함의 경우 갑판 아래에 헬기 등 항공기의 격납고 및 정비기능이 없다는 것과 램프(엘리베이터)의 강도가 헬기의 중량에 견딜 수 없다는 것, 즉 헬기 탑재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습상륙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작전 지휘능력인데, 현대의 상륙작전은 육·해·공 각종부대를 일방적으로 지휘·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정보실(CIC)의 기능이 중요하나, 오수미는 미국의 강습상륙함들의 전투정보기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⁹⁶⁾

그러나 외형에서 드러나듯이 오수미의 비행갑판 길이를 고려한다면 AV-8B Harrier기와 같은 수직이착륙 항공기를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94)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31호, pp. 111-112.

95)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33호, pp. 33, 59-60.

96) 상계서, p. 47.

가능하며, 더욱이 헬기를 운용하는 것은 더욱 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제 오수미가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수미함이 갖는 수송능력의 대폭적인 향상은 장차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양투사능력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이 현재 보유중인 이지스 구축함이 호위할 경우 이지스함에 의해 제공되는 대공방어망과 연결될 수 있는 데이터 링크를 탑재하고 있는 오수미의 대공능력은 크게 향상되어 원해작전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장차 안보환경의 변화로 미국이 역내 역할확대를 요구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일본은 오수미함을 좀더 공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할 것이다. 또한 해상자위대가 이지스체계를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존 대공방어 링크를 지휘, 통제, 통신, 정보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대공, 대잠, 지상-해상작전을 실행하고 미국의 Blue Ridge가 수행하는 것과 유사한 완전한 지휘임무 또한 수행할 것이다.⁹⁷⁾

오수미함은 「완전무장한 육상자위대 1개 연대전투단의 동시수송」이라는 해상자위대 전체의 전력구상의 범주에 따른 것으로 이후 몇 척이 더 건조될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육상자위대 1개 연대 전투단의 수송이라는 기본구상(오수미함이 330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고 1개 연대전투단이 2,000명이라는 정원에 변화가 없을 시)에 의하면 동급함 6척으로 겨우 수송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척수는 아즈미형 및 미우라형 합계 6척의 LST형 수송함을 1대 1로 교체한다면 가능한 수치이다.⁹⁸⁾

마. 기뢰전 전력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은 소해모함, 기뢰부설함, 소해함(정) 등 30여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해헬기(10대)도 보유하고 있다. 단순 척수에서는 독일의 54척 다음가는 세계 2위이나 그 작전수행능력 면에서는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걸프전 당시의 기뢰소해의 경험과 교훈을 도입한 신형함정들이

97)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29호, pp. 87-89.

98)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33, p. 48.

도입되어 그 전력이 더욱 보장되고 있다. 1997년 이후 탐색능력이 대폭 향상된 신 중형 소해함 ‘수가시마’, ‘노토지마’ 등이 건조되고 있으며, 심심도 소해용 소해함을 1994년까지 3척 건조하였다.

또한 신형 소해모함을 건조하는 등 충실한 모함능력, 항공소해지원능력, 장기항해능력, 기뢰부설능력 등의 향상을 목표로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⁹⁹⁾

3. 핵심전력요소

가. 우주항공기술

탈냉전후 일본의 신방위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전개되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은 군사력의 규모와 기능을 합리화, 효율화, 콤팩트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군사력의 외형적 크기는 축소하는 대신 군사력의 첨단기술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쟁 수행력을 유지,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의 첨단기술화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군사력의 외형적 크기를 축소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와 비난을 피할 수 있고, 군사력의 첨단기술화를 통해 탈냉전기 다양한 안보적 위협과 국제적 안보역할 확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군사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미래전의 특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걸프전 이후 군사전문가들은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첨단과학기술력과 우주항공력을 들고 있다. 즉 이러한 미래전의 특성은 일본이 군사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일본이 소유하고 있는 첨단소재, 반도체, 광학, 항공산업 등에 관련한 다양한 범용기술은 미국조차도 탐낼 정도의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범용기술을 군사력에 전용하기 시작한다면, 군사초강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일본은 자원의 빈국으로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력을 건설하였다. 즉 일

99)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27호, pp. 100-101.

본에게 있어 과학기술력은 생존을 위한 경쟁수단으로 인식되어 기술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민족주의가 국가안보전략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첨단 기술력을 먼저 국산화, 국내확산 및 육성하고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은 첨단무기를 수입할 때도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기술이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일본만이 갖고 있는 F-15 전투기를 라이선스 생산할 때도 기술축적을 위해 직구매 가격의 2배를 지불하였고, 결국 최신예 지원전투기인 F-2 전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전투기에 채택된 복합일체성형기술, 능동형 전자구조(Active Phased Array) 레이더 기술 등은 일본이 개발한 기술로서 미국이 모두 탐내고 있었던 기술이었다.¹⁰⁰⁾

일본은 여타 기초소재 분야의 기술에서도 이미 세계적인 비교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은 외형상 비록 적은 군비체제규모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사기술력에서는 미국 다음이며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서있다.

나. 정보기술

현재 국제사회는 IT(Information Technology)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기술 혁명은 군사적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본도 군사에 있어서 IT혁명에 따른 급속한 변혁에 대응하기 위해 RMA(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군사혁신)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여러 분야의 RMA 중에서도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보RMA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RMA의 목표로 “2003년까지 보안성이 확보되고 통합된 고도의 네트워크 환경의 기반을 정비하고, 또한 정보통신 기능의 강화”를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이 되는 3가지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위대의 운용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 환경의 정비로서 ‘방위정보통신기반’(DII : Defense Information Infrastructure), ‘컴퓨터 시스템 공통운용환경’(COE : Common

100) 박한규, “일본의 첨단 기술력과 군사력”, 『전략연구』, 통권제 21호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p. 96-100.

Operation Environment), 통합된 네트워크 관리기반 등의 구축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정보와 지휘통신 기능의 강화이다. 이는 이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정보 및 지휘통신 기능의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가는 동시에 중앙으로부터 말단 제대에 이르는 각종 정보 및 지휘통신 체계의 정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에서는 해상작전부대 지휘통제지원 체계(MOF : Maritime Operation Force System) 및 지휘통제지원 터미널(C²T : Command and Control Terminal) 등의 정비가 추진된다. 또한 통합전투지휘를 위해 지휘함 건조가 계획되고 있다.

셋째, 후방지원체계의 정비에 관한 것이다. 지휘계통의 체계강화 뿐만 아니라 보급이나 정비, 수송 등의 군수지원체계도 중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상자위대에서는 정비보급체제를 개선하는 등 후방지원체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래에는 후방지원계통의 네트워크를 정비함으로써 더 한 층 합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¹⁰¹⁾ 이와 같이 일본 자위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RMA의 실현을 위해 기반이 되는 정보관련 기술에 대해 일본이 선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RMA를 실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일본 방위청은 예상하고 있다. 즉, 머지않은 장래에 일본이 추구하는 정보RMA가 실현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지금보다도 한 층 더 첨단화되고 합리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발휘하게 될 것이다.

4. 성분작전능력¹⁰²⁾

가. 대잠전

대잠전은 해상자위대 전력건설의 중점이며, 해상작전의 주요초점이었고, 대잠전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다. 작전개념은 적함의 통제와 통과저지, 기뢰대응책, 일본해협내 대잠장애물 및 중심방어를 위한 전력운용 등이다. 대잠전수행을 위한 전

101)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정보』, 통권20호 (대전 : 국방과학연구소, 2001. 9), pp. 55-58.

102) 해군작전은 성분(component)별로 구분된다. 여기서 성분이란 작전형태에 따라 대잠전, 대공전, 대수상함전, 상륙전, 기뢰전 및 전자전 등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력으로서 4개의 호위함대가 그 핵심방어전력이며, 잠수함대와 항공집단이 지원작전을 수행한다. 대잠전에서는 은밀성을 가진 잠수함의 탐지능력이 가장 중요시되는데, 해상자위대는 대잠전 능력향상을 위해 신형구축함에 TASS 소나를 장착하고 함정장착 소나를 개량하고 있으며, 우수한 SH-60J 대잠전용헬기를 함정에 탑재하고 있다. 특히,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80여대의 대잠초계기(P-3C)는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대잠초계기로서 대잠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대잠로켓(ASROC) 발사대와 MK46어뢰 발사관 등의 대잠병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간에 Data Link 체계를 갖추어 탐색에서 공격까지 입체적인 대잠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신의 무기체계를 조달하여 왔으며, 차세대 장비와 감지장치가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대잠전력에 배정된 병력의 자질이 우수하고 훈련 및 그 유지상태가 매우 높아 미국을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의 대잠전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대공전

해상자위대의 기동함대는 대잠전 위주로 되어 있으나, 1980년대 이후 대함미사일의 확산과 위협증가로 대공방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대공전 능력향상을 위한 함정건조계획 및 함정개량 등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로 대공전의 총화로 일컬어지는 ‘콩고’급 이지스함이 호위함대에 배치되어 함대방공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지스체계는 다양한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SPY-1 위상배열 레이다와 사정거리 40마일의 SM-1MR 스탠다드 미사일을 장착하여 동시에 10개 이상의 표적을 요격할 수 있다. 또한 ‘하타카제’와 ‘타치카제’급 DDG는 사정거리 25마일의 SM-1MR을 장착하며, DD에는 사정거리 8마일의 Sea Sparrow가 장비되어 있다. 기타 전파탐지 방해장치(ECM)나 기만을 위한 Chaff를 장착하고 있으며, 근접방어를 위한 고성능 20mm 기관포(CIWS) 및 대공포를 장착하고 있어 대공표적에 대해 원거리, 중거리, 단거리의 단계적인 대공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¹⁰³⁾ 하지만 육상발전 항공기의 작전구역 밖(연안에서 300마일 이상 이격해역)의 원거리 해역

103)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46호, pp. 26-27.

에서는 우군 항공기의 엄호는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함대방공체계에만 의존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다. 대수상함전

대수상함 전력의 목적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해상교통로를 보호유지 하는 것이다. 대수상함전을 위한 전력면에서 해상자위대의 함정들은 모두 최신의 첨단장비를 갖춘 신예함으로써 대수상함전 공격을 위한 하푼 대함미사일, 127mm, 76mm 함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으며, 방어를 위한 스탠다드, 시스패로 대공미사일 및 근접무기방어체계(CIWS)를 갖추고 있다. 또한 최신의 전자장비와 디지털·컴퓨터로 수행하는 전투지휘시스템을 보유함으로써 유도탄전, 전자전 등에 대한 대처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주요 수상함중 약 절반 정도만이 신뢰할 만한 대함능력(Harpoon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적인 대함전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따른다.

라. 상륙전

해상자위대는 「전수방위」를 목표로 하는 전력으로써 다른 나라에 침공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해군이 상륙함부대에 부여하는 상륙전의 수행이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섬으로 나뉘어진 도서국가인 이상 적의 침공에 대처하기 위한 해상수송작전 기능의 보유는 불가결하다고 판단하였고, 상륙함부대에 요구되는 임무는 육상자위대의 해상수송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상자위대는 해병대조직이 없으며, 그나마 소규모 상륙전 전력도 거의 배타적으로 군수지원에 사용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에 비록 방어목적을 위한 것이지만 1개 연대전투단의 동시수송이라는 전력구상 하에 새로운 신개념의 상륙함 오스미함을 건조하였고 동급함정을 추가로 건조할 전망이다. 오스미함은 단순히 병력수송 능력에서만 우수한 것이 아니고, 대형함으로써 LCAC(Air-Cushion형 양륙정) 2척을 탑재하고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종래의 양륙정이 세계 해안의 17%밖에 상륙할 수 없었던 것에 비해 LCAC는 공기부양형이기 때문에 세계해안의 75%에 상륙 가능하다.¹⁰⁴⁾

오수미함의 확보로 해상자위대의 상륙전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그 동안 거의 실시하지 않던 상륙훈련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오수미함의 확보로 해상자위대는 활동범위의 확장은 물론 장래 해상전력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에도 PKO 활동 등 일본의 역할확대 노력의 수단으로써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

마. 기뢰전

해상자위대의 소해능력은 2차대전 종료후의 기뢰제거에서부터 한국전, 그리고 최근의 걸프전에서 그 전력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천해에서의 기뢰전 능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심해에서의 기뢰전을 위한 심해소해정 건조 등 대비책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광범위한 소해체계, 소나 및 중화제 차량, 그리고 소해전용 항공기의 보유는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을 아·태지역을 넘어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은 미 태평양함대의 불충분한 소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뢰부설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 전자전

해상자위대는 전자전지원(ESM)과 전자대항책(ECM) 등 전자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함정은 ESM 장비인 Nec NOLR 인터셉터(Interceptor)와 ECM 장비인 Fujitsu OLT-3 재머(Jammer)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함정에 장착된 레이더의 탐지능력도 뛰어나며, 수상함의 60% 정도가 탑재하고 있는 헬기는 탐지거리 신장 및 표적식별의 신속도를 더해 초수평선(OTH)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자전 능력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이 1998년 8월 31일 동해에서 실시한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시험에서 증명되었다. 당시 동해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묘오코오’의 자료수집 및 분석능력은 미국함정의 전자전 능력보다 정확하고 우수했다는 평

104)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31호, p. 112.

가를 받았다.¹⁰⁵⁾

5. 소결론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병력면에서는 44,000여명의 소수병력이나, 전력구성면에서는 최선의 수상·수중·항공전력을 고루 갖춘 정예화된 입체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작전의 중심이 되는 호위대군(8·8함대)의 호위함들은 각 함정의 임무에 맞게 헬기탑재호위함(DDH), 대공호위함(DDG), 다용도호위함(DD) 등으로 분류되어 그 임무수행에 걸맞는 전투체계를 갖추어 입체작전이 가능하다. 또한 이들 호위함들은 최선의 대공·대잠·대함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센서(탐지·추적)와 공격무기가 컴퓨터에 의한 전자처리로 통합운용되는 전술정보처리장치를 구사하여 모든 해상성분작전능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구비한 첨단함정들이다. 16척의 보유 잠수함들은 비록 핵잠수함은 아니나, 선령이 매우 낮은 최선의 잠수함들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형화되어 있으며, 센서 및 공격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해상초계기(P-3C) 80여대로 대표되는 해상항공전력은 초계능력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며, 현 P-3C의 현대화 개수작업 및 차기 초계기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그 전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이처럼 최선의 입체화된 전력을 갖추므로써 그 작전능력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잠전 수행에 있어서는 호위함의 전함정이 대잠로켓인 ASROC 장착, 대잠헬기 탑재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잠전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 능력에서 미해군에 이어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⁶⁾ 대수상함전 능력 또한 현대전의 총아라는 전자정보 및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어 모든 유형의 해상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였다.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능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천해소해 능력에 더해 심해 소해능력 및 기뢰부설능력을 보완 중에 있다. 상륙전 전력에 있어서는 오스미함의 전력화로 해상전력투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이익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105) 김태준,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분석,” 『Strategy 21』, (2001 여름), p. 118.

106) 해상자위대의 대잠전 능력은 환태평양 연합훈련(RIMPAC 훈련)에서 미국 핵잠수함을 탐지·격침시키는 등 그 유용성이 증명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경제·기술대국에 걸맞게 모두 최신의 하이테크 함정과 장비들로 이루어져있으나, 2차대전 이후 「전수방위」와 「미해군의 역할보조」라는 기본 틀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구조나 해상작전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구 소련의 핵잠수함에 대처하기 위한 대잠전 전력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대잠전 능력에서는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대수상전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것은 탑재무기체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전함정이 대잠로켓을 탑재한 반면에 주요 수상함정 중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은 절반 수준이다. 특히, 변화된 해양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특정분야에만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전쟁이외군사작전(OOTW)¹⁰⁷⁾ 수행능력의 요구라는 점에서 부족한 능력에 대한 보완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¹⁰⁸⁾

대공전 전력에 있어서도 이지스함이 각 호위대군에 모두 전력화됨에 따라 함대 방공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상기동부대의 부재로 육상 발진 우군항공기의 엄호를 받을 수 없는 원거리 해양에서는 오직 함대방공체계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은 공격적 기뢰부설보다는 기뢰대응책에 적합한 전력구조로써 기뢰부설분야는 기뢰대응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일본 주변의 전략적 해협들을 봉쇄하고 동해로 나가는 모든 출구들을 폐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시되고 있다.¹⁰⁹⁾

107) OOTW(Operation Other Than War)는 모든 국력요소(군,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자원 봉사기구 등)의 통합된 노력을 필요로 하며 공격작전, 방어작전, 안정화작전과 지원작전 등의 4가지 작전의 범주를 포함하며, 1993년 미육군 작전요무령(FM 100-5)에 저장도 분쟁(LIC)이란 용어의 대체용어로 처음 등장하였다. 해군대학, 『해양전략』, 제109호 (대전 : 해군대학, 2000), pp. 76-78.

108) 1999년 3월 21일 동해에서의 미식별 함정에 대해 P-3C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3척, 호위함 3척 등을 동원하여 추적하였으나, 결국 미식별 함정은 북한 청진항으로 입항한 사건으로 해상자위대의 수상작전능력의 미숙함이 드러남에 따라 대잠전 임무에 치중해온 전술교리 및 절차, 훈련 전력증강 등 많은 분야에 개선과제가 도출되었다.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41호, pp. 149-160.

109) 해상자위대의 공격기뢰부설능력은 소야형 기뢰부설함 1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대체수단들로는 2차적 기뢰전 임무를 가진 투발수단들인 잠수함과 항공기가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군수지원분야이다. 군수지원분야의 결함(탄약비축과 함대 내의 예비량 부족)은 곧 함대의 해상전투지속능력과 연계되어 장기화되는 분쟁에서 해상자위대의 전투지속능력에 심각한 한계성을 초래할 것이다. 또 해상재급유 능력의 부족으로 비록 20여 척의 지원함이 있으나, 고속 전투지원함 4척 만이 현재 항해중 유류공급이 가능하다. 만일 해상자위대가 장거리 원해 작전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면 이러한 결함은 해상자위대의 작전수행에 있어 큰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래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계획을 보면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족한 능력을 보완할 때 해상자위대는 새로운 동북아 해상세력으로 거듭날 것이다.

제 2 절 주변국과의 능력 비교분석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비교평가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동태적 비교평가방법 중 단순수량비교와 지수비교법을 함께 적용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비교대상으로는 동북아 지역이라는 같은 지정학적 위치에 인접하여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장래 상호간에 해상분쟁의 여지가 높은 한·중·일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단순수량비교와 지수비교법을 통한 각각의 능력 비교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순히 3국간에 누가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해군력 서열뿐만 아니라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수량비교시와 지수비교시의 결과비교시 일본 해상자위대가 수량이라는 개념을 떠나 얼마나 첨단화되고 현대화된 능력인가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해군본부, 『중국·일본해군력과 한국안보』, p. 75.

1. 단순수량비교

일본 해상자위대와 주변국가 해군간의 개략적인 전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한·중 해군의 단순척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세계적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중에서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비교하였다. 전력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1로 하여 각국의 해군과 상대적인 전력비교를 실시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주요 전투함의 척수에서 한국 및 중국과 비교시 1:2.35:0.45로서 중국해군의 0.42배, 한국해군의 2.2배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절반, 한국해군의 두배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는 1:3.9:0.5로써 대략 중국해군의 1/4, 한국해군의 2배를 나타내며, 구축함 전력에 있어서는 1:0.5:0.07로써 대략 중국해군의 2배, 한국해군의 15배를 나타낸다. 즉, 주요 함정의 전력비에 있어서 한국해군에 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한·중·일간의 단순척수만으로는 그 전력비에 있어서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특별히 높다고 할 수 없으며, 한·중·일이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소형함정을 포함한 전체 전투함의 척수비교가 아니라, 한·중 해군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주요 대형전투함정의 척수비교가 나타내는 전력비이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영국해군과 비교시에도 주요전투함의 척수면에서 0.9/1로서 미세하나마 앞서있으며, 다양한 해상작전의 수행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구축함 및 호위함정 수에서는 31/55로 월등히 앞서 있다. 이 수치는 해상자위대의 단위함정들이 첨단화된 전력임을 고려한다면 단순척수비교전력만이 아닌 실제 전력의 차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영국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경항공모함과 핵전력(SLBM)을 배제한다면, 그 전력에 있어서 해상자위대는 영국해군을 능가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8> 참조.

<표 4-8> 해군력 비교(단순수량)

| 구 분 | | 영 국 | 일 본 | 중 국 | 한 국 | 전 력 비 |
|--------|-----|-----------|-------------|----------|---------|------------------------|
| 잠수함 | 핵* | 16(4) | | 7(1) | | |
| | 비핵* | | 16 | 62 | 9(3) | 1 : 3.9 : 0.56 |
| 항공모함 | | 3 | | | | |
| 구축함 | | 11 | 42 | 21 | 3 | 0.26 : 1 : 0.5 : 0.07 |
| 호위함 | | 20 | 13 | 43 | 9 | 1.53 : 1 : 3.3 : 0.69 |
| 초계함(정) | | 23 | (3) 미사일정 | (368) | 28(85) | |
| 기뢰전함 | | 23 | 31 | 40 | 13 | 0.74 : 1 : 1.29 : 0.41 |
| 상륙함 | | 6 | 8 | 59 | 8 | 0.75 : 1 : 7.37 : 1 |
| 전투함정 | 척수 | 102 | 113 | 266(600) | 70(155) | 0.9 : 1 : 2.35 : 0.45 |
| | 톤수 | 740,000 | 312,000 | 543,000 | 133,000 | 2.37 : 1 : 1.74 : 0.42 |
| 주요지원함 | | 39 | 27 | 159 | 6 | |
| 항공기 | 고정익 | 69(34) | 179(80) | 551(471) | 13(8) | 0.38 : 1 : 3.07 : 0.07 |
| | 회전익 | 163(120) | 130(90) | 101(35) | 36(36) | 1.25 : 1 : 0.77 : 0.27 |
| 총계 | 척수 | 141 | 140 | 425(759) | 76(161) | 1 : 1 : 3.03 : 0.54 |
| | 톤수 | 1,290,000 | 442,000 | 950,000 | 166,000 | 2.91 : 1 : 2.14 : 0.37 |

※ 출처 : Jane's Fighting Ship 2000-2001,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를

종합 정리한 자료임

- * 핵잠수함에서 ()는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킴
- * 비핵잠수함에서 ()는 소형잠수정을 가리킴
- * 항공기에서 ()는 무장항공기를 가리킴

2. 지수분석비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순수량만으로 그 전력을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질적인 측면이 고려된 함정지수분석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함정지수비교로서도 정확한 해군력의 비교평가가 완전히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수량비교보다는 그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앞에서도 누차 언급했듯이 일본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정비한 해상자위대의 첨단전력을 고려시 이 수치는 그 신뢰성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 측면을 고려한 함정지수분석을 위해 한·중·일 3국 해군간의 함정지수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비교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1로 하여 한·중 해군의 전력과 상대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주요 전투함에 있어서의 일·중·한의 전력비는 1:0.55:0.27로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략 중국해군의 두배, 한국해군의 네배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든 해상작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축함의 전력비교에 있어서는 전력비가 1:0.37:0.05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3배, 한국해군의 20배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한·중 해군 전력지수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순수량비교 뿐만 아니라 지수비교시에도 핵심전력에 있어서의 전력의 차이가 총합적인 전력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만큼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이 실질적인 평가를 하면 할수록 더욱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수치에서 나타나듯이 단순척수에서 중국에 절반밖에 안 되는 전력이 질적비교시 두배의 전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중국해군의 전력이 노후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얼마나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전력인가를 반증하는 증거일 것이다. <표 4-9> 참조.

<표 4-9> 해군력 비교(지수비교)110)

| 구 분 | 일 본 | | | 중 국 | | | 한 국 | | |
|-------------|-----------------|-----|---------|-------------|-----|---------|---------|--------|--------|
| | 함 종 | 척 수 | 합정지수 | 함 종 | 척 수 | 합정지수 | 함 종 | 척 수 | 합정지수 |
| 구 축 함 | 콩고 | 4 | 522.707 | 소브레메니 | 2 | 195.932 | 광개토 | 3 | 26.625 |
| | 하타카제 | 2 | | Luhu | 2 | | | | |
| | 타치카제 | 3 | | Luda | 14 | | | | |
| | 타카츠키 | 2 | | LudaIII | 1 | | | | |
| | 아사기리 | 8 | | Mod Luda | 2 | | | | |
| | 하츠유키 | 11 | | | | | | | |
| | 무라사메 | 7 | | | | | | | |
| | 시라네 | 2 | | | | | | | |
| | 하루나 | 2 | | | | | | | |
| | 야마구모 | 1 | | | | | | | |
| 호 위 함 | 아부쿠마 | 6 | 59.084 | Jiangwei | 4 | 126.294 | 울산 | 9 | 39.832 |
| | 유바리 | 2 | | Jiangwei II | 7 | | | | |
| | 이시가리 | 1 | | Jianghu | 30 | | | | |
| | 치쿠고 | 4 | | JianghuIII | 2 | | | | |
| 초계함 | | | | | | 포항 | 28 | 93.176 | |
| 총지수 | 581.791 | | | 322.226 | | | 159.633 | | |
| 전력비 | 1 : 0.55 : 0.27 | | | | | | | | |

※ 출처 : Jane's Fighting Ship 2000-2001, The Military Balance 2001-2002.

* 합정지수 : 한국해군 구형구축함(충북함급)을 1로 하였을 경우의 상대지수

110) 합정효과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text{수상전투함 효과지수} = (\text{대함전능력 가중치}) + (\text{대공전능력 가중치}) \\ + (\text{대잠전능력 가중치}) + (\text{전자전능력 가중치})$$

계산된 합정지수는 김주영, “동북아 국가간 해군력 비교분석과 군사적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국방대학교, 1998), pp. 93-94의 합정지수를 적용하였으며, 한국의 광개토대왕급 신형구축함(KDX)의 합정지수는 일본의 무라사메급 구축함의 합정지수를 중국의 신형구축함(소브레메니급)의 합정지수는 일본의 콩고급 구축함의 합정지수를 적용하였음. 부록 참조.

3. 소결론

주변국과의 전력비교시 전투함의 단순척수에서 한·중과 비교시 1:0.45:2.35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절반, 한국해군의 2배수치를 나타낸다. 그러나 지수분석시는 1:0.27:0.55로서 대략 중국해군의 2배, 한국해군의 4배수치를 나타낸다.

단순척수에서 중국해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전력이 질적비교시 2배의 전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중국해군 전력이 노후화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얼마나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전력인가를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중국해군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그들의 국가해양이익의 확보를 위해 해군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은 수적으로는 우세하나 질적으로는 노후화된 전력으로 원해에서 독자적인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함대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국해군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KDX-1)에 와서야 대공유도탄을 탑재한 함정을 보유할 정도로 그 전력은 미미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해상자위대는 자체 대공방어 및 대잠전과 대수상함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동함대(호위대군)를 보유 독자적인 성분작전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현대 해상전에서는 대공, 대잠, 대수상함, 전자전 능력 및 항공기(탑재헬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해상자위대는 이 모든 능력을 갖춘 최첨단 해군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주요 수상전투함과 항공전력에서 거의 세계최고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해상자위대는 매년 호위함, 잠수함, 소해정 등 함정건조실적이 1만 8천톤 이상이며, 매년 600억엔 규모로 해상항공기를 구매하고 있다. 3군간의 전력 구성 비교시도 해상전력은 타군에 비하여 연간 35-40%를 점유 점유 비율이 가장 크다.¹¹¹⁾ 또한 최근에도 지속적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추세로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이 이루어진다면 세계수위의 해군력으로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항공모함의 확보 등을 이루어

111)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시장동향』 (서울 : 국방과학연구소, 1997), p. 2.

명실공히 미해군 다음의 해군력을 확보하게 되고 주변국들과의 전력의 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해상자위대는 현존능력만으로도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상륙전 및 기뢰전 등 각 성분작전별로 어떠한 작전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상륙전용부대 및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거리 작전지원 수행능력과 해군력의 해외 투사능력은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항공모함과 헬기탑재상륙함을 필두로 해외 투사전력의 확보를 염원하여왔다.

그리하여 향후 5년간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의 추세를 보면 과거의 방위력정비 계획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점진적인 기간부대의 확충에 충실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능력을 고려하여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한 부족한 해외투사전력의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상자위대가 해외전력투사임무 수행을 위해 현재의 능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방공 능력의 결여로 이는 해상작전에서 제공권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항공모함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기경보기와 해상전투기를 보유할 수 없어서 원해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함대방공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상형 항공모함(60,000톤급 이상)이 아니더라도 조기경보기와 전투공격기를 탑재할 수 있는 20,000톤급의 소형 항모 2척 정도를 보유하고, TMD에 필요한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5척을 배속하여 대공·대잠·대함 등의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항모기동부대를 편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둘째, 상륙전 능력부족으로 이는 적의 본토침공이 아니라 적에게 기습 점령된 도서를 회복하기 위한 명분아래 헬기탑재상륙함(LPH) 1척을 확보하여 1개의 상륙전기동부대를 창설하고, TMD에 필요한 이지스함 2척과 호위함 5척을 배속하여

대공·대잠·대함 등의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상륙기동부대를 편성하려 하고 있다.¹¹²⁾

1.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1-2005)

해상자위대는 대상연도에 해상전력의 합리화·효율화·콤팩트화를 추진함으로써 양적으로는 감축하더라도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각종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균형적인 해군력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IT시대에 걸맞는 정보통신 능력향상, 기간부대 개편, 즉응태세 향상 등은 방위력 정비계획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탈냉전 시대의 안보 환경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계획 부분이다.

기간중 주요사업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해상전력분야인데, 이는 중국 잠수함의 빈번한 일본 근해 출현과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의아 선박의 영해 접근 사건 등으로 ‘주변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라는 명분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가 향후 5년간 전력증강을 위해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보면 기존의 「전수방어」 고수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추구하는 향후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은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고, 전력투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최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현대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표 4-10> 참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향모를 겨냥한 듯한 기준배수량 13,500톤급의 헬기탑재구축함(DDH)¹¹³⁾ 2척과 헬기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기준배수량 7,700톤급의 이지스구축함(DDG) 2척 건조, 그리고 해상초계기 P-3C 개량형의 개발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대폭 향상시켜 장차 함대편성

112)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pp. 71-72.

113) 현재 4개 호위대군의 기함으로 가동하고 있는 4척의 DDH 가운데 1973년 준공된 ‘하루나’와 1974년에 준공된 ‘히에이’의 후속함으로 2척이 정비된다. 속력은 약 30노트로 기존의 호위함과 비슷하지만, 톤수에서는 기준배수량 약 1만 3,500톤(만재시 약 18,000톤급)으로 4,950톤의 ‘하루나’나 5,050톤의 ‘히에이’에 비해 2배 이상 대형화되는 것이다.

과 수행임무 및 전략구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최신형 장비들이다.

<표 4-10>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 내용(2001-2005)

| 구 분 | 무기체계 | 현보유 | 도입계획 | 비 고 |
|------|------------------------|-------|------|---|
| 수상전력 | AEGIS 구축함 (7,700톤급) | 4척 | 2척 | · 대공·대함·대잠 등 종합적 능력을 보유한 최신예 함정 · 방공능력 강화 및 TMD체계와 연계하여 능력향상 |
| | 헬기담재구축함 (13,500톤급) | 4척 | 2척 | · 제3, 4호위대군 기함 대체운용 · 경헬기항모능력 보유 |
| 수중전력 | 잠수함 | 16척 | 5척 | · 기존 잠수함의 평균선령 11년 유지 및 탐재 장비의 최신화 |
| 상륙전력 | 대형상륙함 | 1척 | 2척 | · 상륙전능력 비약적 향상 · 강습상륙능력 가능 |
| 기뢰전력 | 기타함정 (소해 및 수송함) | 41척 | 15척 | · 대형함정 건조추세 |
| 항공전력 | P-3C 후속기 | 약 80대 | 개발도입 | · 2013년까지 80대체제 완비 및 초계능력 향상 추진 · 고성능 탐지장비 자체개발추진 |
| | 초계헬기 | 60대 | 39대 | · SH-60J 및 SH-60 개량형 |
| | 신소해·수송헬기 | 10대 | 2대 | · 기뢰진 능력 향상추진 |

※ 출처 :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1), p. 137.

특히, 신형 DDH는 척당 건조비가 1천억엔으로 55명 이상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 MH53E 및 대잠초계헬기를 동시에 4대 이·착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며, 장비와 연료를 더한 만재배수량이 2만톤에 가까워 사실상 경항공모함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큰 구축함이 헬기 4대밖에 싣지 못한다는 것과 1천억엔이나 들여 이런 대형 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일본이 경항모 건설의 의도를 헬기담재구축함이라는 명목으로 가장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⁴⁾

일본이 이 같은 대형 호위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단순한 함정의 대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사실상 항공모함 기능을 갖춘 호위함을 보유함으로써 함대의 자기 완결적 작전수행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현재 수상전투함이나 초계기 수 등에서 볼 때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제2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막강한 전력을 가졌더라도 미군의 보조적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만큼 항공모함의 보유는 해상자위대의 오랜 염원이었다.

다음으로 P-3C 후계기 개발이다. P-3C는 2010년부터 퇴역이 개시될 전망으로 이의 대체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이다. 후계기는 고성능 센서 및 정보처리 장치를 탑재하고, 순항속력 450노트(시속 830km, 현재의 P-3C는 620km), 순항고도 1만 1천 m(P-3C는 8,800m), 항속거리 약 8천km(P-3C는 6,600km)의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P-3C의 순항속력이 220노트(시속 약 400km)로 속력이 2배로 증가되었으며, 초계기의 항속거리는 약 9,000km로 대수상함정의 공격임무 수행시 전투행동반경 약 2,000해리(3,700km)로 나하 기지로부터 말레이 반도해상, 유탄도로부터 뉴기니아 주변, 하치노에 기지에서 알류산열도까지를 전투행동반경 내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무장체제는 사정 180km인 대함미사일 ASM-2 4발, 대잠어뢰 4발, 소나부이 100개 이상을 탑재할 것으로 보인다. 90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1대당 150억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해상초계기는 미해군이 P-3C의 후계기가 될 P-7 개발을 단념한 상황에서 21세기 최고의 장거리 해상초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의 핵잠수함에 의한

114) 재래식 항모는 만재시 기준보다 35%정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경항모로 할 경우에는 2만톤에 가까워 질 것이다. 이는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침몰한 중형 항모 “蒼龍”(18,800톤)과 거의 비슷하다. 영국의 ‘인빈시블’ 항공모함이 만재시 2만 600톤이다. 1983년 일본은 2만톤급의 경항모를 만들어 ‘Sea Harrier’를 탑재하고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소련의 TU-22M에 대한 해상방공에 사용하는 案을 거의 완성시키고 1984년부터 5년간의 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요구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의 저지에 의해 중단되었다. 송영선,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 추세와 전망,” 해양전략연구소 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 (서울 : 해양전략연구소, 2002), p.69.

위협이 격감되어 해상자위대의 초계기의 역할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신형 초계기가 과연 어떤 운용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도 의문시된다.

해상자위대의 이와 같은 해군력 증강은 ‘전수방위’ 정책을 고수하되 불확실한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화 된 무기체계를 최신예화 시켜나가는 방위력 정비 계획인지, 아니면 ‘전수방위’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위정책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치밀하고 단계적인 방위력 정비인지 아직 그 실체가 모호하나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전력증강계획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력 증강규모이다. 5년간 25조 1,600억엔을 투입하려면 방위예산을 매년 0.6%씩 늘려 나가야 한다. 일본의 경제규모를 볼 때 이는 엄청난 액수이다. 동·서 냉전이 끝나고 일본의 가상 적었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사실상 사라진 지금 일본이 이렇게 꾸준히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는 명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군사력 증강의 내용이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전수방위’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국제적 역할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공중급유기의 도입과 대형 호위함의 건조결정은 더 이상 자체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력증강에 대해 주변국들의 우려와 비판여론이 높았지만 일본정부는 ‘국제공헌’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추진시키고 있다.¹¹⁵⁾

2. 장기 전력증강계획(2015년)

일본은 앞서 해상자위대의 임무에서 서술한대로 국가의 안전보장, 주변 유사시의 대처, 국제전략환경구축, 해양이용의 확보 등을 앞으로의 해상자위대의 임무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안보상황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전력을 구축하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상자위대의 임무달성을 위한 전력소요에는 항모기동부대, 기동수상

115) 이병선, “일본자위대 방위력증강 실태,” 『국방저널』, 제327호(2001. 3), pp. 83-84.

부대, 기동항공부대, 수상함정부대, 수송부대, 기뢰부설부대, 잠수함부대, 대기퇴전부대, 상륙전부대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항모와 헬기탑재상륙함의 확보계획은, 일본이 탈냉전후 신방위정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신방위대강에서 명시한 해상자위대의 규모를 상회하는 해군력이어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의 소지와 많은 제약요소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해상자위대가 확보하려는 전력과 전력운용계획은 <표 4-11>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15년 일본 해상자위대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확보하려는 해상전력과 그 전력의 운용계획은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해 부족하다고 여기던 해외투사전력의 확충과 그러한 전력의 확충으로 그들이 의도하던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특히, CV(소형항모) 2척, LPH(헬기탑재상륙함) 1척, 오수미형 대형상륙함 2척 추가 확보계획 등의 함정보유는 기존에 없던 기동수상부대와 기동상륙전부대를 편성하여 해군력의 해외투사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항모탑재용의 조기경보기 2대와 전투공격기(V/STOL) 24대의 확보로 기동수상부대를 편성하여 방공능력 향상 및 해군력의 해외투사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력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수방위’의 원칙을 벗어나는 것으로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많은 제한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의도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명확하다. 특히, 주변국에 대한 영향으로서 중국은 일본의 해군력 증강에 관심을 크게 갖고 현재 추진중인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활동에 제동을 걸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보다 경제력에서 뒤진 영국과 프랑스가 항모와 전략 핵잠수함 그리고 헬기탑재상륙함을 공히 운용하고 있고 인도, 태국과 같은 제 3세계의 국가들조차 이미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군력 경쟁국인 중국마저 항모를 확보하고, 미국이 ‘미·일 동맹관계’의 파트너쉽으로서 일본에게 항모확보를 요구할 경우 일본 국내의 정책적 배려가 더해져 의외로 쉽게 해상자위대의 염원대로 성취될 가능성도 있다.

<표 4-11> 2015년 해상자위대 전력운용계획

| 구 분 | 척 수 | 비 고 |
|------------------|-----|--|
| FCC (기함) | 1 | 호위함대의 기함으로서 특히 신형 함정을 설계하지 않고, 지휘·통신능력의 증강을 향상시키는 개조 등에 기존의 함정을 활용한다 |
| CV (소형 항모) | 2 | 이지스함 2척 및 구축함 5척과 함께 기동수상부대를 편성한다. |
| LPH (헬기탑재상륙함) | 1 | 이지스함 2척 및 구축함 5척과 함께 기동상륙전부대를 편성한다. |
| DDG (이지스함) | 4 | TMD의 본격 운용이 실시되기까지는 기동수상부대 및 기동상륙전부대에 2척씩 배속시킨다. |
| DD (구축함) | 10 | 기동수상부대 및 기동상륙전부대에 5척씩 배속한다 |
| DD (구축함) | 21 | 1개대(3척) 계 7개대(21척)를 5개 지방대에 배속한다 |
| MSC (소해함) | 24 | 1개대(2-3척) 계 9개대(24척)를 각 지방대 및 기지대에 분산 배치한다 |
| MSO (소해함) | 3 | 소해대군에 배속한다 |
| MST (소해모함) | 2 | 소해대군의 기함이다 |
| 대형상륙함 (오스미형) | 3 | 기동수상부대 및 기동상륙전부대에 배속한다 |
| AS (잠수함구조모함) | 2 | 2개 잠수대군에 각 1척씩 배속한다 |
| AOE (군수지원함) | 4 | 기동수상부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 대형 소송헬기에 의한 CV(소형항모)에의 해상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 향상형 군수지원함이다 |
| 잠수함 | 16 | 2개 잠수대군에 각 8척씩 배속한다 |
| 잠수함훈련함 | 1 | 잠수함훈련을 위한 잠수함이다 |

| | | |
|--------|----|--|
| 기타함정 | | 훈련함 4척, 소해관제정 2척, 훈련지원함 2척, 해양정보함 2척, 수중기뢰부설함 1척, 음향관측함 2척, 시험선 1척, 홍보정 1척, 쇄빙함 1척 등이다 |
| 조기경보기 | 2 | 항모탐재용 조기경보기이다 |
| 전투공격기 | 24 | 항모탐재용 전투공격기(V/STOL)이다 |
| 대잠초계기 | 70 | 1개 비행대(10대) 계 6개 항공대 및 1개 교육항공대 운용 |
| 대잠헬기 | 80 | 1개 비행대(15대) 계 2개 기동부대용 비행대, 1개 비행대(10대) 계 4개 지방대용 비행대 및 1개 교육항공대 운용 |
| 기타 항공기 | | 소해헬기 10대, 수송헬기 10대, 구난비행정 6대, 구조헬기 20대, 전자전 자료수집기 5대, 훈련지원기 5대 등이다 |

※ 출처 : 山田 誠 外, 『綜合研究成果』 (東京 : 海上自衛隊 幹部學校, 1998), p. 112.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2호, (대전 : 해군본부, 1999), p. 73에서 재인용.

3. 소결론

해상자위대는 이미 대잠전, 대함전, 대공전, 전자전, 상륙전, 기뢰전 등 모든 성분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입체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항공모함과 상륙전용부대 및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거리 작전수행능력과 해외투사능력은 아직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01-2005)을 통해 해외투사전력의 확보를 서두르고 있으며, 장기전력증강계획(2015년)에서는 항공모함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항모기동부대를 편성하여 완벽한 함대방공과 투사전력을 갖추어 원해에서의 해상작전을 가능케 하고, 또한 종합적인 능력을 갖춘 상륙기동부대를 편성하여 해외투사전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경항모를 겨냥한 기준배수량 13,500톤급의 헬기탐재구축함(DDH) 2척, 이지스구축함 2척 추가 건조, 해상초계기 P-3C 개량형의 개발 등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대폭 향상시켜 장차 함대편성과 임무수행 및 전략구상까지도 바꿀 수 있는 최신형 무기체계들로

서 이전의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추구해오던 점진적인 기간부대의 확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장기방위력 정비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해상자위대가 국가의 안전보장, 주변 유사시의 대처, 국제전략환경의 구축, 해양이용의 확보 등 맡은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지역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항모기동부대, 기동수상부대, 기동항공부대, 수상합정부대, 수송부대, 기뢰부설부대, 잠수함부대, 대기뢰전부대, 상륙전부대 등 모든 능력을 갖춘 완벽한 전력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제 4 절 해상자위대 능력 분석결과

일본은 제2차대전에서 패전국으로 전락한 이후 평화헌법 및 비핵 3원칙, 교전권의 포기, 군사력 불보지, 집단자위권의 포기 등 패전국으로서의 명예로 인해 자유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 국가였다. 그래서 군대를 부유하지 못하고 오로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대만을 보유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우선정책으로 경제력은 세계 제2위로 도약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적으로는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변화한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에 따라 그 동안 일본 안보정책의 기본축을 이루고 있던 미·일 동맹의 지위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일본은 그들이 염원하던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정책은 그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군사전략의 전환과 군비증강 또한 필연적으로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그들의 힘을 외부로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인 해상자위대의 급격한 군비증강을 유발하였다.

근래의 해상자위대의 주요 방위력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주변 해양에서의 방위 능력 및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지스함의 추가도입 및 각종함정의 추가건조와 초계헬기 등의 신조배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수송력 및 기동력의 개선을 위해 신형 수송함을 정비하고 공중급유기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그 저의를 읽을 수 있다. 즉 육상자위대의 전력증강 사업내용은 대체로 전수방위의 전략구상에 따른 방어용 무기체계들이 주종이지만 이지스함이 포함된 기동운용체제의 해상자위대의 전투력 강화는 일본 연근해를 벗어나는 해역에서의 해상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수송수단인 대형 보급함은 대양에로의 세력투사에 필수적인 장비이고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작전반경을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AWACS 조기경보기의 도입과 군사위성의 확보추진 등은 향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진방위전략을 지원하는 정보수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일반적인 평가에 있어서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함정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44만여 톤으로 세계 7위에 해당되나,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장비와 무기체계의 성능면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특히,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55척은 미태평양함대의 수상전투함58척(항모 3척 포함)에 가깝고, 영국해군의 34척보다 훨씬 많다. 해상초계기 P-3C도 미해군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해군의 21대, 독일해군의 14대, 네덜란드해군 11대 등 유럽나토국가들을 합친 것보다도 많다. 기뢰함정에서도 소해정 40여척, 소해헬기 10대 등은 독일의 54척 다음가는 세계2위 수준이다. 즉 일본 국내·외의 제한사항으로 보유하지 못하는 전력을 제외한다면 숫적으로는 세계 2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래식 함정만으로 해군력을 비교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해상자위대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다음의 세계 5위의 해군력을 갖

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평가와는 또 다른 해상자위대가 가진 독특한 능력을 평가해볼 수 있다.

먼저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우수한 능력은 다음과 같다.

해상자위대는 병력면에서는 44,000여명의 수수병력이나, 전력구성면에서는 최신의 수상·수중·항공전력을 고루 갖춘 정예화된 입체전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함정들은 최신의 대공·대잠·대함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센서와 공격무기가 컴퓨터에 의한 전자처리로 통합운용되는 전술정보처리장치를 탑재하여 모든 해상성분작전능력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또한 16척의 보유 잠수함들은 비록 핵잠수함은 아니나, 선령이 매우 낮은 최신의 잠수함들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대형화되어 있으며, 센서 및 공격무기체계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 해상초계기(P-3C) 80여대로 대표되는 해상항공전력은 초계능력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되며, 현 P-3C의 현대화 개수작업 및 차기 초계기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어 그 전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이처럼 최신의 입체화된 전력을 갖추으로써 그 작전능력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대잠전 수행에 있어서는 호위함의 전함정이 대잠로켓인 ASROC 장착, 대잠헬기 탑재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잠전체계를 갖추고 있어 그 능력에서 미해군에 이어 세계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수상함전 능력 또한 현대전의 총아라는 전자정보 및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어 모든 유형의 해상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였다.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능력은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수한 천해소해 능력에 더해 심해 소해능력 및 기뢰부설능력을 보완중에 있다. 상륙전 전력에 있어서는 오스미함의 전력화로 해상전력투사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안보이익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수한 능력에 비해 약점도 갖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차대전 이후 「전수방위」와 「미해군의 역할보조」라는 기본 틀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구조나 해상작전수행 능력에서 부족한 면을 드러내고 있는데, 해상자위대의

약점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구 소련의 핵잠수함에 대처하기 위한 대잠전 전력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대잠전 능력에서는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대수상전 능력은 부족하다. 그와 같은 것은 탑재무기체계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전함정이 대잠로켓을 탑재한 반면에, 주요 수상함정 중에서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은 절반 수준이다. 이러한 점은 특히, 변화된 해양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전쟁이외군사작전(OOTW) 수행능력의 요구라는 점에서 능력부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공전 전력에 있어서도 이지스함이 각 호위대군에 모두 전력화됨에 따라 함대방공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아직까지 해상기동부대의 부재로 육상 발진 우군항공기의 엄호를 받을 수 없는 원거리 해양에서는 오직 함대방공체계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기뢰전 전력은 공격적 기뢰부설보다는 기뢰대응책에 적합한 전력구조로써 기뢰부설분야는 기뢰대응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또한 해상자위대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군수지원분야이다. 군수지원분야의 결함은 곧 함대의 해상전투지속능력과 연계되어 장기화되는 분쟁에서 해상자위대의 전투지속능력에 심각한 한계성을 초래한다. 특히, 해상재급유 능력의 부족인데, 비록 20여척의 지원함이 있으나, 고속 전투지원함 4척 만이 현재 항해중 유류공급이 가능하다. 만일 해상자위대가 장거리 원해 작전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면 이러한 결함은 해상자위대의 작전수행에 있어 큰 제한사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상자위대는 일본의 전략적 의지와 경제력에 뒷받침되어 세계 첨단 전력의 확보해 가고 있지만, 그 실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일본이 의도하는 전략을 완전하게 수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아직 미흡한 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표 4-15 > 참조.

여기서 일본이 추구하는 해양전략의 수행차원에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본토방위를 위한 해상방위능력에서 보면 현재 해상자위대는 독자적

인 방위능력이 충분하며, 나아가 방위범위가 확대된 전진방위 수행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탈냉전후 소련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위협이 소멸됐다고 볼 때, 최근 중국 해군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해군력 비교분석(표 4-8, 표4-9 참조) 결과에서와 같이 아직까지는 모든 주변국을 상대로 일본이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적극적인 해양통제전략의 수행차원에서 보면 해상자위대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충분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상자위대는 말 그대로 해군이 아닌 평화헌법에 따라 전수방위만을 위한 존재이나, 실상은 일본 본토방위를 위한 해상방위능력을 넘어 주변해역,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해역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력으로 발전했으며, 특히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전략을 표명한 이래로 더욱 가시화 되어 전수방어를 위한 무기체계 보다는 능동적이고 대외지향적인 즉, 해상전력을 투사하기 위한 전력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표 4- 12> 참조.

<표 4-12> 통제형/거부형 함정의 비율

| 구 분 | 거부형 함정 (고속정, 유도탄정 등) | 통제형 함정 (대형 전투함 중심의 해상투사형 함정) | 통제형 함정의 비유 (통제/거부) |
|-----|-------------------------|------------------------------------|-----------------------|
| 일 본 | 19 | 55 | 289 % |
| 중 국 | 430 | 71 | 16 % |
| 한 국 | 122 | 12 | 9 % |

특히, 전력구조에 따른 유형적 분류기준에 의거 해상자위대를 평가해 본다면, 거의 해상통제형 해군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가장 대표적인 해상투사전력인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제한사항에 따른 것이지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더욱 가시화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13>에서 보듯이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세적인 해상투사전력으로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각국 해군, 특히 주변국의 해군과의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해상통제능력을 갖춘 해군으로 평가할 수 있다.¹¹⁶⁾ 항공모함을 제외한다면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구축함 및 중형호위함 등 해상주력함은 미7함대가 보유한 구축함수보다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주변지역을 상대로는 일본열도의 방위개념을 탈피하여 동아시아 해상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13> 전력구조에 따른 유형적 평가

| 구 분 | 해상통제형 해군 | 해상자위대 | 비 고 |
|------|---|---------------------------------------|--|
| 함정유형 | 항모, 전함, 순양함, 구축함 등의 대형전투함-해상투사형 함정 | 대형구축함 위주의 해상투사형 전력구조 및 대형상륙함 전력 보유 | 항공모함 미보유 등 완전한 해상투사형 전력으로는 부족 |
| 목 표 | 자국의 보호보다는 타국에 대한 해상통제 - 출항통제, 협수로 통제, 광역통제 | 자국방어의 명분으로 주변해역 및 해상교통로에 대한 적극적인 해상통제 |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전략 표명 및 2000해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 |
| 능 력 | 해상통제능력, 해상투사능력, 해상시위능력 | 해상통제능력, 해상투사능력, 해상시위능력 보유 | 완전한 공세적 해상투사전력으로는 부족 |
| 수행방법 | 함대결전, 현존함대, 함대봉쇄 | 모든 능력보유 | 원해(1000해리 이상)로 진출 적극적인 방어전략 구사 |
| 환경조건 | 해군강국으로서의 자연적 조건과 인위적 조건구비 - 2차대전 당시 미국, 영국, 일본 | 해군강국으로서의 조건구비 | 세계2위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잠재력 보유 |

116) 현재 항공모함 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인도 등 8개국뿐이며, 「증기식 캐터필트」를 장치한 ‘정규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 해군은 미국과 프랑스 등 2개국뿐이다.

셋째, 해상교통로의 방위와 일본이 추구하는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한 힘의 투사수단으로서의 해상자위대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이 일본이 추구하는 전략적 의도 및 전력증강과 함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해상교통로의 방위에 있어서 직접호위방식 및 항로대방위방식 모두에서 가능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항모기동부대의 부재로 함정의 분산배치로 인한 불리함과 광활한 해역에서 적 함정을 탐지하고 호위함이 도착하여 격침할 때까지의 장시간 소요에 따른 약점을 안고 있다.

힘의 투사전력으로서의 능력은 아직 여러 가지 제한된 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는 가능한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상당수의 대형전투함정과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동성 및 정보탐지능력 등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특히, 일본은 항공모함의 부재로 인한 기동타격능력의 결함과 핵능력의 부재에 따른 전략적 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그 능력에 있어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능력만으로도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해군력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우세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해상통제능력을 갖춘 대양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가들로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주변국과 비교하여 해상자위대의 대양해군력 보유에 우려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해상자위대의 전력과 장래 전력증강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요구되는데, 해상자위대의 능력에 대해 그 핵심전력인 항공모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양해군에는 미치지 못하는 지역해군 수준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경항공모함으로 개조 가능한 대형상륙함의 보유와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중·대형 전투함의 다수 보유 등 전반적인 작전능력에서 대양해군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¹¹⁷⁾

117) Ken Booth와 Geoffrey Till 교수는 해상자위대를 지역해군 수준으로 분류하였으나, 근래 들어 대양해군에 도달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임인수, “대양해군의 개념연구,”

<표 4-14> 대양해군 분류기준에 의한 평가

| 구 분 | 일반적 대양해군 | 해상자위대 | 비 고 |
|-------------|-------------------------------------|--------------------------------|---|
| 항공모함 | 1-3척 (중·소형 항공모함) | 미 보유 | · 대양작전의 핵심전력 · 건조능력 보유 · 확보추진노력중 |
| 대 형 전투함 | 10-15척 수준 (약 5000-8000톤급) | 16척 보유 (만재배수량 적용시) | · 해전의 핵심전력 · 수적으로 미해군 다음 이며, 가장 첨단화된 전력 |
| 구축함/ 호위함 | 20-30척 수준 (약 3000톤급) | 39척 보유 | |
| 잠수함 | 15-20척 수준 (중·대형 잠수함 또는 핵 잠수함) | 16척 보유 (재래식 잠수함) | · 재래식이나 중형이며, 속력 및 잠항시간 외 에는 핵잠수함과 대등 · AIP체계 도입추진 |
| 상륙함 | 10척 수준 (10,000톤급 이상 대형함 포함) | 6척 보유 (10,000톤급 오수미함 보유) | · 다소 미흡하나, 전력증 강 추진 · 강습상륙함 개조 가능 한 대형상륙함 보유 |
| 기뢰전함 | 10척 수준 (3000톤급 이상의 대형함 포함) | 32척 보유 (5000톤급 2척 포함) | · 양적·질적으로 세계 최고수준 · 기뢰 부설함은 부족 |
| 군 수 지원함 | 10척 수준 (10,000톤급 이상의 대형함 포함) | 4척 보유 | · 취약전력으로 원해에 서의 작전능력향상을 위해 추가확보 필요 · 대형 보급함 확보추진 |
| 병 력 | 약 5만명 이상 | 약 4만 3천 여명 | · 간부위주의 편성으로 병력증강 용이 |

물론 아직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이 주변국을 상대로 한 공세적 해양통제와 해양투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모, 전략핵잠수함, 전술핵잠수함, 대지공격 함재기, 장거리 유도탄, 해병대 전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양해군으로서는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것이 주변 국가들이 아직까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현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겉보기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4-14> 참조.

대양해군의 의미는 대양에서의 국가이익 보호 및 국가정책 지원 가능한 입체전력과 적정수준의 해양통제, 전력투사능력을 구비하여 상당기간 동안 대양에서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해군으로 연안 및 지역해를 포함하여 그 외곽의 약1,000해리 이상 떨어진 원해, 즉 사실상 세계의 대양 어느 곳에서나 일정 기간 동안 작전 가능한 작전수행능력을 지닌 해군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해상자위대는 핵잠수함은 물론이고 4만톤급 혹은 1-2만톤급 경함모도 없고, 공격용 함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동운동되는 자위함대 소속의 어떤 구축함에도 중·장거리 대지 공격용 미사일은 탑재하고 있지 않다. 특히, 기뢰부설함의 수가 적고 아직까지는 상륙작전 수행을 위한 대량 병력 수송/상륙목적의 함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의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군전력은 전략적 역지는 물론이고 유도탄 투사, 전술항공투사 및 상륙돌격투사와 같은 해양투사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완벽한 전력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주변국을 상대로 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해상자위대는 어떤 국가의 해군력에도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중국해군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수적으로만 우세할 뿐 질적 전력 면에서는 해상자위대에 뒤지는 아직까지는 노후화되고 현대화되지 못한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론 여기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점은 중국이 성능의 여부를 떠나 핵탄두 탑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앞으로 만일 중국이 대양해군 건설을 추진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의 핵전력을 강화한다면 일본의 남중국해 등에서의 독립적인 해군력 투사에 대한 강한 전략적 억지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수상함정들의 무기체계 및 레이다 장비는 구형이고 대잠, 대공 및 대함 방어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중국은 신형 구축함과 프리깃함의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1970년대의 기술로 건조되었으며,

구형 무기체계, 통신 전자장비 및 항해거리, 속력의 제한으로 인해 원거리 해상작전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또한 현대의 전자전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대함 및 대공 방어에 필요한 효율적인 근접지원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러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중국해군의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과 함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체계의 고속 대함미사일에 대한 대응, 적의 동시 집중공격에의 대응, 함대전체를 완벽하게 방호하는 강력한 방공능력을 감안한다면, 그 평가는 상반된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일본 해상자위대가 핵전력이 없다고 하지만 해상교통로 보호작전에 필요한 무기체계와 초수평선 정보획득 능력, 유도탄 방어능력 및 C⁴ I에 의한 정보처리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본의 총합안보 개념에 필수적인 전략자원 루트나 주요 통상이익 보호를 위한 선단 호송 등의 수세적 해양통제 임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중국이 아닌 동아시아 주변 제국의 해군력을 상대로 해서 어느 국가와도 양적·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내에서 미7함대 다음이라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수세적 해양통제 및 해상시위형 대양해군의 위상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수상전투함의 전력 면에서 중국해군을 압도하고 있어 일본이 건조한 고속상륙함을 경함모로 개조하거나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할 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기동함대를 보유하게 되어 명실공히 지역내 최강의 대양해군으로 발돋움 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군사잠재력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래 해상자위대의 진정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표 4-15>과 같다.

<표 4-15> 해상자위대 능력 종합평가

| 구 분 | 강 점 | 약 점 | 비 고 | |
|-----------------------|-------|---|--|----------------------------------|
| 해 상 전 투 력 | 지휘관제 | · 지휘관제능력 높음 · RMA 성공적 추진 · 입체전력간 link 장착 | · 파괴, 방해활동에 취약 | · 지휘함 확보추진 · 테러대책 방안 강구 |
| | 정보·통신 | · 조기경보능력 탁월 · 정보수집능력 탁월 · 해상초계능력 탁월 · 위성을 이용한 방대한 통신 및 비화통신능력 확보 | · 감시위성 미보유 · 미국에 의존성 높음 · 국내 전자·통신 보안체계 취약 · EMP 대책 불충분 | · 감시 위성 확보 추진 · 전자통신 보안 체계 개선 |
| | 대잠전 | · 탐색, 추적, 공격무기 능력 높음 · 해·공 협동능력 높음 · 고성능 초계기, 음향관측함 다수 보유 · 잠수함의 저소음 및 전투능력 탁월 | · 동지나해 등 해양자료 불충분 · 핵잠수함 미보유 · 잠수함의 기동성, 잠항시간 제한 및 척수 부족 | |
| | 대함전 | · 대형, 첨단함정 다수보유 · 초수평선 타격능력 · 장거리 대함미사일 보유 · 기동함대(8·8함대)체계 | · 탄종의 단일 및 대함미사일 보유함정 비율 낮음 · 광역의 표적 포착 및 식별능력 일부결여 | · 미사일의 추가확보 및 표적정보 획득능력 개선 |
| | 대공전 | · 이지스함 보유 · 주요함의 SAM 및 CIWS 보유 · 무기체계의 최신화로 탐지, 공격능력 탁월 | · 항공모함 미보유(대공전투기 미보유) · 함대방공을 이지스함에 전적 의존 | · 항공모함 확보 추진 |

| 구 분 | | 강 점 | 약 점 | 비 고 |
|-----------------------|-----|--|---|---------------------------------|
| 해 상 전 투 력 | 기뢰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고수준의 기뢰전 능력 기뢰전 전용항공기 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해능력에만 편중 공격기뢰부설능력 제한 기뢰감시 능력제한 | |
| | 상륙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상륙함 보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병대 미보유 상륙함정 부족 | |
| | 전자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반적 전자전 능력 높음 주요함정 최첨단 전자전 장비 장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적자료 불충분 | |
| 핵능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방어 능력 취약 핵억지력 미국에 의존 | 탄도미사일 방어 추진 |
| 임무수행능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토 및 주변해역방위, 해상교통로 방위능력 보유 주변 해역통제능력 보유 국제평화활동 수행능력 보유(해상시위형 대양해군 위상 확보) | | 완전한 공세적 해상투사 능력으로는 부족하나, 개선 보완중 |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냉전적 불확실성의 구조와 형태로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일본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 그들이 염원하던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를 통한 세계적·지역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획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발맞추어 방위정책 및 군사전략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며, 자위대 방위력의 지속적인 증강을 통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력의 특성상 순수 방위적 측면보다는 힘의 해외투사전력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는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대해 주변국의 많은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발맞추고 정치·군사적 역할확대라는 그들의 국가 목표달성을 위해 방위정책 및 해양전략의 대전환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구상을 실현해 가고 있으며, 세계적·지역적 안보역할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영역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탈냉전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일본 안보정책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미·일 안보조약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추진해 온 제한적인 방위전략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증강시켜온 세계수준의 군사력과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정치 및 외교력을 갖춘 정치·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 그 위상과 중요성이 증가된 유엔을 중심으로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안보정책상의 변화는 일본의 해양전략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일본은 탈냉전후의 정세판단에 있어서도 비록 구소련 체제가 붕괴되어 일

본의 국가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래 일본이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문제와 관련해서 추구해 온 해양전략목표는 변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서 미국 군사력의 축소 움직임과 구소련의 붕괴에 의한 동북아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 상태의 유발 가능성, 그리고 국내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지역내 역할강화 요구증대 등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해상방위를 위한 해양전략에 있어서도 1970년대 이래 지속해온 ‘전수방위’개념에 의한 수동적 방위개념에서 탈피하여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증강하여 ‘해상교통로방위’라는 전략적 목적뿐만 아니라 적이 본토에 이르기 전에 해상에서 이를 격퇴한다는 전략적 개념 하에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일본의 해상방위전략은 일본이 주장하는 근해방위를 목표로 하는 ‘전수방위 해양전략’이 아닌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남지나해 넘어 까지 확대하여 1000해리 해상교통로 주변해역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하는 ‘지역방위전략’으로 이미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력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일본 근해는 물론 북서태평양으로부터 남쪽의 대만 및 동남쪽의 유클라에 이르는 지역을 통제하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으며, 현재에는 세계 수준의 전력으로 성장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콩고급 이지스 구축함 4척을 포함한 15척의 미사일 구축함(DDG), 6척의 대형 헬기탑재 구축함(DDH), 19척의 구축함(DD), 15척의 프리깃함을 중심으로 한 수상함들과 오야시오급을 포함한 16척의 잠수함을 주축으로 37만 4천 톤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30여척의 소해함정을 보유하여 강력한 기뢰 소해능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80여기의 P3C 대잠초계기를 보유하여 강력한 대잠수함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상자위대는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 발사 미

사일과 방공능력이 대폭 향상된 이지스함 및 대형 상륙함, 80여대의 대잠초계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수상전, 대잠전, 상륙전, 기뢰전 등 각 성분작전별로 고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작전 임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체작전이 가능한 해상자위대라 할 수 있다.

일반적 해군력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3위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재래식 함정만으로 해군력을 평가하는데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때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에 이어 세계 5위의 해군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변국과의 해군력 비교에 있어서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상자위대는 현재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와는 그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해군에 비해서도 아직까지는 월등히 첨단화되고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추어 그 전력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이미 현재의 능력만으로도 동아시아 다른 국가의 해군력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우세한 수준이며, 일본이 의도하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정치·군사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1000해리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위한 해상통제능력을 갖춘 대양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새로운 방위정책과 해양전략을 구사하고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갖추고 운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에 따른 영향력 확대의지를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방위정책 및 해양전략으로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일본내의 반전성향, 동북아 및 동남아 주변국들의 일본에 대한 경계심, 전략적 억지/거부능력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면적인 군사갈등 회피, 해상자위대의 독립적 해양투사형, 공세적 해양통제형 및 전략적 거부형 해군력 건설에 대한 미국의 억제 등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전력면에서도 해상자위대는 구소련 극동해군 전력의 현격한

감소와 미해군의 규모축소로 서태평양의 해군력 균형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어를 넘어 2000해리까지의 대양해군으로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미7함대에 비하여 해군력 투사능력이 부족하고 미국 및 중국과 같은 전략적 핵전력이 부재하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적극적인 주변 해역에로의 독립적 해군 세력투사를 위한 전략구상 정립 및 무기체계의 급격한 강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표면적으로 주일 미해군의 혹은 나아가 태평양 미해군의 작전능력을 지원하는 세력으로서 그 위상의 점진적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멀지 않은 장래에 일본이 그들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의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가 완전한 해상통제능력과 전력의 해외투사능력을 구비한 명실상부한 대양해군으로서 거듭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근래의 안보추세와 일본의 국내·외적 안보상황이 일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 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즉,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에서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등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이 일본의 방위력 건설에 있어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유도하고 특히, 일본이 내심 원하고 있는 대양해군을 건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동북아의 전략환경으로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사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지도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일본의 경제, 및 외교적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본과는 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이러한 역할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량의 증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안보차원에서도 미국은 일본이 적정한 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역내 안보질서유지에서 역할분담을 하고 세력균형 유지에도 기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원하지 않아도 해군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며,

최근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게 된다면 일본은 불가피하게 대양해군국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과 같이 일본과 인접하고 있어 정치·군사·사회 등 모든 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러한 대세적인 명분으로 대양해군을 보유하게 되는 이후가 될 것이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최고 수준의 경제, 과학기술과 군사능력을 보유한 일본의 영향은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역내에서 정치·군사적인 영향력 증대는 물론, 그때까지 주변국들과 역사적인 과거청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주변국들이 인정하지 않는 지역 주도국으로서 우려와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이 주변지역 내에서 힘의 투사전력인 가장 강력한 대양해군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일본이 생존을 위한 방위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들의 의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을 보면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력증강에 있어서도 해상자위대가 전력증강을 위해 획득하고자 하는 무기체계를 보면 기존의 「전수방어」 원칙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우발사태에 대비하여 자위대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고, 전력투사가 가능한 방향으로 최첨단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및 현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본의 용인된 책임분야에서 함대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개혁과 변화로서 여기에는 국토방위와 같은 전통적인 임무와 함께 1,000해리 이상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임무들도 해당된다. 두 번째 차원의 발전은 현재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미래 작전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미·일간의 경제·정치적 마찰로 미·일 동맹에 금이 가고 심지어 주일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과 남중국해에 있어 자국의 군사적 시현을 확대하거나 대만에 대한 군사적 대안들

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중국의 움직임 등 해상자위대의 임무에 중대한 변화를 강요할 수 있는 가능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또한 국토방위라는 전통적 강조사항에서도 변화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위협이 감소하면서 임무의 우선 순위가 일본의 남쪽 해상교통로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내 영토분쟁에 의해서 더욱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독도분쟁을 둘러싼 한국과의 분쟁은 지속적인 긴장의 원천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 그리고 나아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를 둘러싼 중국의 다른 역내국가들과의 분쟁은 일본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그들의 완전한 영유권 주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일본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취약점은 일본 해상자위대 임무를 확장하고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획득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것은 일본의 본토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작전할 수 있도록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상황의 변화에 무관하게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전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역사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는 느리고, 점진적인 능력 신장이 최종적으로는 새 역할수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일반 국민에 의해 용인되어 왔는데, 이러한 역할확대에 대한 점진적인 접근법이 21세기에도 지속될 가망성이 크다.

현재 일본은 표면적으로는 평화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일 안보협력체제와 자위대를 두 기둥으로 일본을 방위하고 군사대국으로 불리울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천명함과 동시에 최근 일련의 해상자위대 역할증대와 전력증강움직임에 대해서도 국제평화에의 기여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미국의 통제하에서 미국의 역할분담요구에 따른 것이지 자국의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본의 말대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이미 정치·군사적 강대국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그들의 국가정책대로 해양전략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

으로 전환하였으며, 이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능력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명분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를 통해 일본이 보통국가로서 그리고 정치·군사대국으로서 세계무대에 나설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군사력의 구성 요소로 군사능력, 국가의지, 잠재력, 세 가지를 볼 때 어느 기준에서 군사대국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현재 일본은 능력과 의지 모든 면에서 일본의 독자적 방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의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변화된 해양전략과 전략수단으로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볼 때, 군사대국화 추구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단순히 세계평화에 기여하거나, 전수방위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정치·군사적 강대국 지위획득이라는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록 1. 함정지수 산출

▲ 지수산출 방법

- 전력지수 = 함정지수 × 함정수
- 함정지수 = 함정효과지수 × 함정별 가중치
- 함정효과지수 = (대함전 능력 × 가중치) + (대공전 능력 × 가중치)
+ (대잠전 능력 × 가중치) + (전자전 능력 × 가중치)

▲ 가중치 부여

- 대함전(0.473), 대공전(0.231), 대잠전(0.168), 전자전(0.128)

▲ 가중치 산출방법

- 대함전
 - 란체스터 미분자승법칙 사용
 - 대함유도탄 능력(0.912) : 최대사정, 최고속도, 탄두중량, 명중률
 - 대함포 능력(0.088) : 최대사정, 최고속도, 탄도중량, 명중률
- 대공전
 - 대공유도탄 능력(0.886) : 최대사정, 최고속도, 탄두중량, 명중률
 - 대공포 능력(0.14) : 대공포 효과분석 모델이용 산출
- 대잠전
 - 기동성(0.211) : 최대속력
 - 탐색능력(0.376) ; HMS(0.379), TASS(0.630)
 - 공격력(0.413) : 유도무기(0.678), 어뢰(0.244), 폭뢰(0.044), 로켓(0.034)
- 전자전
 - 레이더(0.234) : 대함레이더(0.341), 대공레이더(0.367), 사통레이더(0.292)
 - 전자장비(0.241) : ESM(0.384), ECM(0.327), IFF(0.269)
 - 통합전투체계(0.525)

▲ 합정지수 산출결과

o 한국

| 구 분 | 합 종 | 척 수 | 합 정 지 수 | | | | | 합 계 |
|-----|-------|-----|---------|-------|-------|-------|-------|--------|
| | | | 대합전 | 대공전 | 대잠전 | 전자전 | 계 | |
| 구축합 | 충북합 | | 1 | 1 | 1 | 1 | 4 | |
| | KDX-1 | 3 | 1.198 | 9.598 | 1.324 | 1.452 | 8.875 | 26.625 |
| 호위합 | FF-1 | 4 | 0.912 | 1.173 | 1.022 | 1.342 | 4.413 | 17.626 |
| | FF-2 | 5 | 0.922 | 1.290 | 1.025 | 1.337 | 4.436 | 22.18 |
| 초계합 | 포 항 | 24 | 0.263 | 0.591 | 0.989 | 0.989 | 3.391 | 81.384 |
| | 동 해 | 4 | 0.170 | 0.898 | 0.898 | 0.989 | 2.928 | 11.792 |

o 일본

| 구 분 | 합 종 | 척 수 | 합 정 지 수 | | | | | 합 계 |
|-----|------|-----|---------|--------|-------|--------|--------|---------|
| | | | 대합전 | 대공전 | 대잠전 | 전자전 | 계 | |
| 구축합 | 콩고 | 4 | 1.198 | 18.918 | 2.321 | 11.249 | 35.084 | 140.336 |
| | 타치카제 | 3 | 1.189 | 8.231 | 1.129 | 5.132 | 15.439 | 46.317 |
| | 무라사메 | 7 | 1.198 | 9.598 | 1.324 | 1.452 | 8.875 | 62.125 |
| | 하타카제 | 2 | 1.876 | 9.331 | 1.238 | 4.337 | 17.698 | 35.396 |
| | 아사기리 | 8 | 1.987 | 3.392 | 1.987 | 2.674 | 10.125 | 81 |
| | 하츠유키 | 11 | 1.123 | 2.435 | 1.786 | 3.226 | 8.875 | 97.625 |
| | 타카츠키 | 2 | 1.364 | 3.312 | 1.879 | 3.321 | 9.436 | 18.872 |
| | 시라네 | 2 | 0.567 | 4.219 | 1.879 | 3.235 | 9.455 | 18.91 |
| | 하루나 | 2 | 0.467 | 4.225 | 1.667 | 3.287 | 9.447 | 18.894 |
| | 야마구모 | 1 | 0.369 | 0.435 | 1.889 | 0.679 | 3.232 | 3.232 |
| 호위합 | 아부쿠마 | 6 | 0.987 | 0.546 | 1.876 | 2.589 | 5.913 | 35.478 |
| | 유바리 | 2 | 0.927 | 0.265 | 0.798 | 2.534 | 4.506 | 9.012 |
| | 치쿠고 | 4 | 0.358 | 0.218 | 1.898 | 0.886 | 2.981 | 11.924 |
| | 이시가리 | 1 | 0.942 | 0.217 | 0.789 | 0.887 | 2.670 | 2.670 |

o 중국

| 구 분 | 함 종 | 척 수 | 함 정 지 수 | | | | | 합 계 |
|-----|-------------|-----|---------|--------|-------|--------|--------|--------|
| | | | 대함전 | 대공전 | 대잠전 | 전자전 | 계 | |
| 구축함 | Sovremenny | 2 | 1.198 | 18.918 | 2.321 | 11.249 | 35.084 | 70.168 |
| | Luhu | 2 | 0.678 | 1.291 | 1.769 | 3.226 | 7.436 | 14.872 |
| | LudaⅢ | 1 | 0.678 | 1.362 | 1.778 | 3.764 | 7.436 | 7.436 |
| | Mod Luda | 2 | 0.788 | 1.329 | 1.897 | 2.649 | 6.466 | 12.932 |
| | Luda | 14 | 0.794 | 1.421 | 1.879 | 2.229 | 6.466 | 90.524 |
| 호위함 | Jiangwei I | 4 | 0.776 | 0.675 | 0.598 | 2.113 | 3.990 | 15.96 |
| | Jianghu I | 30 | 0.726 | 0.463 | 0.912 | 0.867 | 2.636 | 79.08 |
| | Jiangwei Ⅱ | 7 | 0.689 | 0.112 | 0.769 | 2.131 | 3.472 | 24.304 |
| | Jianghu Ⅱ/Ⅲ | 2 | 0.623 | 0.124 | 0.739 | 2.175 | 3.472 | 6.95 |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영오. 『한반도의 해상전략론』. 서울 : 병학사, 1988.
- _____. 『해양전략론』.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공의식. 『현대일본의 정치』. 서울 : 세종출판사, 1998.
- 국방대학원 역.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서울 : 국방대학원, 1976.
- _____. 역. 『군사이론』. 서울 : 국방대학원, 1985.
- _____. 역. 『국가의 해양력』. 서울 : 국방대학원, 1987.
- 국방정보본부. 『일본의 신방위정책』. 서울 : 국방정보본부, 1996.
- _____.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0.
- 권오현. 『일본 신방위정책의 분석 및 자료』.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 김문소.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전략』. 서울 : 국방참모대학, 1995.
- 김일상 역. 『日本海軍國防思想史』.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0.
- 김종기. 『해양전략개론』. 대전 : 해군대학, 1995.
- 김종민. 『전쟁과 해양전략』. 서울 : 이성과 현실사, 1992.
- 김종현. 『해양과 국제정치』. 서울 : 세종출판사, 1997.
- 김현기. 『현대해양전략사상가』.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_____. 『국가경제와 해양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 송영선·강한구·남창희. 『‘신지침’ 관련법 제정후 일본의 군비능력과 한국의 대응책』.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9.
- 송영선·박민규·남창희. 『미·일 신안보공동선언과 일본의 방위력 정비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6.
- 육군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육군본부, 1983.
- 이서항. 『아·태지역 해양문제와 지역안보』.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9.
- 이양·홍승권. 『일본의 군사전략과 전력 발전 방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1994.

- 이원우·강영진·김창국 공역. 『해양력과 21세기』. 대전 : 해군대학, 1999.
- 이원우·김호찬·정현석 공역. 『해양력의 변화국면』. 대전 : 해군대학, 2000.
- 장문석. 『현대일본군사론』. 서울 : 국방대학원, 1997.
- 정보사령부. 『세계의 군사력 2000-2001』. 서울 : 정보사령부, 2000.
- 조학제 역. 『일본의 안전보장론 : 21세기의 위기관리』.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 한계욱. 『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 서울 : 돌베개, 1994.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 전략균형』.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 해군본부 역. 『전시 및 평시에 있어서의 해군의 역할』. 서울 : 해군본부, 1976.
- _____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 서울 : 해군본부, 1986.
- _____. 『해군기본교리』. 서울 : 해군본부, 1991.
- _____. 『중국·일본 해군력과 한국안보』. 대전 : 해군본부, 1999.

- Booth, Ken. *Navies and Foreign Policy*. London : Cromhelm. 1977.
- Department of the Navy. *Naval Warfare*.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the Navy. 1961.
- Mahan, Alfred T.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1932.
- Osgood, Robert E. *Limited War*.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Roskil, S. W. *The Strategy of Sea Power*. London : Collins. 1962.
- Sokol, Anthony E. *Sea Power in the Nuclear Age*. Washington D. C. : Public Affairs Press. 1962.
- Till, Geoffrey.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82.
- Watkins, James D. *The Maritime Strategy*. 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1986.

2. 논문,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 강한구. “미·일 공동안보선언 이후 일본의 방위논의.” 『주간방위논단』 제636호. 1996.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정보』 통권20호. 2001.
- 김달중. “동남아시아의 해양안보환경 : 쟁점 및 전망.” 해군본부 편. 『21세기와 한국의 해양안보』. 서울 : 해군본부, 1994.
- 김종두. “일본의 해상교통로(Sea Lane) 방위에 대한 연구.” 『Strategy 21』 2000년 봄·여름호
- 김주영. 『동북아 국가간 해군력 비교분석과 군사적 안정성 향상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석사논문, 1998.
- 김태준.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분석.” 『Strategy 21』 2001년 여름호.
- 김호찬.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해양전략』 제102호. 1999.
- 남창희. “일본의 대동북아 대양해군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 『국방논집』 제37호. 1997.
-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 방위정책의 새로운 구상.” 『전략연구』 통권 제6호. 1996.
- 박민규. “탈냉전 시대의 일본 방위정책.” 『국방논집』 제 37호. 1997.
- 박한규. “일본의 첨단 기술력과 군사력.” 『전략연구』 통권 제21호. 2001.
- 배정호. “일본의 해군력 현황과 분석.” 이춘근 편. 『동아시아의 해양분쟁과 해군력 증강현황』.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8.
- 백학순. “북미·북일 관계개선 문제.” 『국가전략』 1999년 가을·겨울호.
- 송영선. “탈냉전기 일본의 해양전략 : 추세와 전망.” 해양전략연구소 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연현식.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해군본부 편. 『해양문제의 새로운 영역과 해군의 역할』. 대전 : 해군본부, 1998.

- 와카나베 아키오. “제도적 차원에서 본 금후 일본의 안전보장정책.” 세종연구소 편. 『동북아 지역안보와 일본의 역할』. 성남 : 세종연구소, 1997.
- 이근수. “신 해양법질서와 한국의 해양안보.”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 이누구찌 다카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국제문제』 통권 325호 서울 : 국제문제연구소, 1997.
- 이면우 역. “일본 방위정책의 결정과정.” 『국가전략』 제2권 2호. 1996.
- 이병선. “일본자위대 방위력증강 실태.” 『국방저널』 제327호. 2001.
- 이서항. “동북아의 해양안보 환경변화와 한국 해군의 발전방향.” 『군사논단』 제 29호. 2001.
- _____. “일본의 해양전략과 미·일 동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편. 『일본의 해양 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 이석수. “북한 핵문제의 쟁점과 전망.” 국방대학교 편. 『한반도 핵문제 재조명과 한국의 안보』. 서울 : 국방대학교, 2002.
- 이영우. “군사력 비교평가방법의 고찰.” 『국방논집』 제26호 서울 : 국방대학원, 1996.
- 이재봉.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과 북·미 관계의 전망.” 『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
- 이춘근. “탈냉전시 한국해군의 역할 : 군사외교와 비군사작전을 중심으로.” 해군본부 편. 『해양문제의 새로운 영역과 해군의 역할』. 대전 : 해군본부, 1998.
- 이홍균. “중·일의 군사대국화 움직임과 동북아 정세전망.” 『국방연구』 제118호. 1995.
- 임인수. “대양해군의 개념 연구.”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 장문석. “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40권 제2호. 1997.
- 정관석. “일본의 신방위정책과 자위대의 역할 변화.” 『전투발전연구』 제3호. 1998.
- 정병호. “남북한 군사력 : 그 실상과 허상.” 『국제정치논총』 제29집 1호. 1989.

카주미네 아키토. “탈냉전과 배타적 경제수역 시대의 일본 해상자위대의 임무와 역할.” 이춘근 편. 『The Middle Power Navies』.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999.

함택영. “남북한의 군사력.” 『국제정치논총』 제 37집 1호. 1998.

해군본부. 『기술정보』 제227호, 제229호, 제231호, 제233호, 제241호, 제246호, 제252호.

IISS. “Southeast Asia’s Naval Build-up.” *Strategy Comments*. July 1997.

3. 기타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 국방대학교, 2001.

防衛年監刊行會. 『防衛年監 2001』. 東京 : 防衛年監刊行會, 2001.

日本防衛學會 編. 『國防用語辭典』. 東京 : 朝雲新聞社, 1980.

조선일보. 1999년 9월 11일자.

IISS. *Military Balance* 1975-1976/1985-1986/1996-1997/2000-2001/2001-2002.

Jane’s Fighting Ships 1959-1960/1970-1971/2000-2001.

<http://www.nda.ac.jp>

<http://www.jda.go.jp/JMSDF>